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경학석사 학위논문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의 개념 및 실태

- 대부해솔길 이용자의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cept and Actual Condition of
Nature-based Hiking Trail in Suburban Area

- Based on in-depth user interview of Daebu Haesolgil -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정 욱 재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의 개념 및 실태
- 대부해솔길 이용자의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손 용 훈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4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정 욱 재

정욱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6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의 개념 및 실태
- 대부해솔길 이용자의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정 욱 재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및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학위논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의 지도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8월

위 원 장 _____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부위원장 _____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위 원 _____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초 록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의 개념 및 실태

- 대부해솔길 이용자의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

정 옥 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하이킹은 등산과 같이 수직적 걷기 문화와 달리 수평적 걷기를 지향하며 이용자 행태 역시 차별화된다. 등산이 산악지형과 산림을 배경으로 한 목표지향적 가치 추구라면, 하이킹은 도보 여행의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경관과 지역을 경험하는 것을 지향한다. 2010년을 전후로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과 같이 하이킹 트레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수많은 걷기 길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그 개념과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아 이용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매력을 잃고 방치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하이킹 트레일에 관한 질적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였고,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지만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수도권 근교 하이킹 트레일을 연구하고자 했다.

연구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걷기 여행길, 둘레길, 트레킹, 하이킹, 트레일 등 개념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모호하게 사용되는 걷기 레저 용어 및 개념 정의, 국내외 하이킹 트레일 배경과 현황을 비교한 실태 파악, GIS를 이용한 근교 하이킹 트레일 전수조사와 유형분류, 심층 연구 대상지 대부해솔길의 경관 및 ROS(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 분석, 근거이론을 적용한 방문객과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분석 순이다. 연구의 결과로 우리의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의 개념과 실태, 그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걷기 행위를 의미하는 하이킹, 트레킹 등과 길의 유형을 의미하는 트레일, 둘레길, 걷기 여행길 등은 각기 다른 뉘앙스 차이를 가지며 구분된다. 국내외 문헌자료를 통해 하이킹은 ‘다양한 자연’ 과 ‘도보 여행’ 의 개념이 포함된 ‘걷기 행위’ 로 사료되며, 트레일의 경우는 우리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숲길의 종류에서 트레킹길의 하위 개념이 아닌 레저 형태의 도보길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하이킹의 개념적 정의를 ‘자연에서 여행을 겸한 걷기 행위’, 트레일은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레저 형태의 모든 길’로 정의하였다.

둘째, 국내외 하이킹 트레일의 배경과 체계를 비교하여 우리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전국단위 자료조사가 미흡하다는 것과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미국과 영국 일본 모두 내셔널 트레일 시스템을 가지고 제도적 근거와 통합적 운영체계를 두고 있었다. 나아가 ‘자연의 가치 경험’, ‘국토의 이해’ 등 하이킹 트레일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 원칙 수립과 이를 반영한 계획 관리 차원의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국의 경우 트레일 조성에 있어서 자연기반 해법(NbS : Nature based Solution)을 주요 원칙으로 두고 있으며, 미국은 ROS를 기반으로 자연의 위계를 나누고, 각 위계에 따른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셋째, 현황 분석으로 우리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은 어떤 유형과 특징을 가졌는지 고찰하였다. 그 결과 우리의 근교 트레일은 산림형, 하천형, 해안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상응하는 자연 및 경관 특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트레일의 질적 측면을 높이는 근원적인 방법으로는 해당 자치 법규에 트레일 전용 조례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성격의 사단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트레일 운영·관리의 주체가 되거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넷째, 대부해솔길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통해서 이용자가 원하는 근교 하이킹 트레일은 ‘자연’ 과 ‘지역’ 을 도보 여행으로 경험하는 것을 주요 가치로 두고 있었다. 이들은 상업화된 주요 관광지 보다 대부도 고유 자연과 지역의 풍치를 담은 장소를 선호하였다. 이해관계자의 경우 대부도 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 경험으로, 생태적 관광개발 기초가 형성될 것을 원하고 있었다. 그중 대부해솔길이 하나의 대안으로 보았고,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은 방문객이 해솔길을 걸으며 대부도의 자연과 지역의 가치를 깨닫길 원하고 있다.

다섯째, 각 장이 도출한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의 근교 트레일 모델과 개념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이란 ‘자연(Semi-Primitive Motorized)과 지역(Rural)의 범위 내에서 그 가치를 경험하는 도보 여행길’로 개념화했다.

해당 개념을 반영한 코스 계획으로는 자연과 지역 마을을 조화롭게 연결하여 도보 여행의 경험을 제공, 도시지역 및 인공적 요소를 회피, 구간별 자연성 위계에 따른 코스 관리체계 수립, 이용자 행태를 고려한 편의시설 확보 및 동선 배치 등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걷기 레저의 모호한 개념과 용어 정의로 제도적 보완 및 관련 연구 발전에 혼란을 주었던 부분을 해결하는 것과, 해외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의 근교 하이킹 트레일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점을 찾는 것, 그리고 근교 하이킹 트레일을 전수조사하여 그 유형을 파악하고, ROS와 경관분석 방법론을 코스 분석에 도입하여 트레일의 질을 평가하는 것, 마지막으로 질적연구 방법론을 트레일 관련 연구에 적용시킨 것에 그 의의를 둔다.

.....

주요어 : 대부해솔길, 하이킹, 트레일, 둘레길, 걷기 여행길, ROS, 근거리론, 심층 인터뷰, 농촌관광, 자연기반 트레일

학 번 : 2018-26560

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 and Actual Condition of Nature-based Hiking Trail in Suburban Area

– Based on in-depth user interview of Daebu Haesolgil –

JUNG WOOKJAI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Unlike vertical walking culture like mountain climbing and trekking, hiking is horizontal walking culture. This structural difference leads to different behavior of user. The case of Korea, Mountain climbing and Trekking is a goal-oriented behavior based on mountain topography and forest resources, but hiking is aimed at walking and seeks to experience various landscapes and rural areas. Around 2010, as interest in hiking trails became higher, trails such as Jeju Olle-Gil and Mountain Jiri Dulle-Gil were made. However, concepts and standards about trail were not established. Therefore, many trails couldn't meet walkers' needs resulting in loss of attractiveness and finally got abandoned.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I judged that it is the right time for qualitative research on hiking trails. This study intended to mainly explore hiking trails near the metropolitan area that were relatively less awarded but needs urgent improvement.

The progress of the study is as follows : 1. Defining walking leisure terms and concepts that have subtly different meaning but vaguely used, such as Dulle-gil, hiking, trekking, and trails. 2. A Comparison of Hiking Trail Background and Current Situation between Korea and overseas countries. 3. A Full Survey and

Type Classification of Hiking Trails in the Suburban Area Using GIS. 4. An case study site, Daebu Haesolgil at Daebu Island' s landscape perception analysis and ROS(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 analysis. 5. An In-depth Interview Analysis of Visitors and Stakeholders Using Ground Theory. As a result of the study, this thesis presents the concept, reality, of Korean nature-based suburban hiking trail and implications for the right direction. Implications posed in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Firstly, Hiking, Trekking which means walking behavior, and trails, Dulle-gil, which means types of walking path, are distinguished by subtly different nuances. Through Korean and overseas studies, hiking is considered to be a "walking behavior" that includes the concepts of "diverse nature landscape" and "walking tour", and in the case of trails, according to Korean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STRY CULTURE AND RECREATION ACT, it was identified as a concept that encompasses leisure-type walking paths, not a sub-concept of trekking paths. Therefore,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hiking as 'the behavior of walking with traveling in nature' and the trail as 'all path for walking leisure based on nature'.

Secondly, The research studied the real condition of Korean hiking trails by comparing the background and system of hiking trails in Korea and overseas. During this process, it was recognized that reliable national data surveys were not enough an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had a National Trail System that presents an institutional basis and an integrated operating system. Furthermore, it is urgent to establish basic principles that hiking trails want to pursue, such as 'experience of natural values' and 'understanding of national territory', and to prepare detailed guidelines for planning management that reflect them. In the case of the United Kingdom, the main principle is based on Nature-based Solution(NbS) in trail construction, and the United States divides the

trail type and class of nature based on ROS and establishes management guidelines for each hierarchy.

Thirdly, the study considere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suburban hiking trail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The analysis shows that Korean suburban trails were classified into forest type, river type, and coastal type, and each type has corresponding natural and landscape characteristics. As a fundamental way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trai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trail-only ordinance in the relevant autonomous law. It is also important for non-profit organizations based on the region to participate in trail operation and management.

Fourthly, According to the in-depth interview analysis of Daebu Haesolgil's users, the hiking trail in the suburbs that users wanted was mainly about experiencing "nature" and "region" as walking tours. They preferred places containing the unique nature and local scenery of Daebu-Island rather than major commercialized tourist destinations. In the case of stakeholders, they wanted to form an ecological tourism development stance due to the natural damage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Daebu Island. Therefore, Daebu Haesolgil was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so stakeholders want visitors to realize the value of Daebu Island's nature and local culture through Daebu Haesolgil

Fifthly, The study presents a Korean suburban trail model and concept by synthesizing the results derived from each chapter. 'Korean suburban hiking trail' is conceptualized as a hiking trail to experience value within the range of Semi-Primitive Motorized and rural. Specific course plans reflecting this concept include providing experience of walking tours by connecting nature and local villages in harmony, avoiding urban areas and artificial elements, establishing a course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the nature class of each section, securing convenience facilities considering hiker's behavior, and arranging routes.

In conclusion, the meaning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1. To solve the bottleneck of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and related research development of walking leisure by arranging ambiguous concepts and terms. 2. Comparing overseas cases to identify Korean hiking trails in the suburbs and fi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3. Investigate the hiking trail in the suburbs to find out the type of trail. 4. Evaluating quality by applying ROS and landscape perception analysis methodology into hiking trail course analysis. 5. Application of Ground Theory research methodology to trail-related research.

.....

Keyword : Nature-based Hiking Trail, Rural Tourism, ROS Analysis, Ground Theory, In-depth Interview, Qualitative research

Student Number : 2018-26560

목 차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
1. 연구의 배경	0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02
2절 연구의 범위	03
1. 내용적 범위	03
2. 공간적 범위	03
3. 시간적 범위	06
3절 선행연구 검토	07
1. 관련 선행연구 고찰	07
2. 연구의 착안점	15
4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6
1. 연구의 방법	16
2. 연구의 흐름	18

제2장 이론 고찰 및 국내외 동향 파악

1절 용어 및 개념 정의	19
1. 하이킹 용어 정의	19
2. 트레일 용어 정의	22
3. 자연성과 자연 기반 디자인	24
4. ROS (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	29
5. 근거이론	31
2절 해외 하이킹 트레일 고찰	32
1. 미국의 National Trails System	32
2. 영국의 National Trails	36
3. 일본의 장거리 자연보도	40

3절 국내 트레일 배경 및 현황	44
1. 역사 및 배경	44
2. 유형 및 체계	45
3. 운영 주체	47
4. 현황	48
4절 소결	51

제3장 자연 기반의 수도권 근교 트레일 현황

1절 사례 선정의 틀	52
1. 수도권 근교 범위	53
2. 인구밀도	54
3. 트레일 검증 및 코스 정보	54
4. 트레일 공식 위치정보	55
5. 트레일 길이 및 코스의 수	55
6. 도출 결과	55
2절 트레일 유형화	61
1. 일반현황	61
2. 자연 경관자원	63
3. 보호지역	65
4. 운영 및 관리 수준	67
3절 소결 및 심층 연구 대상지 선정	73

제4장 심층 연구 대상지 대부해솔길

1절 대부도 현안 파악	75
1. 대부도 개요	75
2. 대부도 현황분석	78
2절 대부해솔길 5, 6코스 분석	85
1. 5코스 분석	86
2. 6코스 분석	90

3절 심층 인터뷰	94
1. 심층 인터뷰 개요	94
2. 주요 심층 인터뷰 내용	99
4절 심층 인터뷰 분석	107
1. 근거이론 분석과정	107
2. 개방코딩	108
3. 축코딩과 패러다임 모형	124
4. 선택코딩	128
5절 소결	138
1. 대부도 현황 파악 및 5, 6코스 분석 요약	138
2. 심층 인터뷰 분석 요약	139
3. 근교 하이킹 트레일의 개념 및 방향 요약	140
 제5장 결론	
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42
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46
 [참고문헌]	 147

■ 표 목차

[표 1-1] 트레일 관련 선행연구	13
[표 2-1] 걷기의 용어 및 개념 정리	21
[표 2-2] 트레일 사전적 정의	22
[표 2-3] 자연 기반 개념이 포함된 각 단체의 트레일 원칙 및 목표	26
[표 2-4] The Federal Trail Data Standards의 Trail Class	27
[표 2-5] ROS 각 단계별 특징	29
[표 2-6] Theme of National Trails system	34
[표 2-7] 미국의 트레일 체계	35
[표 2-8] 영국의 트레일 체계	38
[표 2-9] 일본의 트레일 체계	41
[표 2-10] 도호쿠 태평양 연안 자연보도 시설정비 항목	43
[표 2-11] 장거리 자연보도 노선설정 원칙	43
[표 2-12] 산림청의 숲길의 유형	45
[표 2-13]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트레일 유형	46
[표 2-14] 전국 지역별 하이킹 트레일 현황	48
[표 2-15] 전국 지역별 하이킹 트레일 코스 현황	48
[표 2-16] 노선 길이별 하이킹 트레일 현황	49
[표 2-17] 각 부처별 하이킹 트레일 현황	50
[표 3-1] 수도권 근교 트레일의 틀	52
[표 3-2] 도출된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 소개	57
[표 3-3] 전체 트레일과 도출된 트레일	58
[표 3-4] 도출된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 일반현황	61
[표 3-5] 도출된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 자연 및 경관자원	63
[표 2-6] 도출된 자연 기반의 수도권 근교 트레일 인근 보호지역	65
[표 3-7] 도출된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 운영 및 관리 수준	67
[표 3-8] 여주 여강길 프로그램	68
[표 3-9] 각 트레일별 해당 자치 법규	70
[표 4-1] 대부도 주요 추진사업 현황	77
[표 4-2] ROS 위계별 분류 항목	85

[표 4-3] 5코스 ROS 분석	87
[표 4-4] 6코스 ROS 분석	91
[표 4-5] 심층 인터뷰 시간적 범위	94
[표 4-6] 심층 인터뷰 대상	95
[표 4-7] 방문객 인터뷰 질문 예시	97
[표 4-8] 지역 이해관계자 인터뷰 질문 예시	98
[표 4-9] 방문객의 하이킹 유입 배경 및 행태 주요 인터뷰 내용	99
[표 4-10] 방문객의 대부해솔길 인식 및 개선사항 주요 인터뷰 내용	101
[표 4-11] 이해관계자의 대부도 현안 및 과제 주요 인터뷰 내용	103
[표 4-12] 이해관계자의 대부해솔길 인식 및 개선사항 주요 인터뷰 내용	105
[표 4-13] 방문객의 하이킹 입문 배경 및 확산 요인 개방코딩	108
[표 4-14] 방문객의 대부해솔길 문제 인식 개방코딩	111
[표 4-15] 방문객의 대부해솔길 매력 요인 개방코딩	115
[표 4-16] 이해관계자의 대부도 현안 및 과제 개방코딩	117
[표 4-17] 이해관계자의 대부해솔길 개선 방안 개방코딩	119
[표 4-18] 이해관계자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대부해솔길 활성화 개방코딩	121
[표 4-19] 이해관계자의 코로나 이후 대부도 관광 변화 개방코딩	123
[표 4-20] 선택코딩을 위한 질문과 근거	128
[표 4-21] 이용자가 요구하는 대부해솔길 가치와 요소	129
[표 4-22] 이용자가 요구하는 대부해솔길의 전략	131
[표 4-23] 도출된 근교 트레일 운영·관리 및 제도적 사례	135
[표 4-24]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 코스 계획	137

■ 그림 목차

[그림 1-1] 수도권 근교 트레일의 범위 설정	4
[그림 1-2] 대부해솔길 지도	5
[그림 1-3] 연구의 흐름	18
[그림 2-1] 트레일 어원 출처 : google, trail etymology를 참고하여 재구성	22
[그림 2-2] 트레일 유형 개념화 다이어그램	23
[그림 2-3] 자연성 개념	24
[그림 2-4] 토론토의 NETS(Natural Environment Trail Strategy) 예시	28
[그림 2-5] ROS 분석 맵 예시	30
[그림 2-6] A graphic showing the spectrum of ROS classes	30
[그림 2-7] National Trail History Timeline	32
[그림 2-8] National Trails System 50th Anniversary Map. NPS	33
[그림 2-9] 영국의 Public Footpath	36
[그림 2-10] 영국의 National Trails & Coast Path	37
[그림 2-11] 영국의 Public Footpath와 Public bridleway	38
[그림 2-12] Natural England의 Connecting People with Nature 예산 계획	39
[그림 2-13] 일본 장거리 자연보도 현황	40
[그림 2-14] 도호쿠 태평양 연안 자연보도 운영 체제	42
[그림 2-15] 주체별 트레일 개념도	47
[그림 3-1] 수도권 근교 범위	53
[그림 3-2] 수도권 근교의 인구밀도 500(명)/1km ² 이하 시·군 및 도서	54
[그림 3-3] 도출된 자연 기반 수도권 근교 하이킹 트레일 현황 맵	56
[그림 3-4] 코리아 둘레길 운영 및 협력체계 예시	69
[그림 3-5] 경기둘레길 홈페이지	71
[그림 4-1] 농업지역 GI 맵	78
[그림 4-2] 산림지역 GI 맵	79
[그림 4-3] 수역 GI 맵	80
[그림 4-4] 보호지역 GI 맵	81
[그림 4-5] 자연·인문관광자원 분포도	82
[그림 4-6] 편의시설 분포도	83

[그림 4-7] 숙박시설 분포도	84
[그림 4-8] 5코스 ROS 맵	86
[그림 4-9] 5코스 경관분석 맵	88
[그림 4-10] 5코스 주요 경관 사진	89
[그림 4-11] 6코스 ROS 맵	90
[그림 4-12] 6코스 경관분석 맵	92
[그림 4-13] 6코스 주요 경관 사진	93
[그림 4-14] 근거이론을 활용한 심층 인터뷰 분석과정	107
[그림 4-15] 방문객의 하이킹 문화 확산 배경 위계 다이어그램	110
[그림 4-16] 방문객_트레일 관리 문제 개선 위계 다이어그램	113
[그림 4-17] 방문객_대부해솔길 브랜딩 강화 위계 다이어그램	114
[그림 4-18] 방문객_대부해솔길 매력 요인 위계 다이어그램	116
[그림 4-19] 이해관계자_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 우려 위계 다이어그램	118
[그림 4-20] 이해관계자_대부해솔길 관리 차원의 문제 위계 다이어그램	120
[그림 4-21] 이해관계자_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 우려 위계 다이어그램	122
[그림 4-22] 페러다임 모형	124
[그림 4-23]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 모델	132
[그림 4-24]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 모델의 영역	133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걷기는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레저 행위이다. 걷기 길을 통해 우리는 도심과 농촌, 자연으로 이어지는 스펙트럼을 몸소 경험하게 된다. 걷기 길 조성은 시민들에게 건강한 신체 활동을 장려하는 기능뿐 아니라 직접적 체험으로써 자연과 지역의 가치를 일깨워 준다.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의 성공은 새로운 걷기 문화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곧 전국적으로 과도할 정도로 많은 도보 길이 경쟁하듯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매력이 떨어지는 길로 외면받고 방치되었다. 2017년 기준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당시 자체적인 이름을 가진 506개의 길, 1579개 코스, 약 16,420km의 도보길이 존재했을 만큼 그 수가 방대했다. 오랜 기간 운영되어 관리체계와 기준이 확립된 등산로와는 달리, 걷기 길은 그 개념과 체계, 심지어는 이를 부르는 명칭조차도 합치되지 않았다. 결국 걷기 길, 걷기 여행길, 둘레길, 트레킹 길, 트레일 등 모호한 개념의 양산이 결정적인 연구의 계기가 되었다.

우리의 트레일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 국립공원 및 산림지역의 등산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유기준, 2014). 관련 연구 주제로는 트레일 계획 관리, 현황, 이용자 만족도, 인식, 유형화 등이다. 따라서 본 논문이 밝히고자 하는 개념 정의와 하이킹 문화 확산의 근원적 이유, 이용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등산 문화와 차별화된 목적에 관한 연구는 미진했다. 비슷한 주제로 이용자 행태 및 태도에 관한 연구(김선희, 2015; 정윤정 등 2018)와 이용자 선호도에 관한 연구(이태숙 등, 2020; 이미경 등, 2020)가 있었지만, 주로 통계적 접근 및 빅데이터 위주의 양적연구를 채택하고 있어, 새롭게 발현하고 있는 걷기 문화를 해석하는 질적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존 연구 대상지가 등산로 혹은 숲길이거나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과 같이 한국의 대표적인 트레일을 다루고 있었다. 이에 산림만이 아닌 다양한 자연 요소를 포함하며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근교 트레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해당 배경에 착안하여 현재 우리의 걷기 문화는 어떻게 발현되고 발전해왔는지, 근교 하이킹 트레일은 무엇이 있는지, 그 유형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용자가 추구하는 하이킹 트레일은 무엇인지, 이것을 구현하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적연구를 기반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각 물음의 답을 종합하여 본 논문이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근교 하이킹 트레일 개념과 방향’을 연구 결론으로 제시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이용자와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근교 하이킹 트레일의 실태와 개념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과 의의를 둔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사례 및 문헌 연구를 통해서 현재 혼재되어 사용되는 걷기 레저 용어들을 정리한다. 걷기를 바탕으로 하는 국내 아웃도어 레크레이션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개념과 의미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트레일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용어 및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현재 우리의 근교 하이킹 트레일 현황 파악, 관리 및 운영체계, 자연성과 구성 요소들을 종합하여 유형화하였다. 이는 근교 하이킹 트레일의 실태와 매력적인 트레일의 조건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다.

셋째, 기존 트레일에 관한 연구는 통계를 활용한 양적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해당 연구 분야에서 질적연구 방법론을 적용해 보는 것에 그 의의를 둔다.

기존 수직적 형태의 등산 문화에서 수평적 형태인 하이킹 문화가 확산하는 배경, 기존 등산과 차별화된 이용자 행태 및 추구하는 가치를 대부해솔길 방문객 심층 인터뷰를 통해 찾는다. 또한 관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기존 트레일의 지속적인 관리 부실은 해당 지역 이해관계자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부해솔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관리방안 전략을 찾는다. 나아가 분석으로 질적연구 방법론을 채택한 것에 의의를 둔다.

넷째, 하이킹 트레일의 질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ROS(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 분석과 경관 분석을 적용하였다. 이는 트레일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해방 분석기법을 제시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둔다.

2절 연구의 범위

1.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수도권 근교에 위치한 자연 기반 하이킹 트레일의 실태 조사 및 그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다. 연구에 앞서 하이킹 트레일 용어 파악, 자연성 및 자연 기반 원칙의 개념, 연구의 분석기법으로 사용될 ROS(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¹⁾, 근거이론의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하이킹 문화가 정착한 해외 사례를 국내와 비교하여 현재 우리 하이킹 트레일의 현시점을 확인한다. 현재 수도권 근교에 조성된 하이킹 트레일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중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틀에 부합하는 트레일을 도출하여 유형화한다. 도출된 근교 트레일 중 대부해솔길을 심층 연구 대상지로 설정, 대부도 현안 및 현황 분석, ROS분석, 경관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걷기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들을 심층 인터뷰하였으며 이를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심층 인터뷰 분석 내용과 앞서 수행한 2, 3장의 내용을 종합하여 자연 기반 근교 트레일의 개념과 함의를 찾는다.

2.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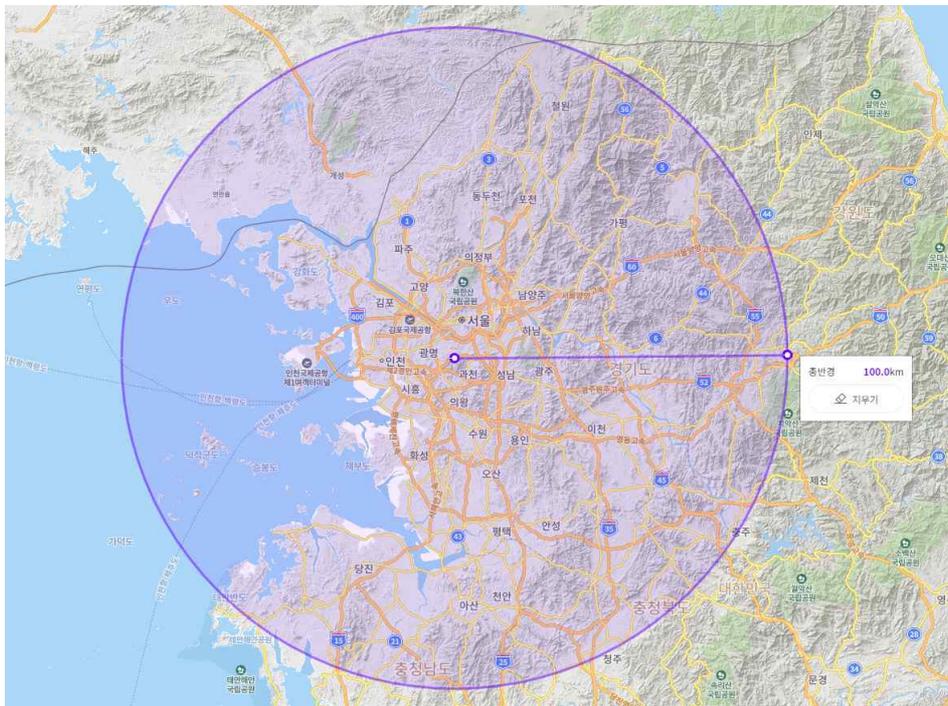
(1) 근교 트레일의 범위

본 논문에서 다루는 수도권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다양한 차원에서 수도권 범위를 고려하였다. 첫째로 법적 의미에서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언급된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주변 지역의 범위로는 대통령령이 정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포함한다.²⁾ 둘째로 접근성 측면에서의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범위를 통상적으로 의미한다. 좁은 범위로는 서울과 광역버스, 전철 등 교통인프라가 닿는 지역을, 넓은 범위로는 철도 및 고속도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실질적으로 서울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

1) 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은 옥외 활동 이용자 및 관리자를 위한 틀로써 대상지 유형을 6단계로 분류한다. Primitive(P), Semi-Primitive Non-Motorized (SPNM), Semi-primitive Motorized (SPM), Roaded Natural, (RN), Rural (R), Urban (U) 의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상지의 자연성과 접근 기회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ROS Users Guid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 Service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모두를 포함하여 춘천과 원주처럼 경기도 외 지역까지 확장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 거주민이 당일 여행으로 방문이 가능한 범위로 ‘서울 기준 반경 100km 이내³⁾’에 위치, 차량 기준 약 2시간 이내 경기 전 지역과 강원도와 충청남·북도 일부에 조성된 하이킹 트레일을 대상지 범위로 설정했다.



[그림 1-1] 수도권 근교 트레일의 범위 설정

(2) 인구밀도를 고려한 지역 설정

도심에 존재하는 트레일이 아닌, 비교적 자연 기반의 도보 여행으로써 적합한 트레일을 선정하기 위해 인구밀도가 낮은 시·군에 조성된 트레일을 선정하였다⁴⁾. 그 결과 서울과 경기도 대도시에 조성된 트레일은 제외되었다. 도시의 경우는 해당 시 인구밀도가 아닌 개별 도서 인구밀도를 고려하였다⁵⁾.

3) 본교를 기준으로 함

4) 해당 범위 내에서 2020년 5월 행정안전부 통계자료를 이용,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수 500명 이하의 시·군을 채택함.

5) 강화도, 대부도처럼 해당 시의 인구밀도 평균은 높지만, 해당 도시의 인구밀도는 낮은 경우를 포함하기 위함.

(3) 심층 연구 대상지 대부해솔길

심층 연구 대상지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대부해솔길이며 이 중 5, 6코스를 선정하여 코스 분석 및 방문객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해관계자의 경우 시민 활동 및 문화관광자원의 구성원으로 대부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인터뷰 대상지는 해솔길 5, 6코스만이 아닌 대부도 전역에서 진행되었다.



[그림 1-2] 대부해솔길 지도

출처 : 안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s://www.ansan.go.kr/tourinfo> (검색일:2022.7.29.)

3. 시간적 범위

(1) 근교 하이킹 트레일 전수조사 및 GPX 데이터 수집의 시간적 범위

경기둘레길 개통이 완료된 2021년 11월 이후를 기준으로 수도권 근교 트레일 전수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업로드된 2022년 2월 전국길관광정보표준데이터와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두루누비⁶⁾ 홈페이지에 등록된 트레일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트레일 코스 위치정보에 해당하는 GPX 데이터는 해당 시점에 두루누비에 공개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심층 연구 대상지의 시간적 범위

대부해솔길 내 심층 인터뷰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진행되었다. 2020년 7월 사전 답사를 통해 해솔길 전 코스를 답사하며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다. 2020년 8월부터 약 한 달간 해솔길 방문객 5인, 지역 이해관계자 9인을 인터뷰하였다. 2020년 9월에서 12월까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학과 ‘여가 공간 설계’ 수업의 과정으로 문헌자료 수집, 현장 자료 수집, 심층 인터뷰 녹취자료 문서화 및 분석, GIS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이후 해솔길 방문객 표본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2021년 6월 3명의 방문객과 함께 해솔길을 걷고 추가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6) www.durunubi.kr, 두루누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위치 기반 정보서비스다. 한국에 조성된 하이킹 트레일 및 자전거 길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공개한다.

3절 선행연구 검토

1. 관련 선행연구 고찰

하이킹 트레일에 관한 연구는 걷기 여행길의 관심이 증가한 2,000년대에 들어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선행 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키워드로 ‘등산로’, ‘탐방로’, ‘둘레길’, ‘하이킹’, ‘트레킹’, ‘걷기 여행길’, ‘트레일’ 등 걷기 레저 관련 용어를 사용하여 학위 및 관련 학회 논문과 산림청, 한국관광공사 등 도보 길을 다루는 관련기관 연구보고서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유형으로는 계획 관리, 현황 및 실태,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인식 및 태도, 트레일 유형 및 사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계획 관리

산림청은 등산지원 기본계획(2007),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2013), 숲길등산정책 사업계획(2015)을 통해서 산림 내 트레일 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정휘·양병이(2008)는 광역 탐방로 노선설정을 위한 계획 요소로 사례 조사와 전문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생태계 민감지역에 대한 보호, 자연성, 지역간의 연계, 안정성 등을 꼽았다.

김기원(2009)은 숲길 조성에 있어 한국 농촌 마을의 특징을 적용하였다. 점, 선, 면으로 이루어지는 숲길의 요소에 밭두렁과 논두렁, 1리 1정 등 우리의 전통 개념을 도입, 한국적인 숲길 조성의 개념적 기초를 수립하고자 했다.

황국웅·장병관(2011)은 산악지형에서의 장거리 트레일 조성 계획방법을 위해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낙동정맥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2013)은 국립공원 내 탐방로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표준 매뉴얼을 구축했다.

국립산림과학원(2014)은 영국, 일본, 미국, 뉴질랜드의 사례를 비교하여 국가등산로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목표 및 체계, 운영 및 관리 등의 기준을 설정했다.

김은자 외(2014)는 강릉 안반데기 마을과 용인 학일 마을을 대상지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길 계획 요소로 지역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은 걷기 여행길 통합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연구(2014)를 통해 등산로가 아닌 도보 여행길에 대한 위계 수립 및 지정, 관리, 조성, 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2) 현황 및 실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걷는 길 조성사업의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2012)을 통해 관광 패러다임이 점 형태에서 선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새롭게 조성된 길을 조사했다. 지자체 및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트레일들을 분류하였고 다양한 길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며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걷기여행 실태조사(2020)를 통해 걷기여행 관련 기초 통계자료 수집, 걷기여행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였다. 조사 방식은 온라인 및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전국 만15세부터 만79세까지 4,000명의 표본을 수집하여 걷기 여행의 경험률, 선호하는 걷기 여행길, 걷기 여행길에 대한 인식 및 이용행태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로 최근 1년 내 걷기 여행길에 대한 경험률과 만족도에서 제주 올레길이 가장 높았으며, 지리산 둘레길, 해파랑길 순이었다. 여행기간으로는 2018년은 당일이 66.5%로 가장 높았지만 2019년에는 숙박 여행이 57.2%로 역전되었다. 걷기 여행의 편익에 대해서는 신체 건강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연 체험, 정신 및 신체적 힐링 등으로 나타났다.

이미경·박한우(2020)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총 걷기 여행길 중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79개의 길을 대상으로 웹페이지를 수집하고 각 길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연결성 및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로 제주올레, 지리산 둘레길 등 인지도가 높은 트레일 보다 대도시 내 골목길이 웹 상에서의 노출이 더 높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전국적으로 과도할 정도로 많이 세분화 된 길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은 낮으며 따라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길들을 위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3) 만족도

조우현·임승빈(2013)은 경관적 측면에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방법으로 북한산 둘레길 13개 구간의 대표 경관 사진을 선정하여 선호도와 이용 만족도에 대한 관련성을 측정하였다. 결과로 자연성이 높을수록 경관 이미지로의 선호도는 증가했으며, 경관 선호도와 이용 만족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정태열 외(2018)는 백두대간 관리 및 운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4년간 2,519명의 대면 설문을 진행하여 방문객의 이용 행태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방문객 만족도에 미치는 변수들 간 영향력을 측정한 결과로 백두대간이 가지는 ‘원시적 경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영영·김준수(2018)은 제한적 탐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곰배령과 금강소나무숲길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해당 보호지역의 주민 만족도와 태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조사했다. 만족하는 요인중 높은 것은 제한적 탐방제 실시에 따른 주민 수익 증대였고, 불만요인으로는 주민간의 갈등이 나타났다. 금강소나무 숲길의 경우 곰배령의 주민들 보다 주민갈등이 낮았는데, 이는 전문적인 관리센터를 설치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4) 인식 및 태도

강미희·정휘(2011)는 새로운 걷기 문화를 즐기는 도보 여행자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지리산 둘레길 이용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여행 특성, 동기와 태도 등을 조사했다. 현장 및 이메일을 통한 1,026명의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로 중년 이상의 고학력 및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도보 여행 참여에 적극적이며 이들은 자연을 감상하고 직접 체험하며 지적, 미적 욕구가 강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트레일과 관련 시설물을 설계할 때 이러한 이용자 요소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김정민(2011)은 도시형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20 ~ 69세 남녀를 전화면접조사 하였고 총 300명의 표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58% 이상이 기존 정상지향형이 아닌 둘레길 형태의

길에 대해 우호적인 이용의사를 밝혔다. 또한 둘레길 조성원칙과 관리방향으로는 산림자원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트레일의 적정 탐방시간은 1~3시간, 길이는 11~20km를 선호한다고 조사되었다.

박금미·정태열(2014)은 소백산 자락길 생태탐방로 개발계획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주민 150명, 탐방객 160명, 전문가 86명의 설문조사를 분석했다. SPSS 20.0을 활용하여 신뢰도 및 분산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전문가 집단은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 등을 기대했으며, 탐방객 집단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전문가 집단은 지역 전통 문화재 등에 대한 자긍심을 기대했고, 탐방객 집단은 범죄증가 및 지역 문화훼손, 주민갈등 유발 등 지역 사회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에 유기준(2014)의 연구에서 이용자들은 지리산 둘레길 조성이 지역사회 경제와 문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역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는 맥락을 같이했다.

김선희(2015)는 금강소나무숲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영향지각, 환경태도, 참여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금강소나무숲길로 인해 관광의 사회, 문화, 환경적 영향지각은 긍정적인 반면에 경제와 환경적 영향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시설중심의 관광개발에는 부정적, 트레일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는 긍정적이었지만 경제적 효과는 낮을 거라고 보았다. 경제와 환경적 지각이 높은 주민일수록 참여에 긍정적이었고, 경제와 문화적지각이 높을수록 환경태도가 우호적이었다.

장윤선(2017)은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 치유 숲길을 비교, 이용자 특성과 치유행태, 인식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두 공간 모두 친수공간 및 새로운 요소가 있을수록 이용자가 강한 치유효과를 경험하였으며, 대상지인 한국의 숲내음숲길 치유특질은 ‘탈출감’. 일본 오타키길의 경우는 ‘매력감’으로 분석했다.

정윤정·김성일(2018)은 대부 해솔길 방문객의 동기 및 태도에 따른 시장세분화 연구를 통해 방문객을 ‘자연탐방형 책임있는 관광객’, ‘소극적 자연탐방형 관광객’, ‘자연탐방 및 친목도모형 책임있는 관광객’으로 분류했으며 세 항목 모두 ‘자연탐방’의 동기가 강하다고 보았다. ‘자연탐방 및 친목도모형 책임있는 관

광객’의 경우 다른 항목에 비해 40~50대 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도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소극적 자연탐방형 관광객’의 경우 다양한 연령대별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태숙 외(2020)는 국내 주요 걷기 여행길에 대한 인식 및 이용행태를 파악하고자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해파랑길에 대한 10년간의 포털 및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길의 특성, 명소, 감성 이미지, 숙박 장소, 동반자 유형 등을 파악하였고 나아가 각 길에 대한 관심도 추이 및 주요 키워드를 도출했다. 그 결과로 해파랑길은 점차 자료가 증가한 반면, 제주 올레길은 추이에 큰 변화가 없었고, 지리산 둘레길의 경우 감소하였다. 제주 올레길은 ‘맛집’, ‘카페’, 해파랑길은 ‘맛집’, ‘펜션’, 지리산 둘레길은 ‘펜션’, ‘민박’이 주요 키워드로 유명되었다. 정서적 의미로는 세 길 모두 감정 어휘로 ‘힐링’, ‘행복’으로 나타났다.

정욱재·손용훈(2020)은 걷기 문화가 기존 등산 문화로부터 하이킹 문화로 전이 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알기 위해 질적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해석했다. 대표적인 장거리 하이킹 트레일인 동해 해파랑길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두 개 코스를 걷는 동호인들을 심층 인터뷰했으며 이를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하이킹 문화를 향유하는 이들이 어떠한 조건으로 입문하게 되었으며, 하이킹 이용자의 요구 및 행태, 하이킹 문화가 나아가야 할 시사점을 찾는다. 결과로는 참여자들은 도시적 요소보다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트레일을 선호하며 이를 통해 환경 의식 및 감수성이 고취되며, 잘 계획 관리 된 하이킹을 접하며 해당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이미지 향상을 경험했다. 건전한 하이킹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선 기존 걷기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도전 정신, 집단성 등을 탈피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는 참가자들이 하이킹 문화로 유입된 배경이기도 하다.

(5) 유형 및 사례

김세건 외(2012)는 국내 숲길의 유형과 규격을 구분했다. 전국 규모의 장거리 트레일은 국가 숲길(national trail), 백두대간 체계의 정맥이나 도립공원 단위의 광역 숲길(provincial trail), 행정구역 단위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지역 숲길(local

trail)로 유형을 분류했다.

이수광·서정원(2021)은 해외 트레일 관련 제도 및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의 국가숲길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모색하였다. 이에 영국과 뉴질랜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국가 숲길에 적용할 것을 제시한다. 세부적으로는 방문객에게 통행권(permit) 부여, 품질기준 구체화 및 국가 트레일로 명칭 변경 등으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예산확보의 근거를 마련, 각 주체별 운영 및 관리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하여 효율성 강화, 국가숲길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6) 정책 제안

국립공원연구원(2020)은 백두대간 종주 수요로부터 통제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갈등이 존재,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의 효과적인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행하였다. 백두대간 마루금 통제구간의 현황 및 관리 여건을 조사하고 백두대간 내 국립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국립공원 내 통제구간을 관리하는 해외 사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백두대간 종주 문화를 그 주변 탐방문화로 전환을 추진, 통제구간의 보전 수단 강화 및 가이드 동반 탐방 예약제 실시 등 정책을 제안한다.

[표 1-4] 트레일 관련 선행연구

유형	논문	저자 / 기관	내용
계획 / 관리	광역 탐방로 노선설정을 위한 계획요소 연구(2008)	정휘·양병이 / 한국조경학회지	광역 탐방로 노선 설정을 위한 계획 요소 도출
	숲길 계획의 개념적 기법에 관한 연구	김기원/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한국적인 숲길 조성의 개념적 기초를 수립
	등산지원 기본계획(2007),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2013), 숲길등산정책 사업계획(2015)	산림청	산림 내 트레일 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
	산악지역에서의 장거리 트레일 조성 계획방법 및 적용(2011)	황국웅·장병관 / 농촌계획학회	산악지형에서의 장거리 트레일 조성 계획방법을 위해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낙동정맥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립공원 탐방로 관리 매뉴얼(2013)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내 탐방로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표준 매뉴얼
	자연경관형 및 역사문화형의 농촌 마을길 계획(2014)	김은자 외 / 농촌계획학회	강릉 안반데기 마을과 용인 학일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 길 계획요소로 자연경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
	국가등산로 지정 및 관리 방안(2014)	김통일·김재준 / 국립산림과학원	국가등산로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며, 목표 및 체계, 운영 및 관리 등의 기준을 설정
현황 / 실태	걷는 길 조성사업의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2012)	김도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트레일들을 분류, 다양한 길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며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
	걷기여행 실태조사(2020)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걷기여행 관련 기초 통계자료 수집, 걷기여행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
	빅데이터를 이용한 국내 걷기여행길 연결망 분석과 경쟁력 평가(2020)	이미경·박한우 / 한국관광학회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79개의 국내 대표 길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웹페이지를 수집, 각 길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연결성 및 중요도 도출
유형 / 사례	국내 숲길의 유형 분류 및 적정 규격에 관한 고찰(2012)	김세건 외 /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국내 숲길의 유형과 규격을 구분함. 전국 규모의 국가 숲길(national trail)을, 정맥이나 도립공원 단위의 광역 숲길(provincial trail),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 숲길(local trail)로 유형을 분류
	해외 국가트레일 제도 및 운영사례(2021)	이수광·서정원 / 국립산림과학원	영국과 뉴질랜드, 미국의 사례를 분석 트레일 관련 제도 및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 국가 숲길에 대한 안정적 정착을 모색함.

유형	논문	저자 / 기관	내용
인식 / 태도	도보여행자의 특성 규명 · 지리산둘레길 이용자를 중심으로(2011)	강미희 · 정휘 / 한국임학회	새로운 걷기 문화를 즐기는 도보 여행자들에게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지리산 둘레길 이용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여행 특성, 동기 및 태도 등을 조사
	도시형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에 대한 시민 인식(2011)	김정민 / 한국환경생태학회	도시형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 서울시에 거주하는 20 ~ 69세 남녀를 전화면접 후 총 300명의 표본을 분석
	소백산 자락길 생태탐방로 개발계획에 대한 각 집단 태도분석(2014)	박금미 · 정태열 / 한국조경학회	소백산 자락길 생태탐방로 개발계획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주민 150명, 탐방객 160명, 전문가 86명의 설문조사를 분석
	도보여행길에 대한 주민의 관광영향지각, 환경태도, 참여 관계 분석(2015)	김선희 / 대한지리학회	금강소나무숲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영향지각, 환경태도, 참여관계를 분석
	치유의 숲 내 치유숲길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2017)	장윤선 · 손용훈 /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한국 ‘숲내음숲길’ 과 일본의 ‘오타키길’ 치유 숲길을 비교, 이용자 특성과 치유 행태, 인식 등을 분석
	생태관광지 방문객의 동기 및 태도에 따른 시장세분화(2018)	정윤정·김성일 / 한국조경학회	대부해솔길1코스 방문자 설문조사후 탐색적 요인분석과 K-means 군집분석, 세계의 시장세분 방문객의 태도 파악
	국내 주요 걷기여행길의 이용행태에 대한 시멘틱 네트워크(Semantic Network) 분석(2020)	이태숙 · 전채남 · 이태환 / 한국관광학회	국내 주요 걷기 여행길에 대한 인식 및 이용행태를 파악하고자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해파랑길에 대한 10년간의 포탈 및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
만족도	북한산 둘레길 경관선호도와 이용만족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2013)	조우현 · 임승빈 / 한국조경학회	북한산 둘레길 13개 구간의 대표 경관 사진을 선정하여 경관적 측면에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
	백두대간 운영관리전략을 위한 방문객의 이용행태와 만족도 조사 연구(2018)	정태열·김차권·강기래 /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백두대간 관리 및 운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4년간 2,519명의 대면 설문을 진행, 방문객의 이용 행태 및 만족도 조사
	제한적 탐방제에 대한 보호지역주민의 만족도 분석 곰배령과 금강소나무숲길 사례(2018)	이영영 · 김준수 / 한국환경정책학회	제한적 탐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곰배령과 금강소나무숲길을 대상으로 설정, 해당 지역의 주민 만족도와 태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조사

2. 연구의 착안점

하이킹 트레일이 급격하게 증가한 2000년대 이후 기존 국내 트레일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의 착안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는 아웃도어 레저에서의 걷기와 길에 대한 용어 및 개념적 정의가 미흡했다. 하이킹, 트레킹, 등산, 등반, 트레일, 둘레길, 등산로, 탐방로, 걷기 여행길 등 비슷하지만 개념적 차이가 존재하는 용어들을 배경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있고, 이는 앞으로의 관련 연구에 있어서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는 하이킹 트레일 용어와 개념을 정리하고 유형화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 연구 대상지는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백두대간, 국립공원 등 한국을 대표하는 트레일 혹은 산림에 존재하는 등산로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비교적 연구 대상지로 조명되진 않았지만, 수도권 근교에 위치해 이용자 접근이 쉽고, 산림만이 아닌 강, 호수, 바다, 농촌 등 다양한 자연경관을 지닌 하이킹 트레일의 실태 파악이 필요해 보였다.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리 자료를 토대로 수도권 근교 트레일을 전수 조사하였고, 이 중 도심 근교에서 자연을 향유하며 걷기 여행이 적합한 하이킹 트레일을 도출하기 위한 틀을 설정하였다. 해당 틀을 이용하여 도심이 아닌 비교적 자연에서 15km 이상 하이킹 트레일들을 도출하였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트레일에 관한 만족도, 이용 및 실태에 관한 기존 연구는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한 양적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해당 방법은 걷기 여행길 이용자의 전반적인 경향성과 만족요인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이들이 기존 등산과 같은 걷기 문화에서 수평적 걷기인 하이킹으로 유입된 근원적인 이유와 기존 걷기 길 혹은 등산로와는 달리 하이킹 트레일에 요구되는 차별점 등을 깊게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트레일 매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근원은 무엇에 기인하는지 심층적으로 보고자 3장 현황을 통해 도출한 트레일 중 대부해솔길을 심층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방문객과 지역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분석하였다.

4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 연구의 방법

(1) 용어 정의 및 이론적 고찰

첫째로 하이킹과 트레일의 용어를 파악하였다. 현재 아웃도어 용어로서 걷기 행위는 하이킹, 트레킹, 백패킹 등, 도보 길의 경우는 등산로, 탐방로, 둘레길 등 비슷하지만 각각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 연구에 혼란을 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로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자연성과 자연 기반 원칙 및 디자인, 방법론으로 사용될 ROS(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 근거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2) 국내외 하이킹 트레일 동향 파악

비교적 하이킹 문화가 보편화된 국가들을 선정하여 하이킹 트레일이 발전하게 된 배경, 현재의 제도 및 체계,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우리의 상황과 비교한다. 나아가 현재 우리의 하이킹 트레일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기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3)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 현황 파악

수도권 근교에서 걷기 여행으로 적합한 하이킹 트레일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 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 기준 100km 반경에 위치한 시·군을 채택하였다. 둘째, 도심 외 지역에 조성된 트레일을 선정하기 위해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밀도 500명 이하의 시·군을 선정하였다. 셋째, 위 조건에 부합하는 시·군에 조성된 하이킹 트레일을 전수 조사하였다. 넷째, 짧은 산책로가 아닌 걷기 여행길로써 적합한 트레일을 설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2014)의 걷기 여행길 위계를 적용하여 초단거리에 해당하는 15km 미만 트레일은 제외했으며, 3개 이상 코스를 보유한 트레일을 선정하였다. 해당 틀을 이용하여 도출한 트레일들을 수도권 도심 근교에서, 비교적 자연 기반에 조성된, 걷기 여행이 적합한 하이킹 트레일로 판단하였고 전체적인 유형과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유형과 특징에는 각 트레일의 주요 자연자원 요소, 트레일 길이와 형태, 코스의 수와 난이도,

운영주체, 트레일이 보유한 프로그램, 홈페이지 유무, 해당 트레일 관련 법 및 조례 유무 등 이다.

(4) 심층 연구 대상지 대부해솔길 분석

문헌자료 검토를 통해 현재 대부도의 현안과 향후 계획과제를 파악하였으며, QGIS3를 이용하여 자연 및 관광자원 등을 분석하였다. 대부해솔길 코스 분석으로는 ROS를 적용하여 코스 주변 자연 구성을 파악하였으며, 경관 분석을 통해 코스별 경관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였다.

(5) 심층 인터뷰

평소 하이킹을 즐기는 방문객 8인과 대부도 내에서 활동 중인 지역 이해관계자 9인을 각 30분 이상 대면으로 심층 인터뷰하였다. 방문객의 경우 대부해솔길 5, 6코스를 걸은 후 당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지역 이해관계자는 해당 인터뷰 당사자가 머무는 대부도 내 소재지를 방문하여 인터뷰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녹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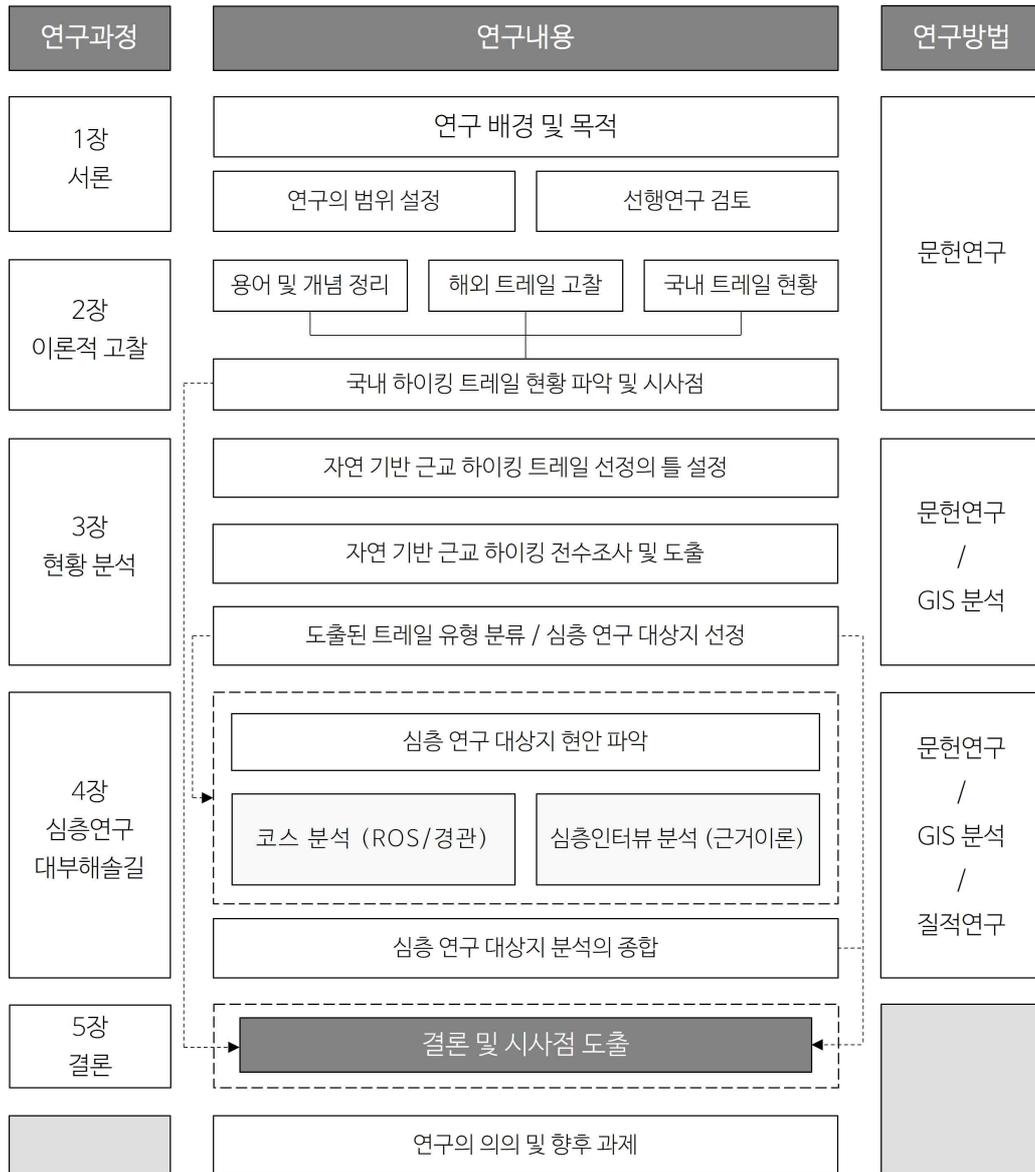
(6) 근거이론을 적용한 심층 인터뷰 분석

녹취 후 문서화 한 인터뷰를 NVivo1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코딩하였다. 개방 코딩 과정을 거쳐 각 그룹이 인식하는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에 대한 키워드를 범주화하였고, 일부 주요 키워드들은 위계 다이어그램⁷⁾을 도출하였다. 개방 코딩으로 도출한 키워드를 이용하여 축 코딩을 진행, 대부해솔길의 매력이 떨어지는 문제의식을 중심현상으로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 측면에서 요구하는 근교 하이킹 트레일은 무엇인지, 지역 현안의 이해도가 높은 이해관계자들은 대부해솔길이 어떠한 이유로 운영 및 관리가 어려운지 등 현실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문제 등을 도식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 코딩을 적용하여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의 개념을 찾고 방향성을 제시한다.

7) 대부해솔길의 매력 요인, 개선사항 등 상세한 항목들을 보고자 심층 인터뷰 언급 빈도를 시각화함.

2. 연구의 흐름

연구의 흐름은 총 세 단계로 진행된다. 용어 및 개념 정의와 국내외 사례분석의 이론적 고찰, 우리의 근교 하이킹 트레일 현황 분석, 대부해솔길을 사례로 한 심층 연구 순이다.



[그림 1-3] 연구의 흐름

제2장 이론 고찰 및 국내외 동향 파악

1절 용어 및 개념 정의

본 장에서는 학계 및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사 용어 간의 혼용 문제를 예방하고자 이론적 고찰에 따라 하이킹과 트레일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다. 용어 정의의 근거로서 레저 분야의 걷기 행위와 관련한 ‘하이킹’과 걷기 길을 의미하는 ‘트레일’의 이론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자연 기반(Nature-based)’의 정의를 위해 ‘자연성’과 ‘자연 기반 원칙 및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본 논문에서 주요 방법론으로 사용될 ‘ROS(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 ‘근거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역시 본 장을 통해 진행하였다.

1. 하이킹 용어 정의

레저 분야의 걷기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등산, 하이킹(hiking), 트레킹(trekking), 백패킹(backpacking) 등 모두 여가 활동에서의 걷기 행위를 의미하고 있지만, 실질적 사용에 있어서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일할 수 없는 뉘앙스의 차이를 각자 가지고 있다.⁸⁾ 이는 각 용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 도보 길의 길이 및 시간, 걷기 행위의 난이도, 걷는 장소의 지리적 특성, 행위의 목적 등에 따라 각기 다르며, 나아가 용어의 기원 또한 행위자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쓰는 ‘등산’의 경우특정 목표인 정상상을 향해 산을 오르는 의미로 ‘마운티어링(mountaineering)’과 유사하지만, 이는 우리의 등산 개념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등반 혹은 기록이 수반되는 스포츠 개념에 가깝다. 다른 의미에 ‘트레킹’ 역시 우리처럼 근교 산을 잠시 오르고 내려오는 의미로 쓰긴 힘들다. 마찬가지로 도구를 사용하며 고도의 기술과 훈련이 필요한 안나푸르나 정상을 오르는 것은 ‘클라이밍(climbing)’으로 부르지만, 비교적 구조물이 잘 갖춰져 있고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은 한국산을 오르는 것을 클라이밍으로

8) 하이킹의 사전적 정의 “a long walk in the country, especially one that you go on for pleasure.”, 트레킹 “the act of making a long journey across difficult country on foot, usually for pleasure”로 둘 다 ‘오래 걷기’, ‘country’의 의미를 지니지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존재함. Collins Online Dictionary, <https://www.collinsdictionary.com/> (검색일:2022.3.4.)

부르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 미국의 경우 1박 이상의 장거리 하이킹을 백패킹으로 지칭하지만, 한국은 배낭에 취사와 야영 도구를 챙겨서 자연에서 하루를 머무는 캠핑행위 역시 백패킹으로 지칭한다⁹⁾. 또한 제주 올레길처럼 비교적 수평적인 길을 도보 여행의 개념으로 걷는 행위에는 하이킹을 쓰지만, 네팔처럼 산악지형이 발달한 지역의 경우 ‘히말라야 트레킹’으로 표현하지 ‘히말라야 하이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¹⁰⁾. 이러한 이슈는 교외 지역 대부분이 산악지형으로 구성된 한국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간혹 걷기 행위 전부를 트레킹으로 부른다거나, 산을 걷는 행위만으로 ‘트레킹’ 혹은 ‘클라이밍’으로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로 발견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연구에서 개념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이유로 여가 활동에서의 걷기 행위를 지칭하는 각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해당 용어의 개념 정리는 국내·외 사전적 정의, 하이킹 문헌, 하이커들의 실질적 쓰임 등을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끝으로 해당 논문의 대상지인 대부 해솔길의 경우처럼 자연에서 여행을 겸한 걷기 행위를 ‘하이킹’으로 정의했다.

9) 이현상, 『인사이드 아웃도어』(리리 퍼블리셔, 2019), pp. 83-96

10) GRAY WHALE DESIGNS, 트레일 용어집, <https://www.gwd.kr/TrailGlossary> (검색일:2022.3.4.)

[표 2-1] 걷기의 용어 및 개념 정리

용어	개념	난이도	유사어	연관 개념
걷기 (walking)	일상, 혹은 관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 짧은 거리를 천천히 걷는 것 *예시 : Walking in the Lake District National Park ¹¹⁾	쉬움	산책, 산보, Stroll	-
하이킹 (hiking)	비교적 자연지역에서 오래 걷기 *keyword : 수평적 걷기, 도보 여행 *예시 : 제주 올레길 하이킹, Pacific Crest Trail Hiking	보통	도보여행 / Hiking Trav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y hiking • Multi day hiking • Thru hiking / Through hiking¹²⁾ • Section hiking • Ultra hiking
트레킹 (trekking)	산과 언덕 등 다양한 지형을 복잡하게 걷는 행위 ¹³⁾ *keyword : 산악 지형, 다양한 경사, country *예시 : 백두대간 트레킹, 히말라야 트레킹, 계곡 트레킹	어려움	등산, 산행	-
백패킹 (backpacking)	야영과 취사 장비, 식량 등을 배낭에 넣고 이를 이상 걷는 행위, 캠핑에서는 배낭에 모든 짐을 넣고 야영하는 것 역시 백패킹으로 정의 *keyword : 배낭, 야영	다양함	종주산행 / 배낭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PL(Backpacking light) • Biwak (비박)
클라이밍 (climbing) & 마운티어링 (mountaineering)	마위산, 빙벽 등 가파른 사면(斜面)을 오르는 행위, 발만으로 오를 수 없는 고산을 손과 도구를 이용하여 정복하는 전문적인 산행 *keyword : 스포츠, 정상 정복 * 예시 : Climbing Mount Everest Peak	매우 어려움	등반, 등정, Alpin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untain climbing • Rock climbing • Ice climbing • Sports climbing / Bould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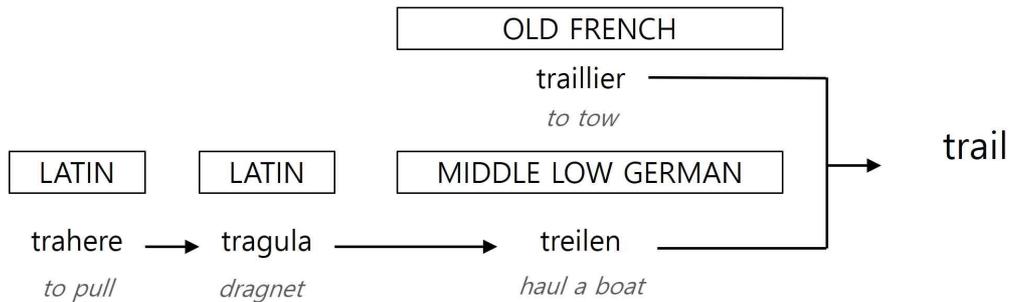
11) Lake District National Park, Visiting, <https://www.lakedistrict.gov.uk/visiting/things-to-do/walking> (검색일:2022.3.4.)

12) Appalachian Trail Conservancy, Discover the Trail, <https://appalachiantrail.org/explore/hike-the-a-t/thru-hiking/faqs/> (검색일:2022.3.4.)

13) 영미권 사전적 의미에서는 ‘Journey’, ‘Adventure’, ‘힘든 여정’ 등 관광 차원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Merriam-Webster, Britannica, Collins Dictionary 등 (검색일:2022.3.4.)

2. 트레일 용어 정의

트레일(Trail)의 어원은 어떠한 물건을 끌어당기는 행위 혹은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 ‘trahere’, ‘tragula’ 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고대 프랑스어 ‘trailler’ 역시 ‘동물의 흔적을 쫓다’의 의미로 비슷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¹⁴⁾.



[그림 2-1] 트레일 어원

출처 : google, trail etymology를 참고하여 재구성

현재 아웃도어 레저에서 의미하는 트레일의 사전적 정의는 미국과 영국 약간의 뉘앙스 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도심이 아닌 자연 기반의 장소를 의미하는 ‘countryside’, ‘wilderness’, ‘forest’ 에서의 걷기 행위를 위한 길로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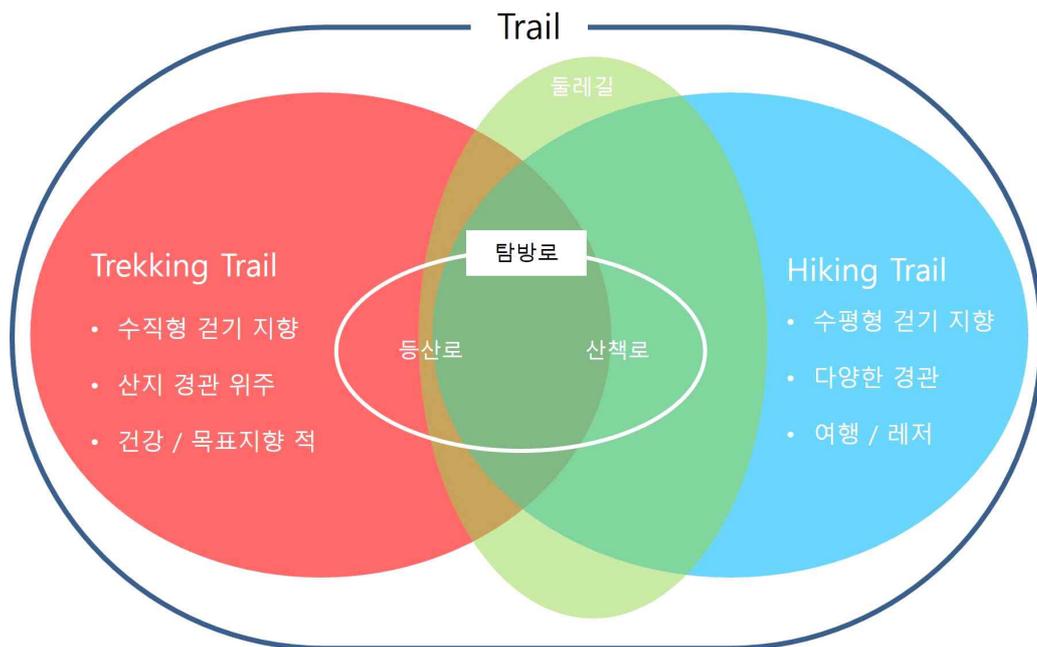
[표 2-2] 트레일 사전적 정의

국가	사전	내용
US	Merriam-Webster diction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to walk or proceed draggingly, heavily, or wearily a track made by passage especially through a wilderness
	Collins diction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trail is a rough path across open country or through forests A trail is a route along a series of paths or roads, often one that has been planned and marked out for a particular purpose
UK	Cambridge diction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line of marks that someone or something leaves behind as they move a path through the countryside
	Oxford diction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path through the countryside a trail through the forest

14) <https://www.etymonline.com/word/trail> (검색일:2022.4.29.)

국가별 걷기 길에 관한 제도적 명칭은 미국의 경우 Trail, 영국은 Trail 혹은 Path, 일본의 경우는 자연보도(自然歩道) 및 Trail, 뉴질랜드는 Walkways를 사용한다. 우리의 경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통해 트레일을 레저에서의 걷기 길 모두를 아우르는 의미보다는 트래킹길의 하위 개념으로 ‘산줄기나 산자락을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 등산의 형태가 아닌, 도보 여행으로써 걷기 문화가 급증한 2010년 전후로부터 관련 분야 보고서 및 연구에서 하이킹 트레일을 다양한 용어로 명명하고 있다. 들레길, 트레킹길, 도보여행길, 걷는 길, 탐방로 등 모두 야외에서의 도보 길을 의미하지만 각기 지향하는 목적과 형태가 다르며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보고서 및 각 지자체 조례 등으로 하이킹 트레일을 ‘걷기 여행길’ 혹은 ‘걷는 길’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진 완벽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트레일이란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레저 형태의 모든 길’로 정의했으며 트레일의 세부 개념을 아래 그림과 같이 개념화하고자 한다.



[그림 2-2] 트레일 유형 개념화 다이어그램

3. 자연성과 자연 기반 디자인

(1) 자연성

국립국어원은 자연(自然)의 사전적 정의를 세 가지로 정의하며 모두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의 전제를 두고 있다. 그 중, 자연환경의 정의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저절로 생겨난 산, 강, 바다, 식물, 동물 따위의 존재. 또는 그것들이 이루는 지리적·지질적 환경¹⁵⁾’이라 볼 수 있다. 나아가 자연성(自然性)은 ‘자연 그대로의 성질’을 뜻하며 영어로 ‘naturalness’로 번역된다¹⁶⁾. naturalness의 사전적 정의는 ‘the quality of being real and not influenced by other people¹⁷⁾’로 이 역시 ‘인위적’ 행위가 배제된 사물 혹은 대상의 상태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언어적으로 자연성(naturalness)은 인위성(artificiality)과 반의어 관계를 이룬다. 하지만 만약 ‘자연’을 ‘인공’의 반의어로 받아들인다면, ‘자연스러움’ 또는 ‘자연적인 정도’는 인위적인 영향 없이, 무언가가 발생하는 수준을 표현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김도은, 손용훈 2021).

반면에 실제 연구에서는 ‘자연’이나 ‘자연환경’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으로 ‘인공’의 개념을 배제하지 않는다(Hartig, 2014). 자연성과 인위성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이며, 그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림 2-3] 자연성 개념

조경학에서는 자연성의 단계를 나누어 생태계의 질이나 인공적으로 가꾼 도시 공원의 자연성 평가로도 활용한다. Barrette *et al.* (2020)의 경우 자연성의 클래스를 Natural(자연 상태의 고목, 종 다양성 등 존재), Semi-natural(자연 상태 숲이

1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자연(自然)의 정의”,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검색일:2022.4.9.)

16) 주로 영국식 영어를 구사하는 국가에서 사용, 미국식 영어는 nature

17) Cambridge dictionary, “Meaning of naturalness in English”,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naturalness> (검색일:2022.4.9.)

존재 하지만 적당히 변경됨), Altered(몇 가지 자연스러움만 존재), Artificial(자연적 동시 발생이 일어날 수 없는 숲) 4가지로 구분하여 생태계 관리의 효율성 검증으로 사용하였다. 도시공원의 자연성 경우, 생태계에 존재하는 자연과는 달리 인간의 주관성이 개입된 ‘인지된 자연성(subjective nature)’으로 존재하며 해당 개념은 공원 관리상의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김도은, 손용훈 2021).

(2) 자연 기반 원칙

인간의 활동으로 야기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연 본연의 형태를 유지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존중하는 개념이 생겨났다. 해당 개념은 레저 활동의 증가로 농어촌지역 및 자연 자원을 훼손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던 아웃도어 레저영역에서도 ‘가치 관광’ 개념으로 차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상위 개념으로 세계은행 보고서(World Bank)에 2008년 처음 소개된 후 세계자연보호연맹(IUCN), 세계자연기금(WWF) 등으로부터 그 개념이 확산 중인 ‘자연 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이 있다. 이는 사회적 과제를 자연 본연의 회복력에 기반하여 해결한다는 생태계 기반 접근방식으로,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야기된 전 지구적인 문제의 해법으로써 생태계를 복원하고 유지하여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한다¹⁸⁾.

자연 기반 해법이 ‘기후변화’와 같이 거대 담론을 말하고 있다면, 세계관광기구(UNWTO)의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지침(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은 관광차원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가지고 ‘관광지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를 유지’, ‘지역 문화 유산과 전통적 가치 보전’, ‘지역주민의 소득을 공정하게 보장’하는 등의 지침을 지닌다¹⁹⁾. 이러한 자연 및 지역 커뮤니티 원형을 유지하려는 대전제는 트레일 계획과 설계, 유지 보수 등 실질적인 영역에서도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영국 National Trails의 자금 지원 주체인 Natural England는 National Trails 실행계획안에 자연 기반 해법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²⁰⁾, 미국의 경우 트레일을 관장하는 주요 기관 및 단체의 원칙이 이를 수용하고 있다.

18) NBS GUIDE LINES, <https://nbsguidelines.info/> (검색일:2022.7.11)

19) UNWTO,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www.unwto.org/sustainable-development> (검색일:2022.7.11)

20) Natural England, Building Partnerships for Nature’s Recovery, Action Plan 2021/22

[표 2-3] 자연 기반 개념이 포함된 각 단체의 트레일 원칙 및 목표

기관 및 단체	트레일 원칙 및 목표
National Parks Service ²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역사, 문화, 경관 및 미적 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 국립공원의 낙후된 지역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탐방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과 설계 요구 - 트레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리 분석은 방문객을 위한 토지의 물리적 용량에 기초 - 야생 윤리, 자연 시스템의 최소한의 변경, 인간의 흔적에 대한 최소화
Department of Agriculture & Forest Service ²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트레일의 필수 요소로 Social, Ecologic, Economic을 고려 - 트레일의 지속 가능성은 트레일이 사회적으로 적절 및 지원되며, 생태학적으로 탄력적이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지점에서 달성 가능함
Appalachian Trail Conservancy ²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동부에서 가장 중요한 녹지 중 하나인 애팔래치아 트레일(AT) 주변의 토지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둠 - 수많은 보존 파트너와 협력하여 영구적인 보호를 위한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 식별을 중요시함 - 토지 보호 및 이러한 토지를 영구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상의 관리 실천을 위한 자금 지원을 지지 - 천연자원 관리를 보조하는 토지 관리자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며, 보호된 해당 지역의 온전한 자연이 미래 세대가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유지함 - 과학을 근거로 관리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며, 보존 접근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파트너와 협력함
American Hiking Society ²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는 환경 및 문화 자원에 대한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고품질의 하이킹 경험을 유지하기 위해 트레일의 설계, 건설 및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최상의 방법(참조 섹션 참조)을 통합해야 함 - ‘흔적 남기지 않기’ 등 교육 프로그램 처럼 탐방객 경험의 질을 보장하며 자연 및 문화 자원을 보호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는 실천을 장려함

자료 : 각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재구성

(3) 자연 기반 트레일 디자인과 전략

자연을 고려하여 트레일을 계획 및 관리하기 위한 표준으로 미국 FTDS(The Federal Trail Data Standards)는 트레일을 5단계 클래스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맞는 디자인 및 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가장 야생의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민감한 지역의 트레일을 Trail Class 1, 우리의 자연 휴양림과 같이 아웃도어 레저

21) <https://www.nps.gov/articles/dsc-trails.htm> (검색일:2022.7.13.)

22) <https://www.fs.usda.gov/managing-land/trails/national-strategy> (검색일:2022.7.13.)

23) <https://appalachiantrail.org/our-work/conservation/> (검색일:2022.7.13.)

24) <https://americanhiking.org/policy-positions/hiking-trails-policy/> (검색일:2022.7.13.)

행위가 빈번한 지역의 트레일을 Trail Class 5로 지정하였다. 해당 지침은 미국 농림부(USFS)와 내무부(NPS), 토지관리국(BLM) 및 어류 및 야생동물 서비스(NWS)가 관리하는 모든 산책로에 적용되며, 주 또는 지방 정부 및 기타 기관도 FTDS를 자신이 관리하는 트레일에 적용할 수 있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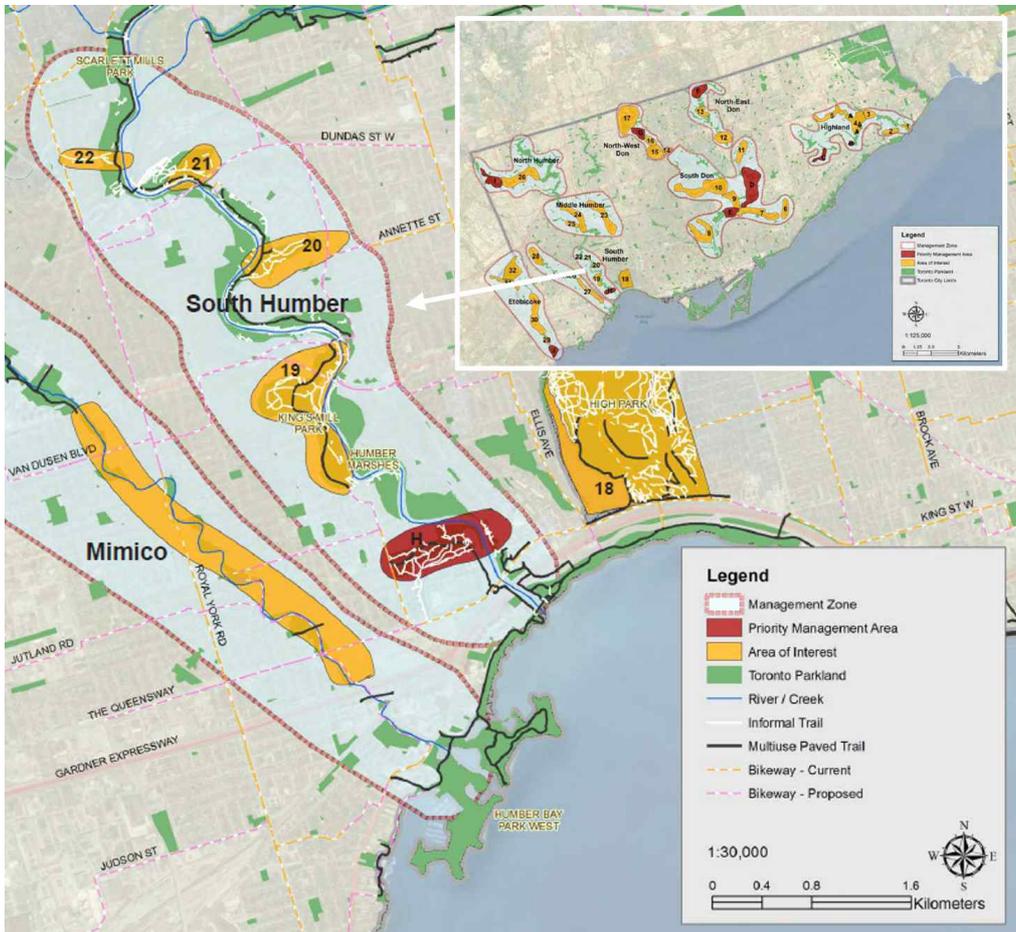
[표 2-4] The Federal Trail Data Standards의 Trail Class

단계	내용	예시
Trail Class 1 (Minimally Developed)	노면 : 자연 상태, 간혹 식별이 어려움 장애물 : 일반적으로 존재 구조물 : 최소 및 존재하지 않음 사인물 : 없음 (필요시 현장의 자연물을 이용) 자연성 : 원형으로 존재	
Trail Class 2 (Moderately Developed)	노면 : 자연 상태, 자연물을 이용한 구성 가능 장애물 : 간헐적으로 존재 구조물 :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설치 사인물 : 제한적으로 설치 (글자 사용 가능) 자연성 : 기본적으로 수정되지 않은 자연	
Trail Class 3 (Developed)	노면 : 분명함, 수입 재료 사용 가능 장애물 : 간헐적으로 존재하지만 길 식별 명확 구조물 : 필요에 따라 설치, 수입 재료 사용 가능 사인물 : 사용자 안심을 위한 정보 및 표지판 등 자연성 : 대체로 수정되지 않은 자연	
Trail Class 4 (Highly Developed)	노면 : 폭이 넓고 방해물 없음, 지반 경화 가능 장애물 : 매우 드물게 존재함 구조물 : 사용자 편의를 위한 구조물 및 건축 가능 사인물 : 흔하게 볼 수 있음 자연성 : 수정 가능	
Trail Class 5 (Fully Developed)	노면 : 아스팔트 등 인공적 노면 장애물 : 존재하지 않음 구조물 : 가능 사인물 : 가능 자연성 : 많이 수정 가능함 (방문자 센터 등과 연결)	

자료 : Trail Fundamentals and Trail Management Objectives(2016) 참고하여 재구성

25) USDA Forest Service National Technology and Development Program, *Trail Fundamentals and Trail Management Objectives*(2016)

한편으로 북미 지역 대표적 대도시인 토론토는 급격히 늘어난 인구와 이들의 레저활동으로 근교 트레일 관리 및 자연 훼손 문제를 겪었고, 그 대안으로 NETS(Natural Environment Trail Strategy)를 수립했다²⁶⁾. NETS는 도심 근교 트레일이 시민을 위한 생태계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만이 아닌, 무분별한 자연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으로 판단하고 이를 통해 지역 자연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도시 기반 시설로의 공원과 산책로', '모두에게 공평한 접근', '환경 보호', '시민 커뮤니티 참여'를 원칙으로 체계적인 트레일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주요 전략은 트레일로 인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9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의 생태계 민감도를 반영한 개선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그림 2-4] 토론토의 NETS(Natural Environment Trail Strategy) 예시
출처 : City of Toronto, Natural Environment Trail Strategy(2013) 참고하여 재구성

26) <https://www.americantrails.org/resources/big-city-trails-planning-for-forest-protection> (검색일:2022.7.14)

4. ROS (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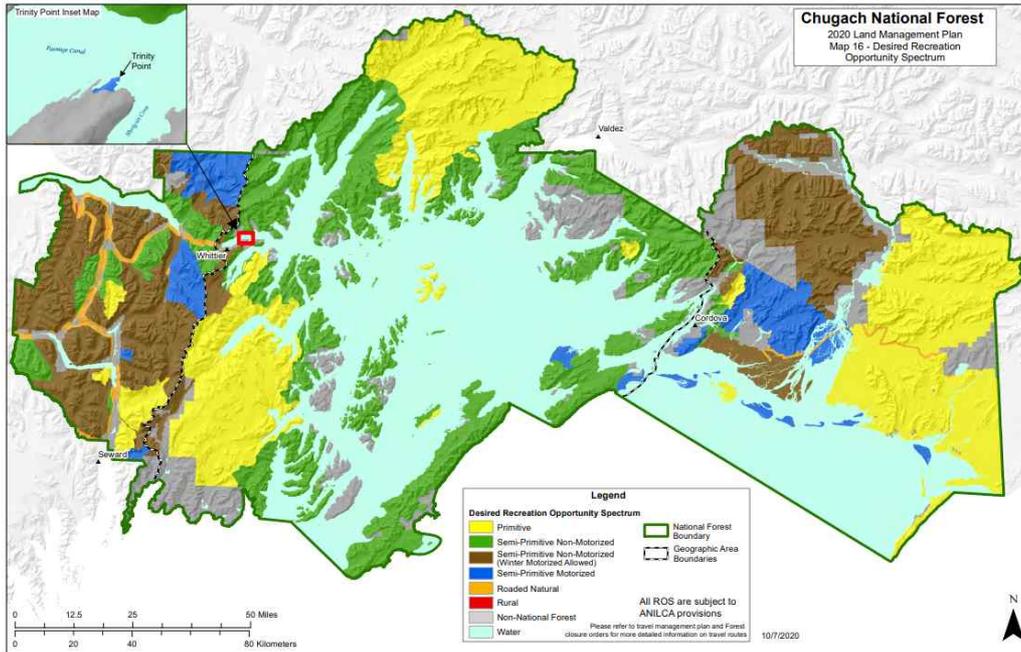
미국산림청(USDA)에 의해 제안된 휴양기회분포모델 ROS(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는 자연 자원의 특성에 따라 이용객의 휴양 활동과 경험이 구분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산림 휴양 자원의 설계와 관리를 위한 개념이다. 자연을 주제로 하는 관광지의 다양한 특성을 이용객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ROS의 6가지 클래스²⁷⁾는 [표 2-5]와 같은 특징이 있으며, 각 단계별로 지역의 자연성 위계, 경관 분석, 가능한 레저 활동 설계 및 관리에 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ROS 개념을 사용하여 심층 연구 대상지의 자연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2-5] ROS 각 단계별 특징

단계	특징				
	접근성	대상지 크기	인공성	방문자 관리	방문자 밀도
Primitive (P)	도로로부터 3마일 이상 떨어진 곳	5000 에이커 이상	자연 상태	없음	매우 낮음 / 트레일 내 6명 이하로 마주침(하루)
Semi-primitive Non-motorized (SPNM)	도로로부터 1/2 마일 이상 떨어진 곳	2,500 에이커 이상	자연 상태 / 보호를 위한 최소 허용	매우 제한적	낮음 / 트레일 내 6-15 하이커 그룹 이하로 마주침(하루)
Semi-primitive Motorized (SPM)	일반적으로 도로로부터 1/2 마일 이상 떨어진 곳	2,500 에이커 이상	최소로 허용	동력이 허용된 장소에서만 최소로 실행	보통 / 주로 6-15 하이커 그룹을 마주침(하루)
Roaded Natural (RN)	도로로부터 1/2 마일 이내	없음	도로 존재 가능 / 야영장, 트레일 기점 등	존재하지만 부수적임	시야와 소리로 사람을 인지함
Rural (R)	도로로부터 1/2 마일 이내 / 농촌과 인접	없음	정비된 도로 / 대중교통 / 농촌마을 등	명확함 / 교육, 법 집행 인력 존재	높음 / 고립의 위험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
Urban (U)	도로로부터 1/2 마일 이내 / 도시와 인접	없음	대량 수송이 가능한 정비된 도로 / 리조트, 스키장 등	높음	항상 인적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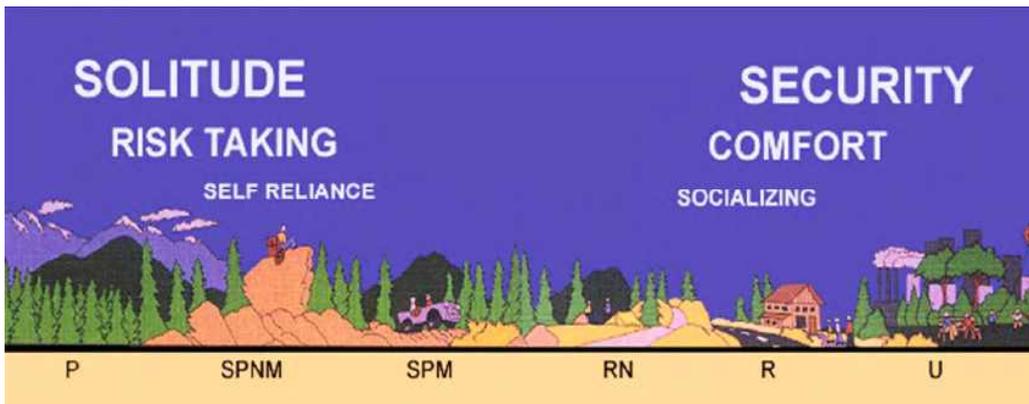
자료 : USDA, National 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 Inventory Mapping Protocol를 참고하여 재구성

27) 특수한 경우 Roaded Modified(RM)를 RN과 R 사이에 추가하여 7단계로 나누기도 함



[그림 2-5] ROS 분석 맵 예시

출처 : USDA, Chugach National Forest 2020 Land Management Plan, Desired 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



[그림 2-6] A graphic showing the spectrum of ROS classes

출처 : USDA Forest Service(2017), National Winter 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 Inventory Mapping Protocol

5. 근거이론

Glaser & Strauss(1976)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이론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거이론을 개발했다²⁸⁾. 특정 현상을 이해하고 그 이론적 틀을 만들기 위해선 현상에 대한 개념화 및 개념들이 상호작용하는 관계성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근거이론은 이러한 현상을 증명하는 주요 틀로써, 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질적연구 방법론을 차용하는 연구 방법론으로 사용되고 발전해 왔다. 따라서 초창기 Glaser & Strauss에 의해 제시된 방법에서 시대와 학자마다 용어 및 수행 절차들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특정 사건이나 현상을 이론화하기 위해 ‘이론적 개념’과 ‘개념 간 관계’를 포착하는 것을 분석의 목적(권향선, 2016)으로 하는 것은 대체로 일치한다.

근거이론은 자료로부터 분석 개념을 만들고, 형성된 개념을 상호 관련시켜 하나의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정리한다(정승혜, 2015). 그 과정에서 인터뷰 내용을 주제별로 묶는 코딩 작업이 수반되며 점진적으로 상위 개념을 도출해 나가는데 이를 ‘개방코딩(opening coding)’으로 지칭한다. 이렇게 도출된 상위 개념들을 사건의 인과관계와 맥락 등을 이해하고자 패러다임 모형을 만드는 ‘축코딩(axial coding)’ 작업을 수행하며,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통해 얻어낸 정보에서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따로 추출하여 정리하는 것은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이라한다²⁹⁾.

본 논문에서는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대부해솔길 걷기 참여자와 지역 이해관계자의 심층 인터뷰를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수행 절차는 인터뷰 전체에 대한 개방코딩을 질적연구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NVivo 12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그 후 개방코딩으로 도출된 핵심 범주들을 축코딩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한다. 끝으로 개방코딩과 축코딩의 내용 중 연구 질문에 가장 근접한 핵심 내용들을 추출해 선택코딩 하였다.

28) Corbin, Strauss, and Strauss, Anselm L.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 Juliet Corbin, Anselm Strauss. (2015). 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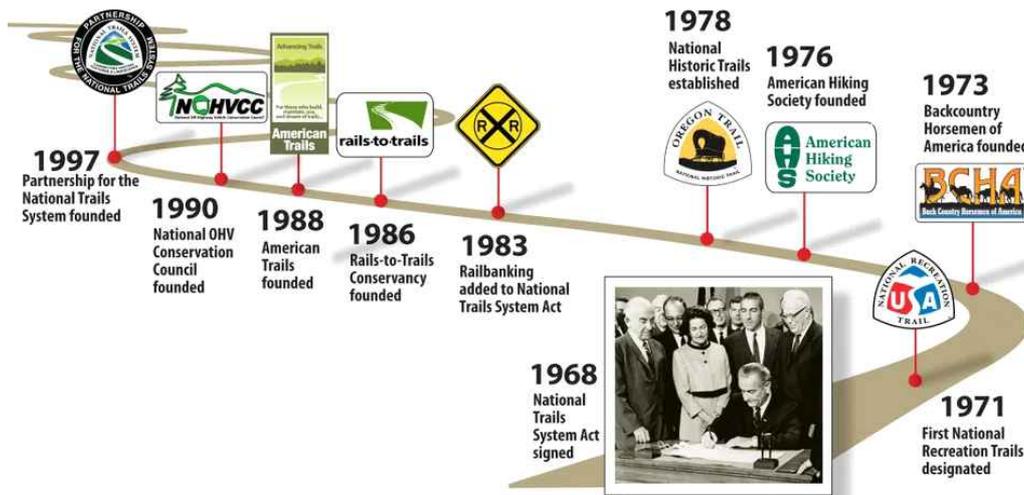
29) 각 과정의 명칭과 수행 절차는 연구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나아가 이는 근거이론을 제안한 이론가들 (Glaser & Strauss, Strauss & Corbin, Charmaz 등)사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2절 해외 하이킹 트레일 고찰

1. 미국의 National Trails System

(1) 역사 및 배경

20세기 이전, 미국 역사에서 트레일은 주로 상업과 이주를 위한 경로로 이용되었다. 20세기로 들어와 시민의 레저 활동이 증가하였고, 점차 경치 좋은 지형에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산책로가 건설되었다. 현재의 레크레이션 하이킹 트레일 개념은 조경계획가이자 Wilderness Society의 공동 창립자인 Benton Mackaye에 의해 1921년 최초로 제시되었다³⁰⁾. 이후 1958년, 국민의 야외 활동 증진을 위해 의회를 통한 레크레이션 자원 검토 위원회(ORRRC : Outdoor Recreation Resources Review Commission)가 설립되며 본격적으로 야외 레크레이션 수요를 전국단위로 조사한다. ORRRC의 조사에서 미국인의 90%가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걷기는 모든 레크레이션 활동 중 2위를 차지했다. 해당 배경을 바탕으로 1968년 Lyndon Johnson 대통령은 National Trails System Act 제정에 서명하며 Appalachian National Scenic Trail과 Pacific Crest National Scenic Trails을 최초의 국가 트레일로 지정한다³¹⁾.



[그림 2-7] National Trail History Timeline

30) Places Journal, An Appalachian Trail: A Project in Regional Planning, https://placesjournal.org/article/an-appalachian-trail-a-project-in-regional-planning/?gclid=Cj0KCQjwxtSSBhDYARIsAEn0thSOia7bEdLy0IPdSux6rw7YPZpLUTxjSuSFmtBDRgk3_RllizBn4UoaAg9tEALw_wcB&cn-reloaded=1 (검색일:2022.4.13.)
 31) <https://www.americantrails.org/resources/50th-anniversary-of-the-national-trails-system-act> (검색일:2022.7.14)

초기에는 국가의 수려한 경관을 경험하게 하는 National Scenic Trails만 존재했다면, 이후 1978년 미국의 역사와 전통을 테마로 한 National Historic Trails 법안이 승인되어 현재는 11개 National Scenic Trails와 19개의 National Historic Trails, 추가적으로 1,371개 National Recreation Trails³²⁾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그림 2-8] National Trails System 50th Anniversary Map. NPS

출처 : National Park Service

(2) 유형 및 체계

National Trails System Act에 근거하여 4가지의 테마로 구성된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National Scenic Trails,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National Historic Trails, 도시지역과 그 주변의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권장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하는 National Recreation Trails, 그리고 해당 트레일의 하위 항목으로 수생태계 보호 및 체험을 위한 National Water Trails, 마지막으로 각 트레일에 대한 연계와 접근성을 위한 Connecting or side trails 로 구성되어 있다.³³⁾

32) <https://www.nrtdatabase.org/trailList.php?groupBy=year> (검색일:2022.7.16.)

33) National Trails System Act, SEC. 3. [16USC1242] (a) The national system of trails shall be composed of the following

[표 2-6] Theme of National Trails system

테마	내용	
National Scenic Trails	<p>NST는 중요한 경치, 역사적, 자연적 또는 문화적 특성의 레크리에이션, 보존 및 향유를 제공한다.</p> <p>트레일 내에서 동력 차량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금지됨. 예외적으로 Continental Divide National Scenic Trail의 다음 상황은 제외됨.</p> <p>(1) 비상시 접근</p> <p>(2) 인접 토지 소유자를 위한 합리적인 접근(산림의 권리 포함)</p> <p>(3) 관련 부처의 장이 제정한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p>	
National Historic Trails	<p>국가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 여행 경로.</p> <p>NHT로 지정하려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p> <p>(1) 사용 및 위치의 결과로서 그 경로가 역사적 중요성을 문서화해야 한다.</p> <p>(2) 미국 역사에 관한 자국적 중요성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p> <p>(3) 산책로는 공공 오락적 이용이나 역사적 흥미에 대한 상당한 잠재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탐방로는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육지와 수역 구간, 도로와 평행하게 표시된 고속도로, 역사적 경로를 따라 함께 체인 또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부지를 포함할 수 있다.</p>	
National Recreation Trails	<p>산림청은 국립산림 내에서 국립휴양로를 관리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비연방산림로의 조정 등 다른 모든 토지에 대한 NRT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NRT는 도시 지역에 있거나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존 도로로, 연방 정부에 의해 트레일 시스템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지역, 주 및 국가 수준에서 공공 및 민간 기관이 관리한다. 장애인, 등산객, 자전거 선수, 크로스컨트리 스키어, 승마객에게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는 NRT가 있다.</p>	
	National Water Trails	<p>NWT 은 NRT 의 하위 개념으로, 미국의 강과 해안선 및 수로를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설립됨. 해안선과 수로에서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p>
Connecting and Side Trails	<p>해당 산책로는 국가에서 지정한 산책로 또는 그러한 산책로 사이의 연결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제공한다. 그들은 농림부 장관이 국유림지에 위치한 산책로를 관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내무장관이 관리한다.</p>	

자료 : americantrails.org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재구성³⁴⁾

34)History of the National Trails System, <https://www.americantrails.org/national-trails-system/history> (검색일:2022.3.6.)

NTS는 접근권한, 목적 등 6개의 유형으로 트레일을 분류하고 있다. 크게 3개 범주로, 첫째는 트레일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나눈 Foot Trail, Bikeways, Multi-Use Trail, 둘째는 교육 및 관광의 목적과 보행 약자를 배려하여 설계한 Boardwalks, Interpretive/Nature Trails, 마지막으로 뚜렷한 길은 없지만, 국립공원 일정 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하이킹을 허용하는 Hiking Without Trails다.

[표 2-7] 미국의 트레일 체계

구분		내용
Accessible	Foot Trails	보행자만 진입 가능
	Bikeways	자전거 이용을 허용한 트레일로 보행자와 자전거 함께 이용 가능
	Multi-Use Trails	보행자, 자전거 및 승마 이용자들이 함께 공유
Universal	Boardwal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물이나 습지를 가로지하는 곳에 설치. • 휠체어 접근 가능. • 주로 관광지 및 주차장 근처에 위치함.
	Interpretive / Nature Trai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레일을 통해 자연, 동식물, 역사 등 교육적 경험 제공. • 트레일의 길이는 비교적 짧고 휠체어 접근이 가능 함.
Wildness	Hiking Without Trai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 내 지정된 경로가 없는 Off-Trail • 흔적 남기지 않기 (Leave No Trace) 원칙을 준수해야 함.

자료 : National Park Service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재구성³⁵⁾

(3) 운영 관리

토지관리국(BLM), 산림청(USFS), 국립공원관리청(NPS) 세 개의 연방 기관은 행정 및 관리 조치를 통해 NTS의 구현에 관한 책임을 함께 공유한다. 필요에 의해 다양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the National Trails System : PNTS)을 구성하고 트레일을 협력하여 관리하도록 권장한다³⁶⁾. PNTS는 Federal agency partners, Trail Members, Affiliate members로 나뉘며, 앞서 언급한 세 개 기관 외에도 어류 및 야생동물 서비스(FWS),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FLH) 등과 같은 연방 기관과 American Trails, American Hiking Society와 같은 비정부 기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다³⁷⁾. 각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트레일 마다 다를 수 있다.

35) National Trails System, About the System, <https://www.nps.gov/subjects/nationaltrailssystem/what-we-do.htm>(검색일:2022.02.05)

36) National Park Service (2019) Reference Manual 45, National Trails System, Chapters 1 through 10 & Appendices

37) <https://pnts.org/new/about-us/> (검색일:2022.7.20)

2. 영국의 National Trails

(1) 역사 및 배경

영국의 공공 도보 ‘Public Footpath’의 기원은 고대에서부터 로마의 도로와 선로, 앵글로색슨족의 전쟁 루트 등이 그 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³⁸⁾ 이후 중세와 근대까지는 주로 마을간 연결, 일터와 시장, 교회, 학교 등을 가기 위해 땅을 가로질러 걷는 이들을 위한 길로 사용되었다.³⁹⁾ 농업과 목축업 등으로 넓은 범위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은 통행권이 없는 시민들에게 자신의 토지를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은 국립공원 및 농촌지역 접근에 관한 법률(National Parks and Access to the Countryside Act 1949), 농촌과 통행권에 관한 법률(Countryside and Rights of Way Act 2000) 제정에 발판이 되었으며, 해당 법안을 통해 사유지를 지나는 시민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기 시작했다. 현재의 Public Footpath는 기존 기능 외에 산책, 휴양, 관광 등 레크레이션 기능 및 농촌, 자연과 가까워 지는 경험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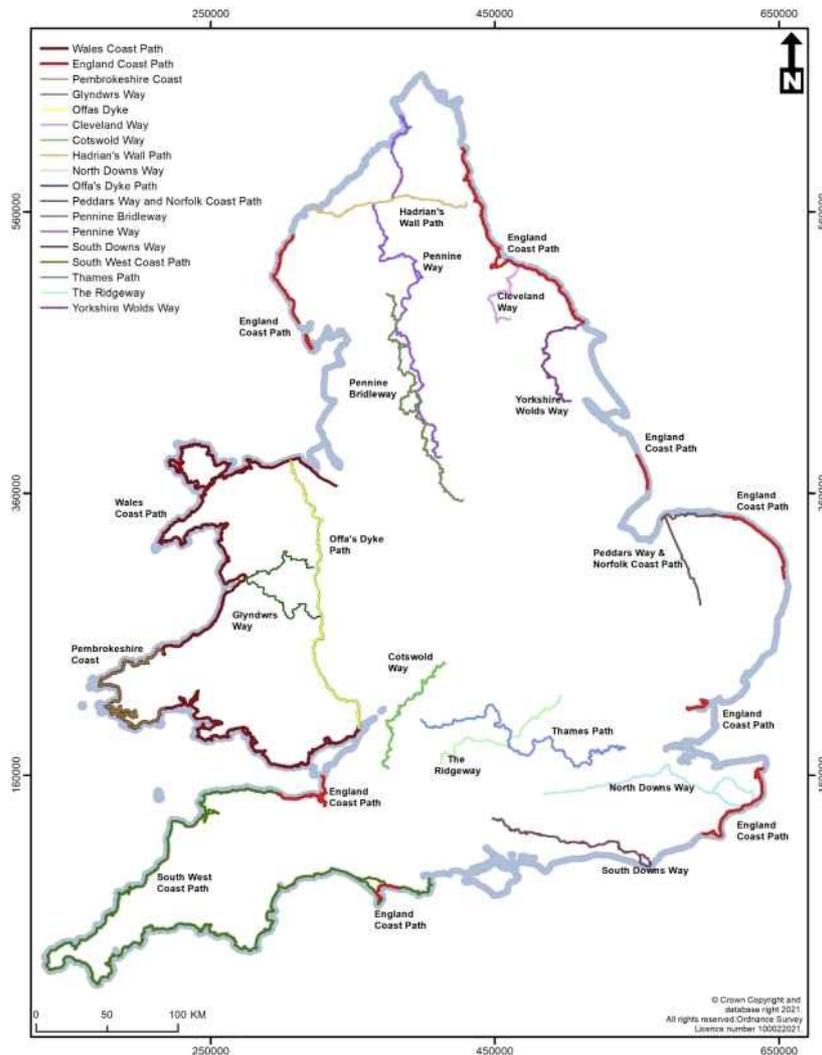


[그림 2-9] 영국의 Public Footpath

38) Malim T et al 1997 ‘New Evidence on the Cambridgeshire Dykes and Worsted Street Roman Road’ .
Proceedings of the Cambridge Antiquarian Society Vol. 85, pp. 27 - 122.

39) <https://cambswalks.blogspot.com/2014/04/history-of-footpaths.html>

이후 20세기 중반, 영국의 아름다운 지역을 걷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자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는 국립공원 및 국가 경관 지역(AONBs : Areas of Outstanding National Beauty)을 지정하고 이를 도보 길로 연결하는 국가 규모의 트레일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그 첫 번째로 Pennine Way National Trail이 1965년에 개통되었으며, 이후 사이클링 및 승마가 가능한 16개 약 2,500마일(4,000km)의 국가 트레일이 지정되었다. 현재는 기존 국가 트레일에 영국 해안을 한 바퀴 도는 National Coast Path를 추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림 2-10] 영국의 National Trails & Coast Path

출처 : Events on National Trails Guidance for Organisers, (Ver.07/07/2021)

(2) 유형 및 체계

영국 트레일 체계는 트레일 내 이용의 행위 및 수단을 기준으로 [표 2-9]와 같이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Countryside and Rights of Way Act 2000 는 Byways Open의 모든 도로를 제한 도로로 두고있으며,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의 경우처럼 트레일을 각 테마별로 분류하지는 않으며, 대략적으로 기존 내륙에 조성된 National Trails과 최근 해안 둘레길 구축 계획으로 조성된 National Coast Path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8] 영국의 트레일 체계

구분	허용 범위	세부 내용
Public footpa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견 산책 가능 • 유모차, 휠체어 출입이 가능
Public bridlew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보행자와 승마인에게 양보해야 함
Restricted byw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와 오토바이 제외 • 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에 근거
Byways Open (BO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행위자에게 개방 • 일반적으로 'Byways' 로 표시

자료 : Technical Standard - Public rights of way (2015) 를 참고하여 재구성



[그림 2-11] 영국의 Public Footpath와 Public bridleway

(3) 운영 관리

내셔널 트레일의 품질 기준은 체험, 개선, 참여, 경제 네 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트레일과 경관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다양한 걷기 및 라이딩 경험하기, 둘째로 트레일 내 경관과 자연 및 역사적 특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셋째는 트레일을 가꾸는 지역 커뮤니티를 구축, 마지막으로 트레일을 통해 지역 경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목표를 둔다⁴⁰⁾.

내셔널 트레일은 Natural England의 지원을 받은 지역 트레일 파트너십에 의해 관리 된다⁴¹⁾. 파트너십의 대표자는 Natural England로부터 자금 지원 및 트레일이 표준을 달성하기 위한 진행 상황을 Natural England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Natural England 역시 트레일 유지 관리 비용을 ‘Connecting People with Nature’ 항목으로 설정하여 공개하고 있다⁴²⁾.

Connecting People with Nature

Work area	Revenue (£'m)	Capital (£'m)	FTEs
Tackling barriers to nature	0.5		13
Access to the outdoors (incl. Green Infrastructure)	6.0	6.7	76
People and Nature survey	0.8		9
Engagement and volunteering reform	1.6	0.1	31
Health and wellbeing	1.5	0.1	41
CPWN programme governance	0.3		5
Total	10.6	6.9	175

[그림 2-12] Natural England의 Connecting People with Nature 예산 계획
출처 : Natural England action plan 2022 to 2023

40) National Trails: management standards, 20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ational-trails-management-standards/national-trails-management-standards>

41) Local Nature Partnerships in England, <https://ecosystemsknowledge.net/resources/national-initiatives/LNP>

4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atural-england-action-plan-2022-to-2023/natural-england-action-plan-2022-to-2023-2>

3. 일본의 장거리 자연보도

(1) 역사 및 배경

일본은 60년대 이후 산업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에 일본 환경성은 1969년 장거리 자연 보도에 대한 구상을 시작하고 영국의 Public Path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1970년 도카이 자연 보도의 정비를 시작으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극복을 위해 설립을 추진한 도호쿠 태평양 연안 자연보도 까지 현재 총 10개의 루트, 약 28,000km 길이의 국가 트레일이 조성되었다.

일본의 장거리 자연보도는 ‘국토의 재인식’ 과 ‘자연보호 의식 향상’ 을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역의 ‘적극적 이용’ 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확실한 보호’ 를 원칙으로 하며, 도보 여행자들에게 계절별 자연과 역사문화를 몸소 경험하게 해준다.



[그림 2-13] 일본 장거리 자연보도 현황

출처 : 일본 환경성 및 MCHINKU TRAIL CLUB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⁴³⁾

43) 총 트레일 길이 및 코스 수의 수는 계속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며, 정식 개통 시점은 자료에 따라 상이함.

(2) 유형 및 체계

일본 장거리 자연보도는 트레일 주요 테마가 되는 ‘본선’ 과 그 주변부를 연결하는 ‘지선’ 으로 위계를 나누고 있다⁴⁴⁾. 가장 최근에 개통한 도호쿠 태평양 연안 자연보도의 경우 아오모리현에서 후쿠시마현까지 트레일 루트를 본선으로, 그 주변에 존재하는 관광 인프라 등과 연결되는 루트를 지선으로 구분하였다⁴⁵⁾.

[표 2-9] 일본의 트레일 체계

구분	성격 및 역할	길이	설정시 주의점
본선	하루 코스 -이용의 기본적인 단위로 하루 안에 왕래할 수 있는 코스 -여러 개의 테마를 포함	-표준 5~10km 최장 15km	-유람선 등 즐길 수 있는 코스를 포함해 다양한 매력을 가진 코스로 여러 개의 테마를 설치
	연속 코스 -보도로서의 적합성과 매력이 부족한 도로로, 정비를 생각하지 않는 코스 -걸기에 적합함과 동시에 버스, 철도, 자가용 등의 대체 교통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길	-	-너무 긴 연속 코스는 설정하지 않음
지선	접근용 이 보도 -간선의 이용 효율을 올리기 위해, 자연보도와 이용자의 출발점인 공공 운송기관의 역(station) 등을 엮어주는 접근이 용이한 보도	-총 보행거리의 반 정도 -총 1~2km	-짧은 시간 걷는 거리로 쾌적한 보도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음
	우수경관 보도 -자연 연구로 등과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탐방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해 지정한 보도로서,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안내판과 이용자센터 등의 시설이 정비된 도로	-총 보행거리의 반 정도 -출발, 도착지로 이용거점일 경우 표준 3~8km, 최장 12km 정도	-경치가 좋은 보도가 될 수 있는 기존 보도가 간선과 교차하는 경우 또는 주변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좋음
	자원연계 보도 -간선 가까운 곳에 매력적인 자연, 인문적 자원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보도 -하루 코스와 같이 회유 동선을 형성	-총 보행거리의 반 정도	-자원연계 보도가 되는 기존 보도가 간선과 교차하는 경우, 또는 주변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좋음 -설명 표지판 설치만으로도 충분함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국가등산로 노선지정기준 및 관리방안 연구(2014)를 토대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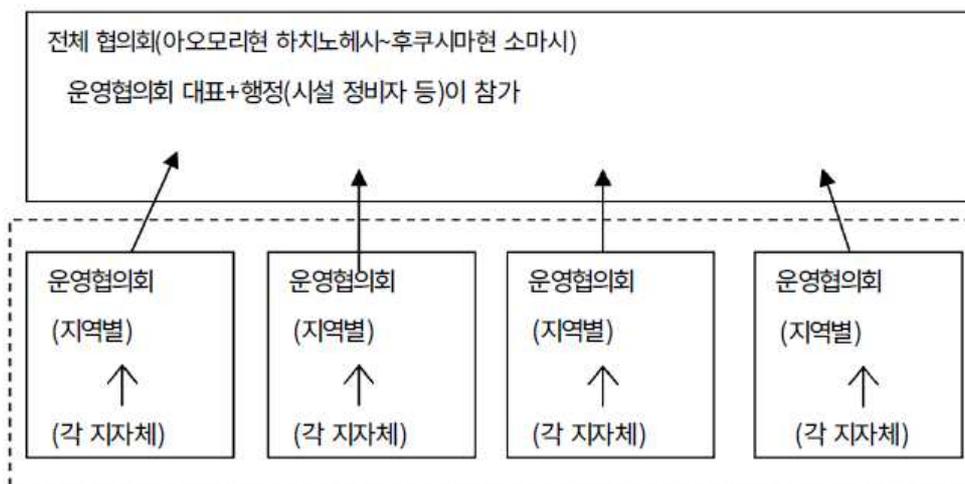
<https://www.env.go.jp/nature/nationalparks/pick-up/long-trail/> (검색일:2022.4.6)

44) 국립산림과학원은 국가등산로 노선지정기준 및 관리방안 연구(2014)에서 일본의 장거리 자연도보 유형 및 등급을 간선과 지선으로 번역하였지만, 이는 본선과 지선의 개념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 됨.

45) 환경성 자연환경국(環境省 自然環境局), 도호쿠 태평양 연안 자연보도 기본계획(東北太平洋岸自然歩道 基本計画), 2012

(3) 운영 관리

일본의 장거리 자연보도의 운영관리는 현이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 현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사례도 있다.⁴⁶⁾ 또한 국립공원 내 노선은 2005년 이후 환경성이 정비하며, 가장 최근에 신설된 도호쿠 태평양 연안 자연보도의 경우 지역 관계자가 참가하는 협의회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그림 2-14] 도호쿠 태평양 연안 자연보도 운영 체제
출처 : 도호쿠 태평양 연안 자연보도 기본계획(2014)를 토대로 재구성

장거리 자연보도의 활성화를 위해 각 관리주체는 개인 및 민간단체 또는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인 및 민간단체와는 협력을 통해 해당 장거리 자연보도의 가이드북 등을 제작하거나, 지역 걷기 모임 등의 활동을 한다.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교통수단요금 할인, 숙박시설 정보제공, 지역 이벤트 개최 등의 활동을 주로 한다⁴⁷⁾.

도호쿠 태평양 연안 자연보도의 경우 해당 자연도보를 촉진하기 위해 노선 정보 제공 등의 홍보, 이벤트 기획, 트레일 센터에서 안내 및 청소 등의 관리 운영을 원칙을 두었다. 또한 이용에 필요한 시설정비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46) 국립산림과학원, 국가등산로 노선 지정 기준 및 관리 방안 연구, 2014

47) 같은 보고서

[표 2-10] 도호쿠 태평양 연안 자연보도 시설정비 항목

항목	내용
트레일	- 기존 길을 최대한 활용 - 신규의 경우는 최소한의 규모로(국립공원 내 환경성, 그 외 각 지자체가 정비) 조성 - 관리는 트레일의 설치 주체가 담당
안내판	- 기존 안내판을 최대한 활용하며 환경성이 정비함 - 종합안내판(광연 노선지도), 이정표(방향 및 분기점 정보 등), 자원안내 및 해설 사인(주변 명승지 등), 주의 및 규제 사인 등
트레일센터	- 이용자를 위한 휴식, 정보제공 등으로 환경성이 서비스 제공 - 주차장, 화장실 등 필요한 기능을 갖추 - 각 현 1~2곳 정도에 배치

자료 : 도호쿠 태평양 연안 자연보도 기본계획(2012)를 토대로 재구성

(4) 노선설정 원칙

도호쿠 태평양 연안 자연보도의 노선설정은 트레일이 통과하는 지자체와의 협의 및 현지 조사 등을 거치고 환경성이 최종 설정한다.

[표 2-11] 장거리 자연보도 노선설정 원칙

구분	내용
노선설정	- 기존의 길을 최대한 활용 - 흙 등 포장되지 않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길을 우선시 - 각 지자체가 추구하는 계획과 의견을 협치해야 함 - 노선 검토 및 결정은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시·정·촌 단위 등 어느 정도 크기를 확보한 길이로 설정 - 설정한 노선은 환경성의 보도 발표 및 지자체 홍보 등에 의해 공표
통과지점설정	- 뛰어난 자연 경관을 가지는 장소 (명승지 등) -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 (사적 등) - 쓰나미의 흔적 등 자연의 위협을 실감할 수 있는 장소 (지진 재해의 흔적 등)
기타 유의 사항	* 안정성 -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도로의 통행량, 도폭 등 안정성을 배려 - 암반 등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난이도의 노선은 설정하지 않음 - 쓰나미 발생시 피난로로 이용되는 구간 등은 지역의 방재 계획 등과 협의 * 편의성 : 대중교통 및 숙박시설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함 * 기타 : - 기존의 길 외에 해안이나 모래사장 등 도보가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 트레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활용함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스스로 판단하면서 걷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구간이나 배로 통과가 가능한 구간도 포함) - 지역의 자원을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테마를 고려함

자료 : 도호쿠 태평양 연안 자연보도 기본계획(2012)를 토대로 재구성

3절 국내 트레일 배경 및 현황

1. 역사 및 배경

한국 걷기 레저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 시절 서구의 알파니즘(Alpinism)을 받아들인 일본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⁴⁸⁾ 초기에는 자원관리 및 학술적 목적으로 일본인들로부터 전파되었고, 점차 ‘백령회’, ‘조선산악회’ 등 여가를 목적으로 한 단체들이 생겨나며 대중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광복 후 ‘백령회’를 중심으로 산악운동을 통한 민족정신을 고양하고자 한국산악회가 설립되었다. 1950년대 대학을 중심으로 산악부가 생겨났고⁴⁹⁾ 방학을 이용한 장거리 능선 산행이 현재의 종주 문화로 발전되었다. 이후 1970년대 전국적으로 등산 인구 200만, 700여개의 산악회로 성장하였으며 1977년 한국 최초 에베레스트 원정대가 파견되었다. 증가하는 등산 인구로 인해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며 1978년 자연보호헌장 선포되며 기존 산에서 행하던 취사 및 야영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해졌다. 1980년 이후 경제 성장의 여파로 여가문화가 더욱 확산되었고, 대학 및 친목 산악회 등 등산 문화의 붐이 일어났으며,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로 해외원정 산행의 인구도 늘어났다. 1990년대 IMF 사태는 기존 명산을 위주로 인파가 몰리는 등산 문화에서 도심 근교로 등산을 오는 인구가 급증했다. 이 당시 백두대간 종주 산행이 유행하였으며 ‘우리산맥 마루금 되찾기 운동’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발판이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인터넷의 보급으로 온라인 산악 동호회가 더욱 활성화되었고 소득증가 주5일제 시행으로 등산뿐만이 아닌 다양한 옥외 여가 활동이 증가했다. 또한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이 해외 트레일을 경험한 하이커들을 통해 등산 형태의 걷기가 아닌, 하이킹과 같은 ‘선형적 걷기’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 이러한 요구는 2010년 이후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해파랑길 등을 통해 새로운 걷기 문화로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지금과 같은 하이킹 트레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48) 박경이, “4. 등산.” 산림문화전집 16 (2021): 264-294. Web.

49) 이현상, 『인사이드 아웃도어』 (리리 퍼블리셔, 2019)

2. 유형 및 체계

등산로가 아닌, 하이킹 트레일 체계를 제도적으로 끌어온 것은 2007년 산림청의 산림문화체험숲길을 시작으로 환경부의 ‘생태탐방로’, 국토해양부의 ‘누리길’ 등 부처별 걷기 여행길에 관한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⁵⁰⁾가 시작이라 볼 수 있다⁵¹⁾. 법적 차원에서 트레일을 체계화 시킨 것은 [표2-8] 와 같이 ‘산림법’의 경우가 유일하다. 해당 분류 체계는 산림청의 주도하에 트레일을 산길, 혹은 숲길 위주로 체계화했지만, 바다 주위를 걷는 길이나 농어촌 마을을 걷는 길, 강변을 따라 걷는 길 등 산림을 벗어난 형태의 길들을 포괄하는 트레일 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표 2-12] 산림청의 숲길의 유형

구분	내용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등산)을 하는 길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트레킹)을 하는 길
	* 둘레길 :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 트레일 : 산줄기나 산자락을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산림레포츠길	산림에서 하는 레저·스포츠 활동(산악레저스포츠)을 하는 길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탐방)을 하는 길
휴양·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자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숲길의 종류를 토대로 재구성

한편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트레일 유형분류는 [표2-9]와 같이 산림뿐만이 아닌, 해안 및 각종 테마별 트레일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대상 범위를 국립 공원에 한정 지어 개념화했기에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근교 하이킹 트레일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50)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춘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각 지자체 별로 지역에 특정 트레일 혹은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트레일을 아우르는 걷기 길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지만 모두가 해당하는 것은 아님.

51) 국립산림과학원, 국가등산로 노선 지정 기준 및 관리 방안 연구,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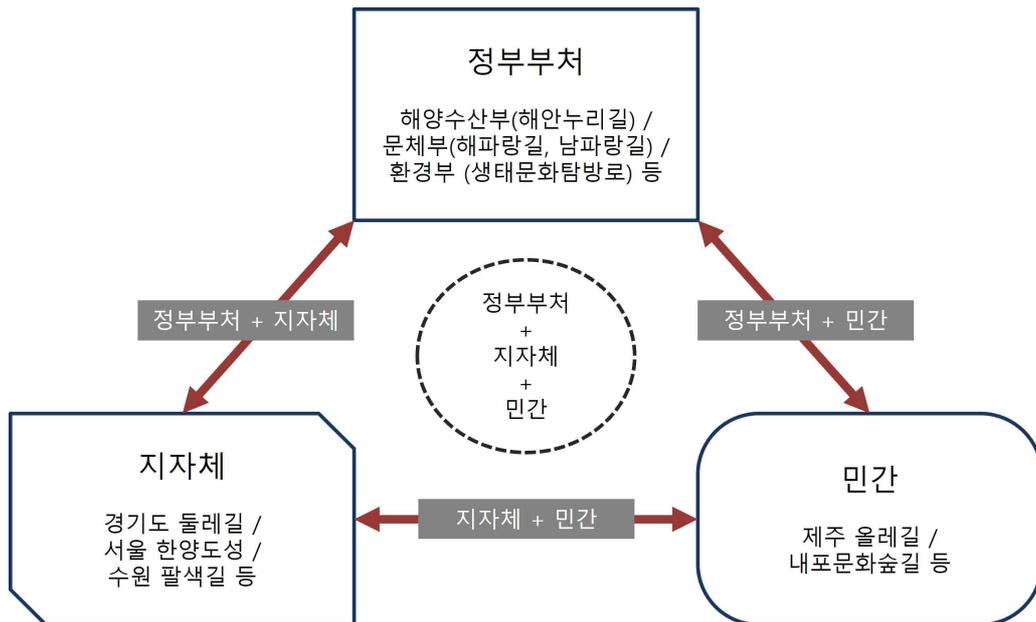
[표 2-13]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트레일 유형

구분	목적	유형	내용	사례
일 반 탐 방 로	자연 친화적 국립 공원의 이용	수직 탐방로	국립공원 내 수직형 탐방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 - 백운대 구간 탐방로 남설악산 탐방지원센터 - 대청봉구간 탐방로
		종주 탐방로	국립공원 능선부를 종주하는 탐방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리산 성삼재 - 천왕봉구간 탐방로 설악산 회운각 대피소 - 마등령구간 탐방로
		저지대 탐방로	국립공원 내 저지대 수평형 탐방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산 둘레길 오대산 둘레길
주 제 탐 방 로	국립 공원 탐방을 통한 자연 체험	자연 관찰로	국립공원의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관찰과 학습을 위해 계획 조성된 탐방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국립공원 자연관찰로
		기타 주제 탐방로	국립공원 진입부에서 사찰 또는 기타 문화재로 접근하거나 문화 체험과 학습을 할 수 있는 탐방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리산 범주사, 경주 석굴암 등 사찰 및 문화재 진입부 탐방로 (문화 체험 탐방로)
			국립공원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탐방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안해변길, 한려해상 바다백리길 (경관 감상 탐방로)
			교통약자(장애우, 노약자 등)를 배려하여 편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계획 조성된 탐방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장애 탐방로
		기타 공원의 특성에 따라 주제를 부여하여 계획 조성된 탐방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야산 소리길 	

자료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 탐방로 매뉴얼(2013) 을 토대로 재구성

3. 운영 주체

우리나라의 하이킹 트레일 운영 주체는 ‘시·군 등 지자체 및 광역단체’,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 부처’,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같은 ‘민간 영역’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각 기관과 단체가 협력하여 운영한다. 그 예로 해파랑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트레일이 지나는 각 시·군, 그리고 (사)한국의 길과 문화가 서로 협력하고 있다. 등산로 위주로 발전했던 초기에는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자체 등이 각자의 관리영역에서 독자적으로 트레일을 기획하고 운영했다면, 점차 광역 범위의 장거리 트레일이 생겨나며 기관과의 협력이 늘어났고, 나아가 프로그램 기획 및 트레일 유지 보수 등을 위임하는 식으로 변화하였다. 이후 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존 관 주도의 정형화된 트레일 기획과 디자인을 식상하게 인식한 하이커들의 요구,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제주 올레길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내포문화숲길, 강화나들길과 같이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시민단체 주도의 트레일이 생겨났다. 현재는 기존 정부 부처와 지자체 트레일이 서로 협력했던 것처럼, 관 주도로 기획한 트레일을 민간에게 관리 운영을 위임하거나 서로 협력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림 2-15] 주체별 트레일 개념도

4. 현황

(1) 지역별 현황

한국관광공사는 2017년 전국 걷기 여행길 현황 조사에서 한국에 총 506길, 1,579코스, 약 16,420km의 트레일이 존재한다고 보았다⁵²⁾. 2022년 현재 우리나라에 운영되고 있는 트레일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 자료⁵³⁾를 이용, 그 현황을 조사하여 2017년과 비교하고자 했다. 총 20,340개 코스 중 이름이 중복되는 길을 단일 트레일로 판단하여 그 수를 측정한 후, 각 광역시도별로 분류하였다.

[표 2-14] 전국 지역별 하이킹 트레일 현황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2017	60	58	44	69	13	14	12	19	103	3	19	7	77	31	9	42	20	506
2022	49	119	50	65	21	22	17	18	77	7	12	29	47	39	11	48	29	653

전체 트레일의 수는 2017년 506개에서 2022년 653개로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강원과 서울,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트레일의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신뢰할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하였는데, 예를 들어 2022년 자료에서 인천 29개 길의 경우 실제로는 29개가 각각의 트레일 브랜드가 아닌, 코스의 테마 명칭이 개별 트레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레일 수가 아닌 전체 코스의 수를 2017년과 2022년으로 비교하자면 [표 2-15]과 같다.

[표 2-15] 전국 지역별 하이킹 트레일 코스 현황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2017	212	186	107	148	34	37	41	50	124	11	64	41	212	95	64	90	63	1579
2022	89	182	63	100	31	49	34	48	135	7	50	29	79	58	56	59	46	1115

그 결과 전체 트레일과 반대로, 전체 코스 숫자는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는 지난 기간 우후죽순 생겨나 관리가 되지 않았던 길들을 각 지자체가 정리하고 통합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52) 한국관광공사(2017), 걷기여행길 실태조사 및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연구

53) 공공데이터포털, 전국길관광정보표준데이터, <https://www.data.go.kr/data/15017321/standard.do> (검색일:2022.2.22)

(2) 노선 길이별 트레일 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전국 트레일의 노선 길이별 위계를 나누고 각 노선 길이별 수를 파악했다⁵⁴⁾. 해당 위계를 기준으로 2022년 자료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장거리 트레일은 줄어들었으며, 초단거리 트레일이 증가했음을 확인했다⁵⁵⁾.

[표 2-16] 노선 길이별 하이킹 트레일 현황

분류	노선길이	해당 개수	
		2014년	2022년
장거리	300 이상	13	3
	150 ~ 300 미만	13	10
중장거리	100 ~ 150 미만	10	12
중거리	50 ~ 100 미만	45	38
단거리	15 ~ 50 미만	126	143
초단거리	15 미만	332	447

(3) 각 부처별 현황

부처별로 추진 중인 하이킹 트레일은 [표 2-12]와 같다. 각 부처별로 트레일 명칭, 추구하는 테마 등은 다르지만, 길을 통해 지역과 자연을 경험하며 국토를 잇는다는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실행 방식으로는 해당 부처가 트레일을 계획하고 운영 관리를 지자체 혹은 민간에 위임하거나, 지자체가 이미 구축해 놓은 지역 트레일이 해당 부처가 추구하는 테마에 일치하는 경우 통합하여 명칭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54) 문화체육관광부(2014), 걷기여행길 통합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55) 단, 이 역시 데이터에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서울시 서초구에 조성된 짧은 도심형 길 ‘방배사이길’이 350km 장거리 트레일로 입력되어 있었다. 또한 남파랑길의 경우 실제로 1,470km의 초장거리 트레일인 반면, 해당 데이터에는 120.1km 만 반영되어있는 오류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해당 데이터를 이용한 거리별 트레일 집계는 완벽하지 않으며, 대략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다.

[표 2-17] 각 부처별 하이킹 트레일 현황

부처	명칭 및 브랜드		노선 대상	가이드라인 수준 및 체계	운영주체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걷기 여행길	해파랑길, 남파랑길 등	주요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선형구간	탐방로 계획 방향, 노선 설계 및 탐방로 조성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 설정	지역 민간단체 및 지자체
산림청	숲길	금강소나무 숲길 등	산림청 관할 숲길 중심	숲길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설계 원칙 및 세부 공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사)숲길, 국유림관리소 등
환경부 / 국립공원관리공단	생태문화탐방로	운곡습지 및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등	숲, 강, 해안 주변의 주요 생태문화자원 연결	조성 방향 및 계획 요소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지자체
	둘레길	북한산 둘레길 등	국립공원 경계 및 내·외곽	조성보다는 디자인 및 관리 중심의 가이드라인 설정 또는 기존 가이드라인 활용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재단	해안누리길	제주 해안누리길 등	국내 해양자원을 이용한 해변길	경관이 아름답고 역사와 문화가 담긴 바닷가 길을 선정, 체험활동 기회 제공, 레저스포츠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자체
국토교통부	누리길	서창누리길 등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노선 선정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설치기준에 준한 시설물 조성 가이드라인 설정 (도심, 마을권내 제한적인 특성 보유)	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코리아 둘레길	코리아 둘레길	대한민국 둘레 전체	기존 해파랑길, 남파랑길, 서해랑길 DMZ평화의 길 가이드라인 통합	(사)한국의 길과 문화, 지역 민간단체, 지자체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걷기여행길 통합 관리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2014)를 토대로 재구성

4절 소결

우리의 걷기 문화는 해외 사례들과는 달리 하이킹 트레일 개념보다 등산로의 개념을 먼저 차용하였고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각 지자체 등 등산로가 존재하는 영역을 관리하는 관 주도로 성장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트레일이 도보길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 아닌 등산로의 일부로 개념화되고 정책으로 반영되어 각 트레일은 산을 오르내리거나 회귀하는, 연결성이 떨어지는 형태로 지속되었다. 둘레길과 하이킹 트레일 문화가 정착하기 시작한 2010년 전후를 계기로 산을 오르내리는 것이 아닌 수평적 걷기, 경계가 없는 연속적인 장거리 트레일, 다양한 자연을 마주하는 트레일이 생겨나며 걷기 문화가 비교적 정착한 해외 사례처럼 하이킹 트레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조가 형성되었다. 이에 기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길들이 점차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되고 체계화되는 과정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사례처럼 하이킹 트레일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유형화, 법적 체계를 선형적으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한다.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파편화된 형태가 아닌 트레일에 대한 통합적 관리기관과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부족했다. 우리의 경우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리체를 통해 걷기 여행 길 통합적 관리를 시도했지만 2022년부터 코리아 둘레길 외 트레일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국길관광표준데이터’의 경우처럼, 보다 신뢰할 만한 자료 수집 역시 필요해 보인다.

미국과 영국은 국가 트레일 구축으로 쌓은 경험으로 계획 및 운영 관리에서부터 디자인과 같은 세밀한 영역까지 포괄한 지침이 존재했으며, 그 근원에는 ‘자연’이라는 대전제가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2장 이론적 고찰 및 국내외 사례를 조사를 기반으로 3장은 현재 우리의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 현황과 그 유형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 자연 기반의 수도권 근교 트레일 현황

1절 사례 선정의 틀

본 장은 현재 수도권 근교에서 자연 기반으로 조성된 트레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 틀을 만들고 그 중 심층 연구 대상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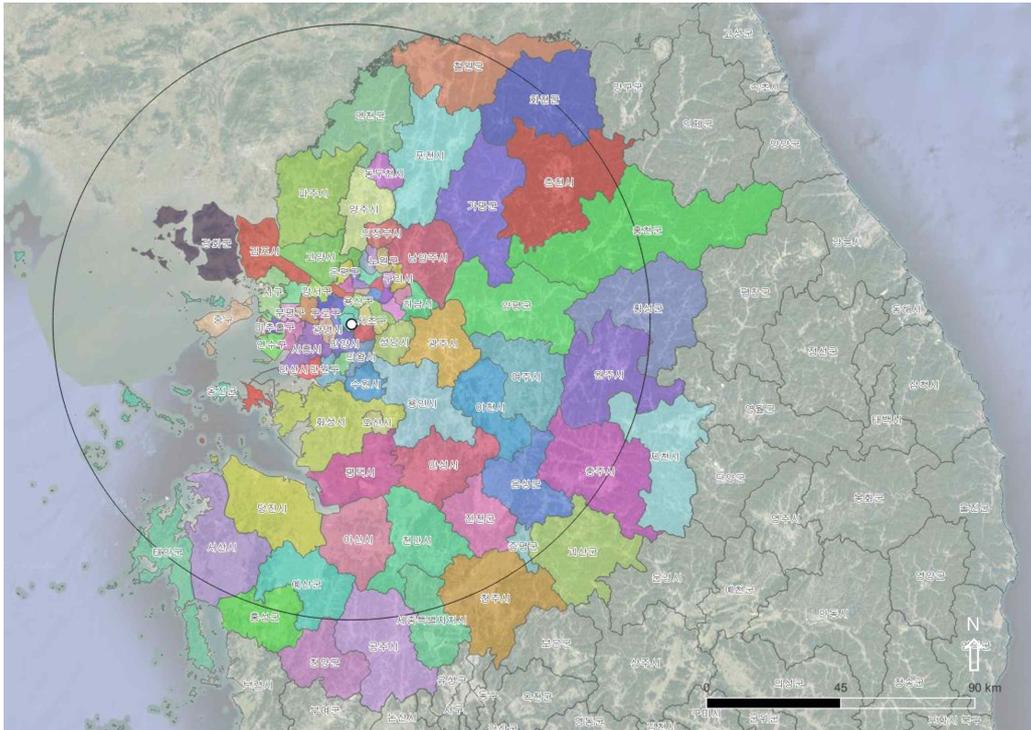
[표 3-1] 수도권 근교 트레일의 틀

항목	기준	내용
거리범위	서울 기준으로 반경 100km ⁵⁶⁾	대중교통 및 차량으로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범위로 당일 여행이 가능한 거리
인구밀도	인구밀도 500명 이하 시·군 및 도서	도심 내 트레일이 아닌 비교적 자연성을 보유한 근교 트레일을 선정하기 위함.
검증 / 정보공개	- 전국길관광정보표준데이터 등록 - 두루누리 홈페이지에 등록 - 트레일 개별 홈페이지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정보가 존재함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트레일을 설정하기 위함.
코스 정보	공식 GPX 정보가 존재함	두루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인 코스 정보 수집 가능
트레일 길이 / 코스의 수	15km 이상 3개 코스 이상	- 각 지역 내 짧은 산책로 및 관광목적의 단거리 탐방로를 제외. - 하이킹 트레일 목적으로 조성된 길을 채택

1. 수도권 근교 범위

수도권 근교의 범위를 서울 기준 100km 반경으로 설정했다. 이는 차량 및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내에 닿는 지역으로 당일 여행이 가능한 거리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울, 경기 및 인천과 충청권, 강원권 일부가 포함되었다. 충청남도에 는 태안, 서산, 당진, 홍성, 예산, 청양, 아산, 공주, 세종, 천안이 포함되었고, 충청 북도에는 청주, 진천, 증평, 음성, 괴산, 충주, 제천이 포함되었다. 강원도에는 원 주, 횡성, 홍천, 춘천, 화천, 철원이 본 논문이 설정한 수도권 근교의 범위 내로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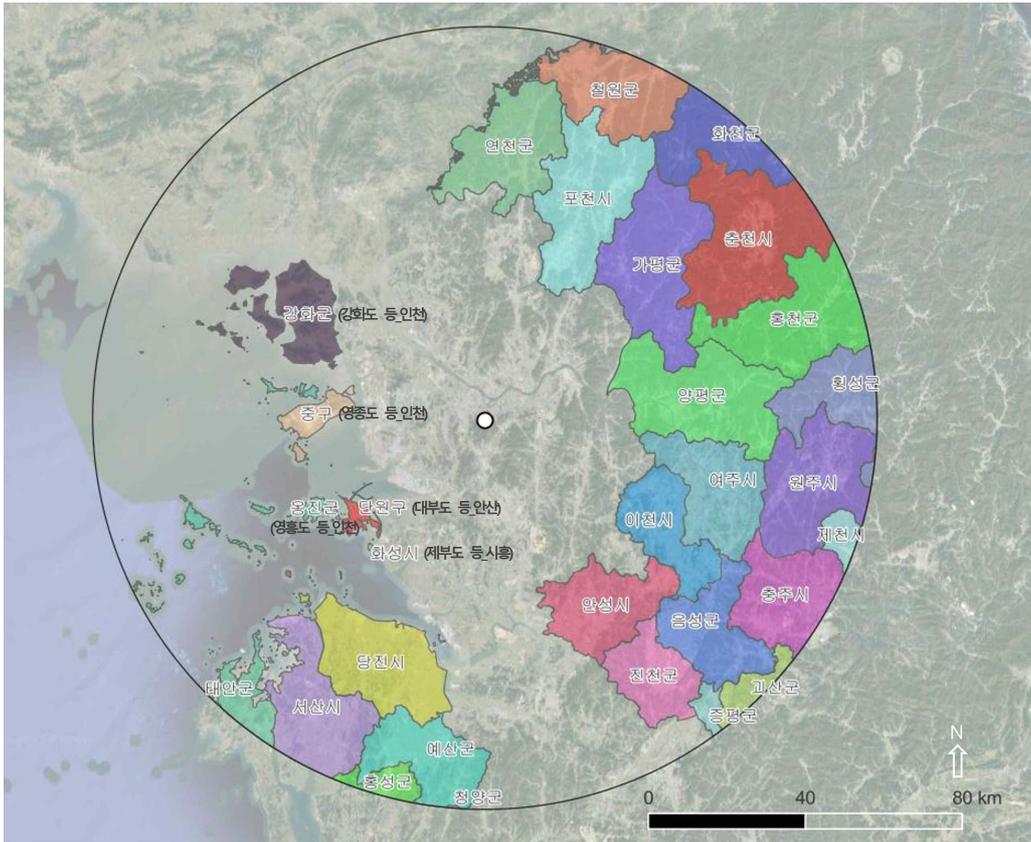
56) 서울 분교 기준, QGIS(ver.3.22) 투영좌표계의 TM(Transverse Meractor)를 사용함.



[그림 3-1] 수도권 근교 범위

2. 인구밀도

도심이 아닌, 도심 외 지역에서 비교적 자연을 테마로 한 트레일을 선정하기 위해 2020년 행정안전부 인구밀도 통계자료를 적용하였다. 1제곱킬로미터당 500명 이하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 100km 이내에 있는 시·군을 뽑아 보았다. 그 결과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경기권의 김포,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하남, 광주, 용인, 성남, 수원, 의왕, 안양, 안산, 시흥, 오산, 평택, 화성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충청권에는 아산, 천안, 공주, 세종, 청주가 제외되었다. 서해 도서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 인구밀도가 아닌, 개별 도서의 인구밀도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인천의 강화도, 영종도, 영흥도 등의 섬들과 안산의 대부도 등, 화성의 제부도 등이 범위로 들어왔다.



[그림 3-2] 수도권 근교의 인구밀도 500(명)/1km² 이하 시·군 및 도서

3. 트레일 검증 및 코스 정보

범위 내 위치한 하이킹 트레일 중, 현재 운영 중인 트레일 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 전국길관광정보표준데이터 2022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후 두루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두루누리 홈페이지에 등록된 트레일의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각 트레일 관리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현재로선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다른 트레일로 흡수 및 명칭이 변경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각 트레일의 공식 홈페이지 및 시·군 등 지자체 관광홈페이지, 네이버 지도 서비스를 통해 트레일 존재 유·무를 교차 확인하여 반영하였다.

4. 트레일 공식 위치정보

각 트레일 코스별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gpx 파일은 두루누리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는 각 트레일을 담당하는 주체가 제공한 공식적인 위치정보로 판단하였다. 단, 대부해솔길과 같이 2022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코스 일부가 수정된 경우가 존재했고, 이 외 트레일들 역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코스의 변화가 진행 중일 것으로 추측하였다. 따라서 모든 트레일을 현재 시점으로 수정 적용하기에는 자료 수집 등에 현실적인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2년 5월, 두루누비에 업로드된 코스를 기준으로 삼았다.

5. 트레일 길이 및 코스의 수

수도권 근교에서 걷기 여행에 적절한 트레일의 길이로 문화체육관광부(2014)가 선정한 위계를 기준으로 15km 이상의 트레일을 선정했다. 해당 기관의 기준으로 15km 미만의 트레일을 ‘초단거리’로 두고 있으며, 이 범위에 해당하는 트레일을 포함하면 각 지역 내 짧은 산책로 및 관광지에 위치한 관람로까지 범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걷기 여행길로써 의미가 있는 기준으로 ‘3개 이상의 코스’를 보유하고 전체 코스의 길이가 ‘15km 이상’인 트레일을 선정하였다.

6. 도출 결과

최종적으로 14개의 수도권 근교에 위치한 자연기반 하이킹 트레일을 도출하였다. 해당 트레일들은 비교적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성을 보유한 근교 트레일로서 15km, 3개 이상의 코스를 보유했으며, 관련 행정기관 및 트레일 단체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최종 누락된 트레일의 이유는 첫째, 전국길관광정보표준데이터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두루누리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빠져있는 경우⁵⁷⁾, 둘째, 경기둘레길 등 장거리트레일에 흡수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코스가 중

57)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한국관광공사가 공개한 전국길관광정보표준데이터에 등록되어 있는 하이킹 트레일의 경우 정보의 기준일이 불명확하고 최신의 정보가 아님을 인지함. 두루누리 각 지자체별 트레일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보가 비교적 최신 자료로 판단하였다.

[표 3-2] 도출된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 소개

트레일		지역	트레일 길이	코스 수	소개
강화나들길		인천특별시 강화군	310.5km	20	세계적인 갯벌과 오래된 역사, 선조의 지혜가 어우러져 살아 숨을 쉬는 길
경기 들레길	전체구간	경기도 일대	860km	60	- 경도의 외곽을 따라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두발로 경험할 수 있는 장거리 걷기 여행길 - 총 4개 권역으로 구성 경기평화누리길(김포, 파주, 연천), 경기숲길(연천, 포천, 가평, 양평), 경기물길(여주, 이천, 안성), 경기갯길(평택, 화성, 안산)
	연천구간	연천군	76.1km	4	
	포천구간	포천시	61.55km	5	
	가평구간	가평군	98.6km	8	
	양평구간	양평군	73.2km	6	
	여주구간	여주시	48.7km	5	
	이천구간	이천시	33.2km	2	
안성구간	안성시	75.5km	5		
경기 옛길 평해길	전체구간	구리시, 양평시, 남양주시	125km	10	- 역사적 고증을 토대로 원형을 밝혀 지역의 문화유산을 도보길로 연결한 새로운 형태의 역사문화탐방로 - 조선시대 한양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 중 경기도를 지나는 주요 6개의 도로망인 의주로 경흥로·평해로·영남로·삼남로·강화로를 복원. - 평해길은 관동(강원)과 한양을 연결해주던 옛길. - 4-6 코스는 양평물소리길과 거의 동일함.
	양평구간	양평시	91.9	7	
내포문화숲길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320km	28	내포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를 아우르는 내포 문화숲길
대부해솔길		안산시 대부도	108km	11	서해를 품은 해안선을 따라 대부도를 둘러보는 대부해솔길
서산아라메길		서산시	126km	10	자연스러운 길을 따라 서산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볼 수 있는 길
서해랑길	전체구간	서해전역	1,800km	109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서해에 위치한 기존 걷기여행길을 연결한 장거리 트레일
	태안구간	태안군	186.6km	11	
	서산구간	서산시	54.6km	4	
	당진구간	당진시	50.7km	3	
양평물소리길		양평군	55.7km	6	남한강과 북한강의 맑은 물소리와 자연의소리를 아우르는 길
여주여강길		여주시	117.8km	11	남한강(여강)을 보러 가는 길
철원한여울길		철원군	52.4km	6	강원도 철원군에서 조성한 생태탐방 도보 여행길.
치악산둘레길		원주시	139.2km	11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길, 생태·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순례길
춘천봄내길		춘천시	104.2km	10	춘천의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옛길 걷기
포천한탄강주상절리길		포천시	26km	5	커커이 쌓인 바위 틈새에서 들려오는 27만 년 전 강물이 만든 이야기
횡성호수길		횡성군	31.5km	6	강원도 횡성의 산과 물을 담은 둘레길

[표 3-3] 전체 트레일과 도출된 트레일

지역	전체 트레일	도출된 트레일	
경기	가평군	경기둘레길 가평 18-25코스 / 자라섬썰즈길 / 가평천물안길 / 북한강강변길 / 현등사고찰길 / 가평옛길 / 감천길 / 가평뫼동산길 / 호명호수길	경기둘레길 가평구간
	안성시	경기둘레길 안성 39-43코스 / 안성천 산책로 / 경기옛길 영남길 8-9코스 / 죽산성지순례길 / 서운산둘레길 / 용설저수지 수변산책로	경기둘레길 안성구간
	양평군	경기둘레길 양평 26-31코스 / 양평물소리길 / 경기옛길 평해길 5-10코스(5,6코스는 물소리길과 공유함) / 희망볼랫길 / 두물머리길 1-2코스	경기둘레길 양평구간 / 양평물소리길 / 경기옛길 평해길 5-10코스
	여주시	경기둘레길 여주 32-36코스 / 여강길	경기둘레길 여주구간 / 여강길
	연천군	경기둘레길 연천 9-12코스 / 차탄천주상절리길 / 차탄천에움길 / 망곡산둘레길 / 평화누리길10-12코스(경기둘레길과 공유)	경기둘레길 연천구간
	이천시	경기둘레길 이천 37-38코스, 원적산둘레길 / 경기옛길 영남길 10코스 / 정개산원적산 둘레길 / 산수유 둘레길 / 산수유 연인의길 / 북하천 갈대밋집길 / 마곡산둘레길 / 신둔천 예쁜길 / 신둔 오름가마길 / 청미역사문화길 / 호법 코스모스길 / 마장 매화둘레길 / 소뚝도랑 둘레길 / 창전동 추억담은 곡목길 / 죽당천 둘레길 / 중앙동 문화의거리 / 메타세콰이어길 / 청미역사문화길 3구간	-
	포천시	경기둘레길 13-17코스 / 한탄강 주상절리길 / 한탄강 어울길 / 산정호수 둘레길 / 왕방산 숲길 / 천주산 숲길 / 청계호수 산책로 / 말봉산 숲길	경기둘레길 포천구간 /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길

지역	전체 트레일	도출된 트레일
강원	원주시 역사문화순례길 / 에코힐링로드길 / 원주혁신도시 수변공원길 / 치악산둘레길 / 원주굽이길 / 치악산 명품 금강소나무 숲길	치악산둘레길
	철원군 한여울길 / 한탄강물윗길	한여울길
	춘천시 봄내길	봄내길
	홍천군 개야강변 에움 녹색길 / 너브내 수변탐방로 1-2코스 /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생태문화탐방로 구절산 코스 / 홍천9경 생태탐방로 / 수타사 산소길	-
	화천군 화천산소길 / 옛길복원(한뼉길) / 비수구미 생태길	-
	횡성군 횡성호수길 / 횡성섬강길 / Eco800 태기산 트레킹로	횡성호수길
충남	당진시 버그내순례길 / 삼교호 해안탐방로 / 봉화산 솔바람길 / 바다사랑길 / 내포문화숲길(원효깨달음길 7(7-1)-8(8-1)코스, 내포동학길 1코스, 백제부흥길 7-9코스, 천주교순례길 1코스) / 서해랑길 지선 5-6코스(아라메길, 내포문화숲길과 일부 공유) / 서해랑길 81-83코스	내포문화숲길 / 서해랑길 81-83코스
	서산시 아라메길 / 서해랑길 지선 1-4코스(아라메길, 내포문화숲길과 일부 공유) / 내포문화숲길 원효깨달음길 3-6코스 / 서해랑길 65, 77-80코스	서산아라메길 / 내포문화숲길 / 서해랑길 77-80코스
	예산군 느린꼬부랑길 / 온천과 함께하는 솔바람길 / 예당호느린호수길 / 내포문화숲길 (백제부흥군길 3-6,(4-1)코스, 천주교순례길 2-4코스, 원효깨달음길 2, 5코스, 역사인물길 1코스) / 가야구곡 녹색길 / 온천과 함께하는 솔바람길	내포문화숲길
	청양군 녹색길 / 벚꽃길 / 지천생태길 / 고향길 / 남산녹색둘레길 / 칠갑산 솔바람길 1-2코스 /	-

지역	전체 트레일	도출된 트레일	
태안군	셋별길 / 바람길 / 태배길 / 바라길 / 소원길 / 파도길 / 솔모랫길 / 노을길 / 태안 솔향기길 1-5코스(서해랑길과 공유) / 서해랑길 66-76코스 / 태안 해변길 1-7코스(서해랑길과 공유)	서해랑길 66-76코스	
	홍주성천년여행길 / 홍주성지순례길 / 재너머숲길 / 서해랑길 63코스 / 거북이마을 솔바람길 1-3코스 / 내포문화숲길 역사인물길 2-5코스, 천주교순례길 5코스, 백제부흥길 1-2코스	내포문화숲길	
충북	괴산군	충청도양반길 1-3코스 / 산막이옛길 /	-
	음성군	용계저수지 둘레길 / 쑥부쟁이(용산저수지)둘레길 / 양덕저수지 둘레길 / 반기문 비채길	-
	제천시	얼음골생태길 / 녹색마을길 / 옥순봉길 / 괴곡성벽길 / 약초길 / 뱃길 / 작은동산길 / 정방사길 / 의림지 힐링 트레킹 / 청풍호자드락길 1-7코스	-
	증평군	증평둘레길(바람소리길, 삼기저수지 등잔길, 거북이별 보러가는길, 비나리길)	-
	진천군	초롱길	-
	충주시	비내길 1-2코스 / 중원문화길 1-2코스 / 새재넘어 소조령길 2-4코스 / 충주풍경길(대몽항쟁길, 반기문 꿈자락길, 사래실마을가는길, 하늘재길, 종댕이길)	-
서해 도서	안산시 (대부도 등)	대부해솔길 / 서해랑길 90-93코스(대부해솔길과 공유) / 경기둘레길 안산 49-51코스(대부해솔길과 공유)	대부해솔길
	인천시 (강화도 등)	강화나들길 / 서해랑길 11-13코스(강화나들길과 공유) / 인천둘레길 15코스 강화마니산(강화나들길과 공유) / 석모도바람길(강화나들길과 공유) / 석모도상주해안길(강화나들길과 공유) / 주문도길(강화나들길과 공유) / 불음도길(강화나들길과 공유)	강화나들길
	화성시 (제부도 등)	해안누리길 제부모세3색 체험해안길	-

2절 트레일 유형화

1. 일반현황

[표 3-4] 도출된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 일반현황

트레일	트레일 길이	코스 수 ⁶¹⁾	난이도 ⁶²⁾	트레일 위계	코스형태	대중 교통 ⁶³⁾	접근성 ⁶⁴⁾	
강화나들길	310.5km	20	보통	장거리	복합형	중	1h이상	
경기둘레길	전체구간	860km	60	-	장거리	순환형	-	-
	연천구간	76.1km	4(9-12)	보통	중거리	선형	중	1h이상
	포천구간	61.55km	5(13-17)	어려움	중거리	선형	중	1h이상
	가평구간	98.6km	8(18-25)	어려움	중거리	선형	상	1h이상
	양평구간	73.2km	6(26-31)	어려움	중거리	선형	상	1h이상
	여주구간	48.7km	5(32-36)	보통	단거리	선형	상	1h이상
	이천구간	33.2km	2(37-38)	쉬움	단거리	선형	상	1h이상
평해길	전체구간	125km	10	-	중장거리	선형	-	-
	양평구간	91.9	6(5-10)	쉬움	중거리	선형	상	1h이상
내포문화숲길	320km	28	어려움	장거리	복합형	상	1h이상	
대부해솔길	108km	11	보통	중장거리	순환형	중	1h이내	
서산아라메길	126km	10	보통	중장거리	복합형	중	1h이상	
서해랑길	전체구간	1,800km	109	-	장거리	선형	-	-
	태안구간	186.6km	11(66-76)	보통	장거리	선형	하	1h이상
	서산구간	54.6km	4(77-80)	보통	중거리	선형	중	1h이상
	당진구간	50.7km	3(81-83)	쉬움	중거리	선형	중	1h이내
양평물소리길	55.7km	6	보통	중거리	선형	상	1h이내	
여주여강길	117.8km	11	보통	중장거리	순환형	상	1h이상	
철원한여울길	52.4km	6	보통	중거리	복합형	중	1h이상	
치악산둘레길	139.2km	11	어려움	중장거리	순환형	하	1h이상	
춘천봄내길	104.2km	10	보통	중장거리	복합형	상	1h이상	
포천한탄강주상절리길	26km	5	보통	단거리	복합형	하	1h이상	
횡성호수길	31.5km	6	보통	단거리	순환형	하	1h이상	

61) 괄호는 전체 코스 중 해당 구간번호. 예를 들어 연천(9-12)는 경기둘레길 9-12코스 연천구간을 뜻함.

62) 두루누비 각 코스별 난이도를 참고하여 평균 값을 사용함.

63) 시외버스터미널, 철도역사가 트레일 1km 이내 존재하는지를 고려함. 모두 존재, 하나만 존재, 존재하지 않음으로 상중하를 나눔.

64) 네이버 길 찾기 기준(검색일:2022.7.22.), 본교로부터 각 트레일 1코스 시작점까지의 차량 소요시간. 경기둘레길, 서해랑길과 같은 초장거리 트레일의 경우 서울에서 가까운 코스를 기준으로 검색.

도출된 트레일에서 장거리 트레일로는 강화나들길과 내포문화 숲길로 나타났다. 반대로 50km 이하의 단거리 트레일로는 경기둘레길 여주, 이천 구간과 한탄강 주상절리길, 횡성호수길로 나타났다. 코스의 수는 내포문화숲길이 28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둘레길 이천구간이 2개로 가장 적었다.

걷기 난이도의 경우 경기둘레길 포천, 가평, 치악산 둘레길처럼 산악지형에 인접한 트레일일수록 난이도가 높았고, 반대로 하천과 평야, 바다 인근에 계획된 트레일은 비교적 걷기 쉬운 난이도를 가졌다.

코스의 형태는 대다수 트레일이 선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강화나들길과 내포문화숲길처럼 다양한 테마를 보유한 장거리 트레일은 복합형태를 가졌으며, 횡성호수길, 대부해솔길, 치악산 둘레길처럼 특정 호수와 섬, 산을 테마로 한 트레일의 경우 원점으로 회귀하는 순환형 형태를 띠고 있다.

대중교통의 경우 시 단위에 계획된 트레일이 비교적 시외버스터미널 이용이 용이하였으며, 특히 경춘선, 경의중앙선, 경강선처럼 철도가 함께 있는 지역 트레일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우수했다.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의 경우는 대부해솔길과 양평물소리길, 서해랑길 당진 83코스 시작점이 서울로부터 1시간 이내로 나타났으며 그 외 트레일들은 모두 1시간 이상 소요 시간을 보였다. 이는 해당 트레일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고, 고속도로와도 인접한 이유로 판단된다.

2. 자연 경관자원

[표 3-5] 도출된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 자연 및 경관자원

트레일	자연경관요소											
	산	숲	협곡	계곡	하천	사주 65)	갯벌	호수 66)	들	농어촌마을	도시지역 67)	
강화나들길	✓	✓			✓	✓	✓	✓	✓	✓	✓	
경기 들레길	연천구간	✓	✓		✓	✓			✓	✓		
	포천구간	✓	✓		✓	✓		✓	✓	✓	✓	
	가평구간	✓	✓		✓	✓		✓	✓	✓	✓	
	양평구간	✓	✓		✓	✓			✓	✓	✓	
	여주구간		✓			✓			✓	✓	✓	
	이천구간					✓			✓	✓	✓	
	안성구간	✓	✓		✓	✓			✓	✓	✓	
평해길	양평구간	✓	✓			✓			✓	✓	✓	
내포문화숲길	✓	✓		✓	✓			✓	✓	✓	✓	
대부해솔길	✓	✓			✓	✓	✓		✓	✓	✓	
서산아라메길		✓			✓	✓	✓	✓	✓	✓	✓	
서해랑길	태안구간	✓	✓				✓	✓		✓	✓	✓
	서산구간						✓	✓	✓	✓	✓	✓
	당진구간					✓	✓	✓	✓	✓	✓	✓
양평물소리길		✓			✓				✓	✓	✓	
여주여강길		✓			✓				✓	✓	✓	
철원한여울길	✓	✓	✓		✓			✓	✓	✓		
치악산둘레길	✓	✓		✓	✓				✓	✓	✓	
춘천봄내길	✓	✓		✓	✓			✓	✓	✓	✓	
포천한탄강주상절리길		✓	✓		✓				✓	✓		
횡성호수길	✓	✓			✓			✓	✓	✓		

65) 바닷가 모래사장을 뜻함.

66) 저수지 포함.

67) 읍내와 같이 도시화 된 지역

자연 및 경관자원은 트레일이 산림, 하천, 해안 크게 세 가지 타입 중 어느 요소와 근접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산림자원과 인접한 트레일은 산, 계곡을 보유, 해안의 경우는 사주, 갯벌을, 하천형의 경우 이 둘 요소를 가지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경기둘레길 이천구간처럼 대규모 경작지를 지나거나 서해랑길 서산, 당진 구간과 같이 바다와 인접한 트레일의 경우는 숲을 지나는 구간이 부족했다. 이는 하천, 바다 인근에 조성된 대부분의 트레일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지만, 숲을 지나는 지점들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었기에 숲을 보유한 것으로 포기하였다. 따라서 산속 울창한 숲길을 걷는 지역은 주로 산과 계곡을 보유하고 있는 트레일이며, 산길을 걷지만 계곡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강화나들길, 대부해솔길, 서해랑길 태안 구간은 비교적 낮은 동산 혹은 그 인근을 지나는 트레일이다.

모든 트레일이 농어촌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작은 마을을 지나고 있고, 탁 트인 경관을 제공하는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시가지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연천과 철원, 포천처럼 접경지역의 트레일과 강원도 횡성에 조성된 트레일은 예외였다.

철원과 포천의 경우 한탄강을 통해 거대한 협곡 경관을 보유한 특징이 있으며, 서해를 배경으로 조성된 트레일의 경우 모래사장과 갯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3. 보호지역

[표 2-6] 도출된 자연 기반의 수도권 근교 트레일 인근 보호지역

트레일	주요 보호지역 항목							
	국립 공원	도립 공원	보전 산지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상수원 보호 구역	절대 보전 연안	준 보전 연안	습지 보호 구역
강화나들길			✓	✓		✓	✓	
경기 둘레길	연천구간			✓				
	포천구간			✓				
	가평구간		✓		✓			
	양평구간			✓				
	여주구간			✓	✓	✓		
	이천구간							
	안성구간			✓	✓	✓		
평해길			✓		✓			
내포문화숲길		✓	✓	✓	✓			
대부해솔길			✓	✓		✓	✓	✓
서산아라메길		✓					✓	
서해랑길	태안구간	✓			✓	✓	✓	✓
	서산구간					✓	✓	
	당진구간					✓	✓	
양평물소리길			✓	✓	✓			
여주여강길			✓	✓	✓			
철원한여울길				✓	✓			
치악산둘레길	✓		✓	✓				
춘천봄내길				✓				
포천한탄강주상절리길								
횡성호수길			✓	✓	✓			

보호지역 요소 역시 자연 및 경관자원처럼 트레일 테마가 산림형, 하천형, 해안형에 따라 그 특징이 나뉜다. 산림형의 경우 도립공원과 보전산지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었고 하천형은 상수원보호구역을, 바다형은 보전연안과 습지보호구역 주위를 지나고 있는 모습은 띈다. 국립공원의 경우는 치악산국립공원 둘레를 도는 치악산둘레길과 태안국립공원 해안을 따라 걷는 서해랑길 태안구간이 있었다. 도립공원은 연인산도립공원을 지나는 경기둘레길 가평구간, 덕산도립공원의 내포문화숲길과 서산아라메길이 있었다. 보전산지는 산림이 밀집한 경기동북부와 강원도에 조성된 트레일들이 주를 이루었고, 예외적으로 서해 도서의 강화나들길, 대부해솔길도 보전산지를 지나고 있다. 대다수의 트레일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강과 남한강, 한탄강, 예당저수지 인근 트레일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나고 있었다. 해안형과 서해 도서 트레일인 서해랑길, 강화나들길, 대부해솔길, 서산아라메길은 해양수산부의 절대보전연안과 준보전연안을, 대부해솔길과 태안구간에는 램사르습지로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 존재했다.

4. 운영 및 관리 수준

[표 3-7] 도출된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 운영 및 관리 수준

트레일	운영주체	관련 법 및 조례 ⁶⁸⁾	프로그램 69)	공식 홈페이지	지도 서비스 ⁷⁰⁾
강화나들길	(사)강화나들길 / 강화군	상	상	✓	✓
경기둘레길	경기도 / 시·군	중	-	✓	✓
경기옛길 평해길	경기도 / 경기옛길센터 / 시·군	상	상	✓	✓
내포문화숲길	(사)내포문화숲길 / 시·군	중	상	✓	✓
대부해솔길	안산시	상	중	-	✓
서산아라메길	서산시	하	중	-	✓
서해랑길	한국관광공사/ 시·군/ (사)한국의 길과문화	중	-	✓	✓
양평물소리길	양평군	상	상	✓	✓
여주여강길	(사)여강길	상	상	✓	✓
철원한여울길	철원군 / 한탄강지질공원	하	하	-	-
치악산둘레길	원주시 / (사)한국걷기협회	중	상	✓	✓
춘천봄내길	춘천시 / (사)문화커뮤니티 금토	중	상	✓	✓
포천한탄강주상절리길	포천시 / 한탄강지질공원	하	하	-	✓
횡성호수길	횡성군	하	중	-	✓

- 68) (상) : 해당 트레일이 관련 시·군 및 광역단체 조례에 명시된 경우
 (중) : 해당 시·군에 걷는 길 관련 조례가 있는 경우(경기둘레길 등 장거리 트레일 경우 광역단체 조례)
 (하) : 해당 시·군에 걷는 길 관련 조례가 없고 광역단체 조례만 존재하는 경우
 69) (상) : 정기적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명시
 (중) : 연례 행사 및 단발적 프로그램 존재
 (하) : 존재하지 않거나 그 정보를 찾기 힘든 경우
 (-) : 개통 초기, 판단 불가
 70) 해당 트레일 공식 코스 정보를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 가능 여부 (검색일:2022.7.25.)

(1) 운영주체 및 프로그램

각 트레일의 운영 및 관리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 주체, 관련 법 및 조례,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 지도 서비스 공개 여부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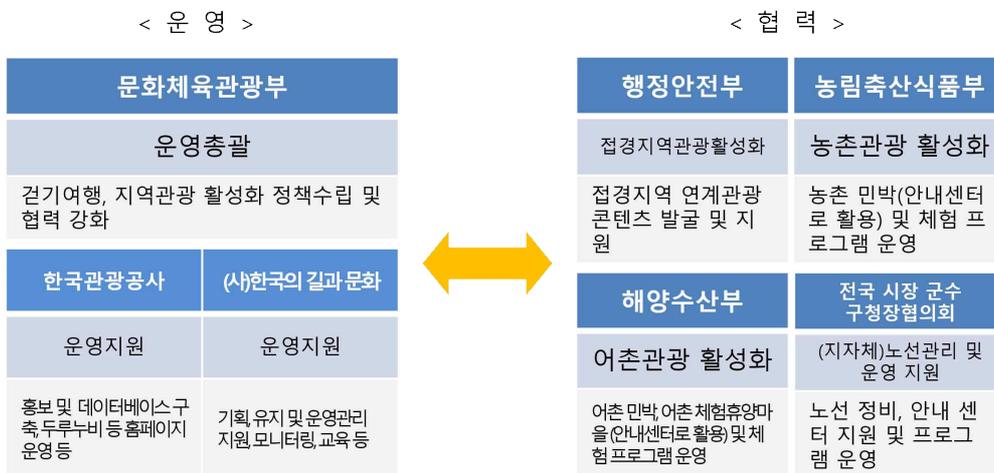
운영주체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해당 트레일을 전담하는 사단법인 혹은 비영리 기관이 존재하는 경우다. 강화나들길, 내포문화숲길, 여강길은 지역 커뮤니티 단체를 통해 해당 트레일을 주관하는 법인이 만들어지고 각 지자체의 일부 지원으로 트레일을 운영 관리하는 형태를 띤다. 이 경우 해당 트레일 공식 홈페이지가 존재하며 꾸준한 프로그램 기획이 함께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8] 여주 여강길 프로그램

구분	내용
정기걷기	- 매월 둘째주 토요일과 넷째주 일요일에 정기걷기 - 계절에 따라 여강 길의 다양한 코스를 함께 걷기 - 코스 및 시간, 장소는 행사 일주일 전 여강길 홈페이지, SNS를 통해 공지
달빛강길	- 무더운 여름 낮 시간을 피해 걷는 행사로 6월부터 10월에 진행 - 달빛에 의지하여 걷는 경험을 제공
여강길생태학교	-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강길을 걸으며 사계절의 변화와 길이 주는 가치를 몸으로 직접 느끼게 함 - 여주의 생태적자원, 인문적자원, 문화자원, 관광자원을 지켜가는 방법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 지역에 거주하시는 동화작가, 시인, 화가, 어부, 농부등을 만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내 고장의 구석구석을 알아가는 경험을 제공
여강길걷기축제	- 봄 혹은 가을에 여주도자기축제, 옩크나무축제 등 지역의 축제와 결합 하여 여강길을 걷는 축제 - 여강의 아름다운 진면목을 전국 많은 이들에게 알림 - 길 위에서 펼쳐지는 문화 예술 공연, 다양한 체험, 지역의 먹거리를 즐기며 강 문화와 마을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이동형 축제 -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개인 컵과 수저를 지참
여강길의 재발견 구석구석마을여행	- 여주에 살면서 여강길을 걸어보지 못한 단체 혹은 개인들을 중심으로 진행 - 걷기를 통해 나의 고장 구석구석을 알아가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회원의날	- 우리나라 곳곳에 멋진 길들을 1년에 한번 이상 여강길 회원들과 함께 걷기 - 여강길을 후원하는 회원들과의 친목을 도모
여강 수달인형 만들기	- 여강의 상징인 수달을 모티브로 수달 퀼트 인형, 퀼트 열쇠고리 등을 회원들과 함께 손바느질로 만들
새집 만들기	- 지역 텃새 중 작은 새들의 집을 목공예로 만들어 생태적 가치가 있는 일부 코스에 설치하는 사업

자료 : 여주여강길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둘째로 지자체 및 기관이 트레일 운영의 주체가 되고 일부 기능을 비영리단체와 협력하는 경우다. 지자체가 주체인 경우에도 전용 홈페이지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 관리하는 트레일은 존재하는데 양평물소리길, 치악산둘레길, 춘천봄내길을 꼽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 관광부서에서 운영 관리를 전담하거나, 걷기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단체에 일부 역할을 위임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모양을 띤다. 경기둘레길, 경기옛길, 서해랑길처럼 많은 지자체를 지나는 광역 트레일의 경우는 해당 광역단체 혹은 관광공사처럼 보다 상위 조직이 기획을 주도하고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운영한다. 그 예로 서해랑길이 속해있는 코리아 둘레길⁷¹⁾의 경우 각 지자체뿐만이 아닌 다양한 국가 부처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3-4] 코리아 둘레길 운영 및 협력체계 예시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1) 보도자료를 토대로 재구성⁷²⁾

마지막으로 관할 지자체가 전담하여 트레일을 관리하는 경우로 대부해솔길, 서산아라메길, 양평물소리길, 철원한여울길, 포천한탄강주상절리길, 횡성호수길이 있다. 이 중 가장 관리 정도가 높게 평가된 곳은 양평물소리길로 나타났다. 양평물소리길은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자치법규와 전용 홈페이지를 두고, 다양한 정기 및 비정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다. 철원한여울길, 포천한탄강주상절리길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한탄강지질공원이 운영관리 일부에 참

71) 코리아 둘레길은 서해랑길, 남파랑길, 해파랑길, DMZ 평화의 길을 포함한 대한민국 둘레의 프로젝트
72) 문화체육관광부(2021), 5개 기관, ‘코리아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관리 주체가 모호하여 정보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 예로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테마로한 트레일의 경우 철원, 연천, 포천 각 지자체의 독자적인 트레일 브랜드를 두고 있으며, 이에 한탄강지질공원, 행안부, 각 광역단체 역시 해당 트레일 관리에 개입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⁷³⁾. 따라서 운영 주체와 협력 단체들의 명확한 역할 설정은 트레일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2) 관련 조례

관련 지자체 및 광역단체 조례로는 강화나들길, 대부해솔길, 양평물소리길, 여주 여강길처럼 해당 하이킹 트레일 전용 자치 법규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치악산둘레길, 춘천봄내길과 같이 자치 법규에 걷는 길 관련 조례가 존재하고 해당 트레일이 이에 속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서산아라메길, 포천한탄강주상절리길, 횡성호수길처럼 지자체 조례가 존재하지 않고 광역단체 걷는 길 관련 조례만 존재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트레일에 관한 전용 자치 법규가 해당 지자체 조례에 존재한다는 것은 지자체장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운영 및 관리 지원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9] 각 트레일별 해당 자치 법규

구분	트레일	해당 조례
전용 조례	강화나들길	강화군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
	대부해솔길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양평물소리길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여주여강길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옛길(광역)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 걷는 길 조례	치악산둘레길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춘천봄내길	춘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광역단체 조례	경기둘레길(광역)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포천한탄강주상절리길	
	횡성호수길	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아라메길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내포문화숲길(광역)	
서해랑길(광역)		

73) 한탄강주상절리길은 현재 한탄강주상절리길, 포천한탄강주상절리길, 철원한탄강주상절리길(간도), 철원한 여울길, 차탄천주상절리길(연천) 등 매우 파편화된 양상이며, 포탈에 공개된 지도정보 역시 현재 포천구간만 검색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단체 차원의 협약을 진행 중이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518/113474249/1> (검색인:2022.7.25.)

그 외 경기도둘레길, 경기옛길, 내포문화숲길, 서해랑길과 같은 많은 지자체를 포함하는 광역 트레일의 경우 경기옛길만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고 나머지 트레일들은 각 광역단체의 걷는 길 조례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3) 전용 홈페이지

트레일 홈페이지는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뉜다. 공식 홈페이지가 없는 대부해솔길, 서산아라메길, 황성호수길은 해당 지자체 관광홈페이지를, 철원한여울길과 포천한탄강주상절리길은 한탄강지질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 트레일의 경우 트레일이 생겨난 배경과 주요 테마, 디자인, 코스 및 관광지 정보, 정기 혹은 비정기적 이벤트, 현재 정비 중이어서 주의가 필요한 구간, 하이커들의 답사 게시판 등 세부적인 정보와 소통 채널을 두고 있었다. 반대로 전용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는 간략한 트레일 소개와 코스 정보 정도를 기재하고 있으며 소통의 장 또한 제한적이다.



[그림 3-5] 경기둘레길 홈페이지
출처 : <https://www.gg.go.kr/dulegil/main.do> (검색일:2022.7.25.)

(4) 지도 서비스

네이버 등 대중적인 인터넷 지도 서비스에 트레일 코스 정보를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 또한 트레일 관리 수준의 주요 척도로 보았다. 이러한 조치는 이용자로 하여금 트레일 방문 의도 상승, 이용시 편의성 증대 등 트레일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준다고 판단했다.

기존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리 플랫폼에는 전국 주요 하이킹 트레일의 위치정보인 gpx 파일을 공개하고 일부 트레일은 ‘따라가기⁷⁴⁾’ 기능을 두고 있다. 하지만 gpx의 경우 GIS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사용자에게는 다소 어려운 개념이며, 따라가기 기능은 현재는 코리아 둘레길 외에는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두루누비에 반영된 각 트레일 코스정보는 전국 하이킹 트레일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코스 정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로 사료된다. 이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특정 시점에 전국 하이킹 트레일을 전수조사하여 반영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현재 두루누비에 올라와 있는 코스 정보들은 비교적 수년 전 자료들로 추측한다.

이러한 이유로 각 트레일 단체가 인터넷 지도 서비스에 최신 코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뿐 아니라 트레일 관리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다. 도출된 14개 트레일 중 철원한여울길 외 트레일을 네이버 지도 서비스에서 코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서해랑길, 경기둘레길처럼 비교적 최근에 개통된 트레일과 대부해솔길처럼 최근 변경된 코스 정보들 역시 반영하고 있었다.

74) 도보용 네비게이션 서비스

3절 소결 및 심층 연구 대상지 선정

3장을 통해서 자연 기반의 수도권 근교 하이킹 트레일을 본 연구의 틀을 기반으로 도출해 보았고, 각 트레일을 일반현황, 자연 경관자원, 보호지역, 관리 수준으로 유형화했다.

일반현황 유형화로 각 트레일의 코스 수, 코스의 형태, 난이도, 접근성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기둘레길, 내포문화숲길, 서해랑길처럼 다양한 지자체를 포함하는 장거리 트레일부터 특정 지역의 단거리 트레일까지 다양한 길이의 하이킹 트레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장거리 트레일일수록 코스의 수는 많아졌다. 난이도는 산림형 트레일 일수록 높았고, 강 주변 제방길을 걷는 하천형 트레일은 비교적 걷기 쉬운 난이도를 가졌다. 접근성의 경우는 물리적인 거리 외에도 대도시 인근의 트레일일수록 버스터미널과 철도 인프라가 존재하여 대중교통이 용이했으며, 고속도로 IC와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했다.

자연 경관자원으로는 산림형, 하천형, 해안형 트레일로 구분되며 이에 상응하는 경관요소들을 지니고 있었다. 모든 트레일들이 들과 같은 경작지와 농·어촌 마을의 경관 요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숲과 하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산림형태의 트레일들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위치한 트레일로서 계곡을 보유, 해안 형태 경우는 경기와 충남 서부에 위치하며 갯벌과 사주를 가지고 있었다. 하천형 트레일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존재하는 경기도 일대 트레일이었다. 서해 도서의 트레일은 강화나들길과 대부해솔길이 존재했다.

각 트레일이 지나는 보호지역은 트레일의 지리적 위치와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해안형 트레일의 경우 보전연안, 보호습지 등이 존재하고 하천형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산림형의 경우 도립공원과 보전산지를 지나고 있다. 국립공원은 치악산 국립공원을 지나는 치악산둘레길과, 태안국립공원을 보유한 서해랑길 태안 구간이 있었다.

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각 트레일의 운영주체와 체계, 해당 지자체 및 광역 단체의 걷는 길 관련 조례, 전용 홈페이지 유무와 관리 정도, 지속적인 이벤트 등 트레일 프로그램, 대중적인 지도 서비스에 지속적인 코스 반영 등을 살펴보았다. 운영주체의 경우 지자체, 사단법인 혹은 비영리단체의 두 가지 경우가 있었고

이들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형태도 확인하였다. 트레일 관련 조례 유·무는 트레일을 해당 지자체 혹은 광역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담보하는 장치로 보았다. ‘강화군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와 같이 특정 트레일의 조례가 존재하는 경우와 특정 트레일 조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춘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예처럼 해당 지자체가 지역 트레일을 관장하는 역할을 인식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지자체에 조례가 존재하지 않고 해당 광역 단체 조례에만 포함되는 세 가지 위계로 나눌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경우는 운영 주체로 해당 트레일을 전담하는 단체가 존재하고 관련 지자체 조례에 해당 트레일이 명시된 경우 지속적이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경향성을 지닌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트레일이 네이버와 같은 보편적 지도 서비스에 코스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고, 필요시 개별적으로 코스 수정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 케이스 스터디 대상지를 선정하여 보다 심층적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그 대상지는 도출된 트레일들 중에서 가장 수도권과 가깝고 산림, 바다, 하천의 다양한 자연 및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랍사르 습지 등 우수한 생태계 질을 보유하고, 전용 지자체 조례가 존재하여 관리 수준 역시 높다고 판단되는 대부해솔길로 선정하였다. 이용자와 함께 대부해솔길을 경험하고 지역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며 심층 인터뷰를 진행 및 분석하여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의 개념과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제4장 심층 연구 대상지 대부해솔길

1절 대부도 현안 파악

1. 대부도 개요

(1) 역사 및 연혁

대부도의 지명은 ‘큰 언덕(大阜)’ 처럼 보이는 지형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대부도라는 명칭이 붙기 전에는 연화부수지, 낙지섬, 죽호 등의 지명으로 불리었다⁷⁵⁾. 삼한시대에는 마한에, 통일신라 시대에는 한주(漢州), 고려시대에는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 조선에 들어서는 남양군에 속하였다. 1914년 남양군에서 부천군으로, 1973년 경기도 옹진군,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 안산시 편입에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1994년 12월 26일 현재의 안산시로 편입되었다.⁷⁶⁾ 같은 해에 지금의 시화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섬에서 육지로 연결되었다.

(2) 일반 현황

대부도는 안산시 서쪽 약 34km 해상, 동경 126° 35′, 북위 37° 15′ 에 위치한 다. 면적은 46.00km², 1개 행정동과 5개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는 8,746명으로 4,978세대(2020.8월기준)이며, 교육문화복지시설로는 학교 5개교, 의료기관 5개소, 복지시설 37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평균기온은 1월 -4℃, 8월 24℃, 연강수량 1,661mm, 연강설량은 870mm이다. 길이 61km의 해안선으로 갯벌과 염전이 발달하여 주요 관광지로 활용되며, 그 주변으로 대부해솔길이 조성되어 있다. 이 밖에 시화조력발전소, 유리섬박물관, 동주염전, 누에섬등대전망대, 어촌체험관광마을, 골프장, 승마장 등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도는 섬이지만 북쪽으로 시화방조제, 남쪽으로 탄도방조제가 육지로 연결되어 서울 및 수도권과 접근이 용이한 대표적인 도심 근교 관광지다.

75) 대부도닷컴, 대부도 유래, [http://www.daebudo.com/daebudo/daebudo1.html#\(검색일:2022.3.7.\)](http://www.daebudo.com/daebudo/daebudo1.html#(검색일:2022.3.7.))

76) 안산시, 동별유래, [https://www2.ansan.go.kr/www/common/cntnts/selectContents.do?cntnts_id=C0001090\(검색일:2022.3.7.\)](https://www2.ansan.go.kr/www/common/cntnts/selectContents.do?cntnts_id=C0001090(검색일:2022.3.7.))

(3) 대부도 일대 사업계획 및 과제

주말을 이용한 일시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한 대부도는 휴일 심각한 교통정체, 별장형 주택과 펜션의 난립, 특정 관광지 과밀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및 환경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 도로 및 교통, · 관광, 교육, 문화·체육, 환경·농업, 해양·수산 총 7개 분야의 대부도 전체 생활 및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의 대상지는 대부해솔길과 그 주변부를 포함하고 있어 대부해솔길 개선 방안과도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대부도 갯벌습지보호지역센터 건립, 동주염전 및 해양어촌 체험단지 조성과 같이 기존 소외되었던 지역의 대부도 자연 자산을 활용한 개발이 진행 중인 반면, 스카이라이프, 해상케이블카, 방아머리 마리나항 조성 등의 대규모 관광개발은 생태관광을 목적으로 조성된 대부해솔길 사업과는 대치되는 우려가 있다. 한편으로 대부해솔길 정비 사업으로 쉼터 조성, 시설물 보수, 노면 정비, 환경정비 등 해솔길 종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진행중이며, 2021년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8개 코스에서 순환노선 3코스 개발, 안내체계 개선 등이 있다.

[표 4-1] 대부도 주요 추진사업 현황

분야	주력 사업	추진일정		사업 위치
		착수	완료	
도시계획	대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019.1	2021.12	대부도 내
	대부도 도농복합도시 추진	2020.7	-	
도로, 교통	대부황금로(지방도 301호선) 확장 공사	2019.4	2024	대부도 내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	2018.4	2022.6	
	대선로(북동삼거리 일원)확, 포장 공사	2020.7	2022.6	
	작은상재미길 도로개설공사(동주염전)	2020.9	2022.2	
	대부도 관광 인프라 개선(교통환경개선)	2020.7	2020.12	
관광	대부도 관광시설(스카이바이크 등)설치	2020.1	2022.4	해솔길 1코스
	대부도 해상케이블카 건설 사업	2020.12	2024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	2020.1	2022.4	해솔길 5코스
	대부도 농업해양문화관광단지 조성	2020.1	2020.12	해솔길 7코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부해솔길 정비	2018.1	2021.12	해솔길 전 코스
교육	대부고등학교 특성화고 신설	2020.1	2021.12	대부도 내
문화, 체육	대부광산 문화재 역사문화공간 조성	2020.8	2023	해솔길 6코스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	2015.7	2020.8	대부도 내
환경, 농업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 사업	2020.6	-	대부도 내
	신재생에너지 1기가 프로젝트	2028.7	2028.12	
	대부도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 및 에너지 자립섬 조성	2017.11	2021.12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관 전면 확대 설치	2021.3	2023.12	
	시화호 수변도로 태양광 그늘막 설치	2020.8	2021.10	해솔길 7코스
	대부 우리밀 익는 국수마을 조성사업	2019.6	2023.12	대부도 내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	2018.1	2023.7	
해양, 수산	방아머리 마리나항 조성	2019.3	2024.12	해솔길 1코스
	방아머리 지구 연안정비사업	2018.1	2022.12	
	시화호 뱃길 조성	2017.1	2021.5	해솔길 7코스
	불도항 어항개발사업 추진	2020.7	2022.9	해솔길 6코스
	수산물 특화시장 및 로컬푸드 판매시설 건립	2020.9	2022.9	대부도 내
	대부도 갯벌습지보호지역센터 건립	2020.1	2023.6	
	대부도 해양, 어촌 체험단지 조성	2015.1	2021.6	
	어촌뉴딜 300사업	2020.4	2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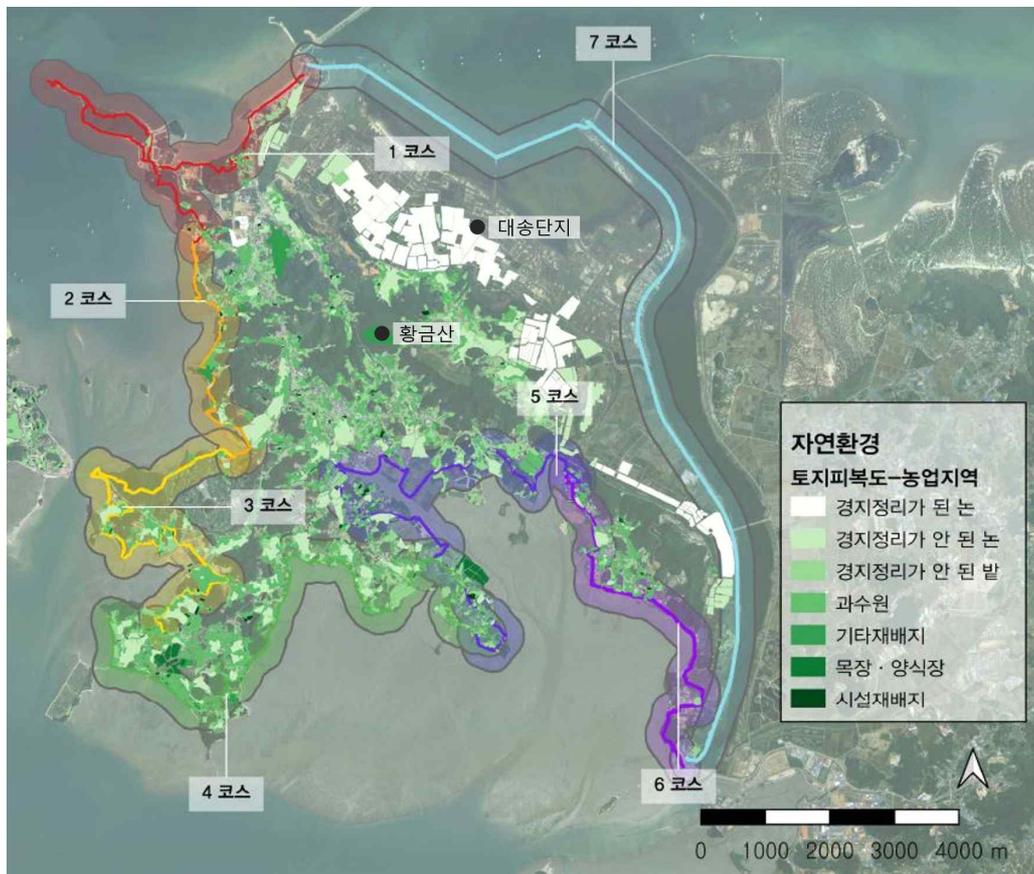
자료 : 안산시 대부해양본부(2020)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 대부도 현황분석⁷⁷⁾

(1) 자연환경

■ 농업지역

농업지역은 대부도 전체 면적의 총 11.45%를 차지한다. 이 중 경지정리 된 논(3.63%)이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며 과수원(2.74%), 경지정리 안 된 논(2.4%), 경지정리 안 된 밭(2.22%), 기타 재배지(0.25%), 목장·양식장(0.11%), 시설재배지(0.09%), 경지정리 된 밭(0.01%) 순으로 나타났다. 경지정리 된 논은 시화 매립지 대송단지에 밀집해 있다. 과수원의 경우 황금산을 중심으로 대부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대부도 특산품인 포도를 생산한다. 농업지역 전체로 보면 해솔길 4, 5코스 주위로 집중분포해 있어 해당 코스 방문객들에게 농촌경관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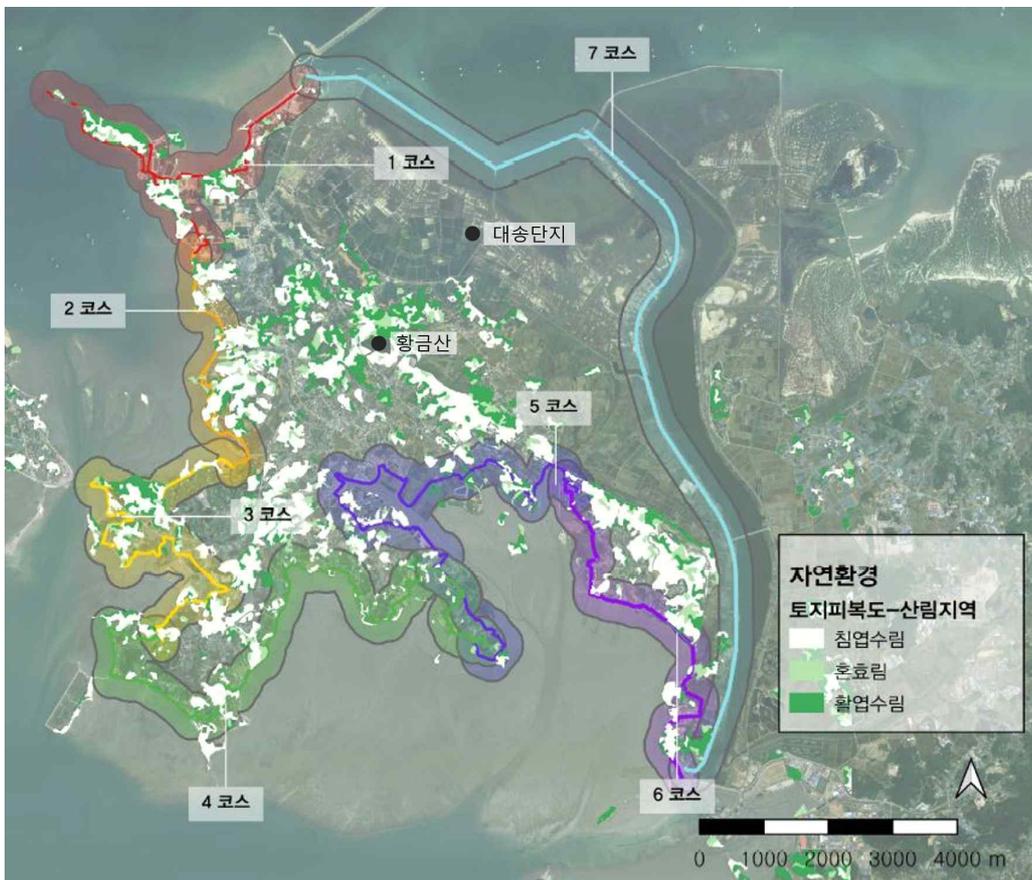


[그림 4-1] 농업지역 GI 맵

77) 해당 챕터의 GIS 분석자료는 연구자 본인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언택트 관광 대응 대부해솔길 이용자 인식 및 행태 분석 연구(2020)’의 연구보조원 고병진, 이동채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함.

■ 산림지역

대부도의 산림지역은 총 8.54%를 차지한다. 서해안의 기후 및 지리적 특성이 반영되어 해송 등 침엽수림(4.94%)이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활엽수림(2.56%), 혼효림(1.04%)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산림지역은 대부도 중심으로부터 북서와 남동쪽으로 뻗어 내려가는 황금산자락과 6코스 인근 선감도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활용하여 대부해솔길 곳곳에 숲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7-1코스⁷⁸⁾는 황금산 능선을 주요 테마로 산림형 트레일이 존재한다. 대송단지 일대의 경우는 식재된 가로수 외에 산림지역이 존재하지 않지만, 갈대와 염생식물 군락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 매력적인 경관을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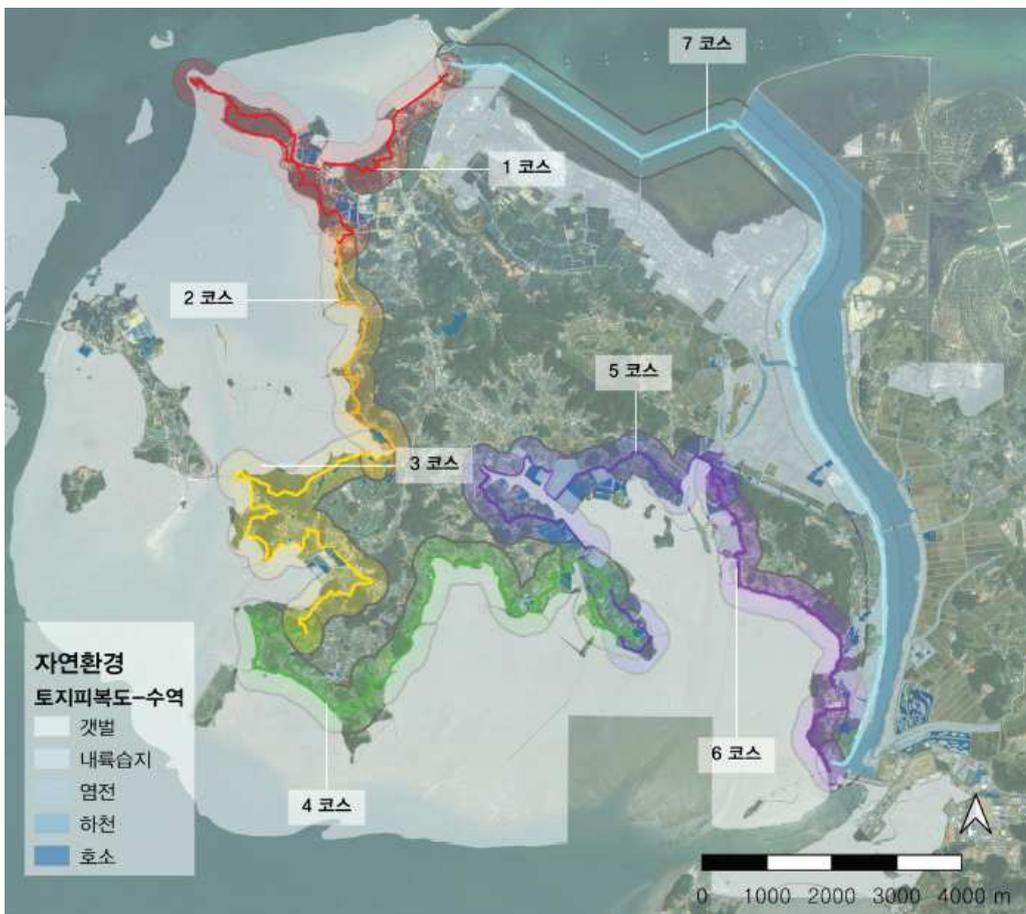


[그림 4-2] 산림지역 GI 맵

78) 2022년 기준, 황금산을 가로지르는 7-1코스가 존재함.

■ 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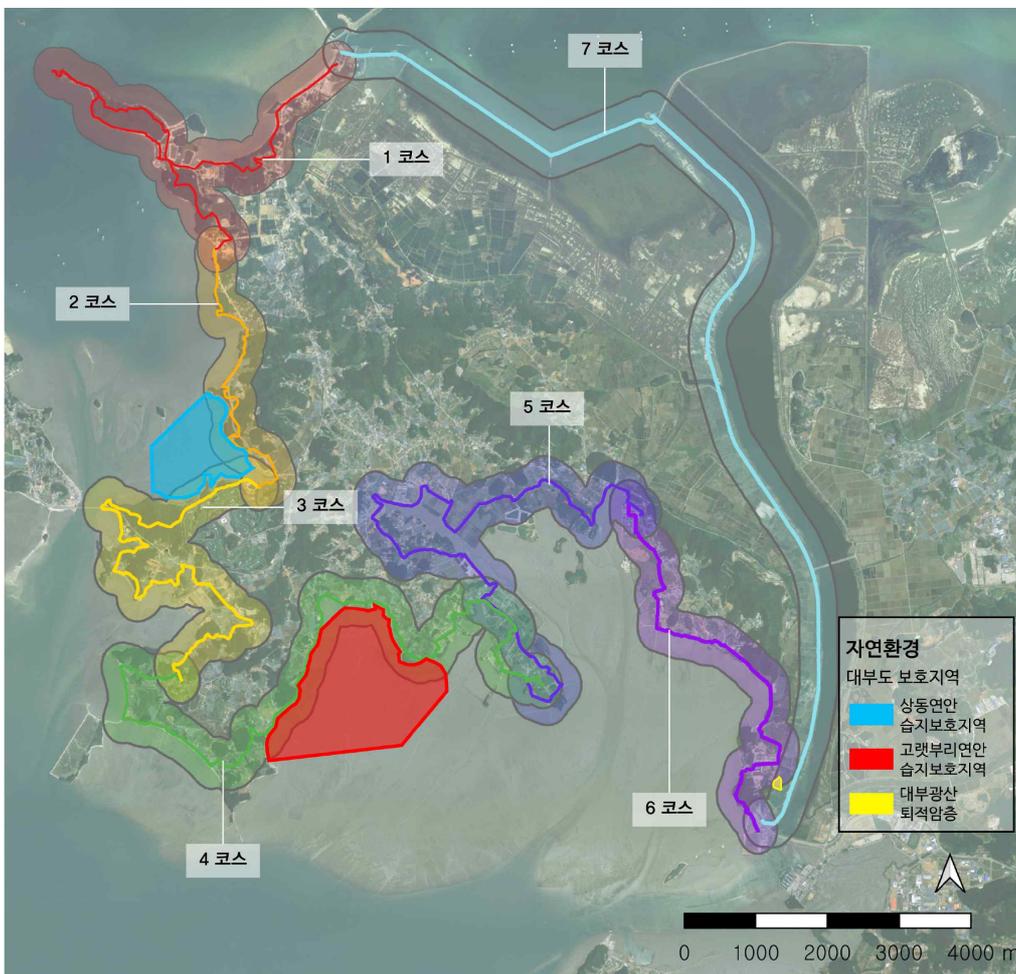
대부도의 수역은 전체 면적에서 총 29.28%를 차지한다. 수역의 전체 면적에서 해안습지 갯벌(31.55%)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해양수(24.95%), 내륙습지(7.62%), 하천(3.41%), 염전(0.22%)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대부도에 있어서 갯벌은 대부해솔길 전역에 걸쳐 주요 경관을 형성하며 높은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방문자들로부터 해양 생태계를 체험하게 하는 관광자원이다. 염전 또한 대부도만이 가지는 독특한 경관을 제공한다. 한때 대부도 전역에 40여 개의 염전이 존재했지만, 현재는 5코스 동주염전이 유일하다. 그 외 폐염전들은 현재 방치된 상태이거나 양식장, 낚시터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존재한다. 또한 대부도의 주요 하천인 시화호는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지역으로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경관을 제공한다.



[그림 4-3] 수역 GI 맵

■ 보호지역

대부도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상동 연안 습지’와 ‘고랫부리 연안 습지’가 있다. 대부해솔길 3코스과 4코스가 지나가는 이 지역은 안산시의 상징 중 하나인 노랑부리백로(천연기념물 361호)를 비롯하여 넓적부리도요(멸종위기1급), 검은머리물떼새(천연기념물 325호), 등 희귀 조류의 서식지로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상동 연안 습지’의 경우 2018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다. 또한 6코스과 7코스 인근 대부광산 퇴적암층은 1997년 중생대 백악기의 동·식물 화석이 발견되어 2003년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또한 이곳은 고고학적 가치뿐만이 아닌, 채석 과정에서 발생한 절벽과 웅덩이가 독특한 경관 형성하여 많은 도보 여행자들이 방문하는 주요 거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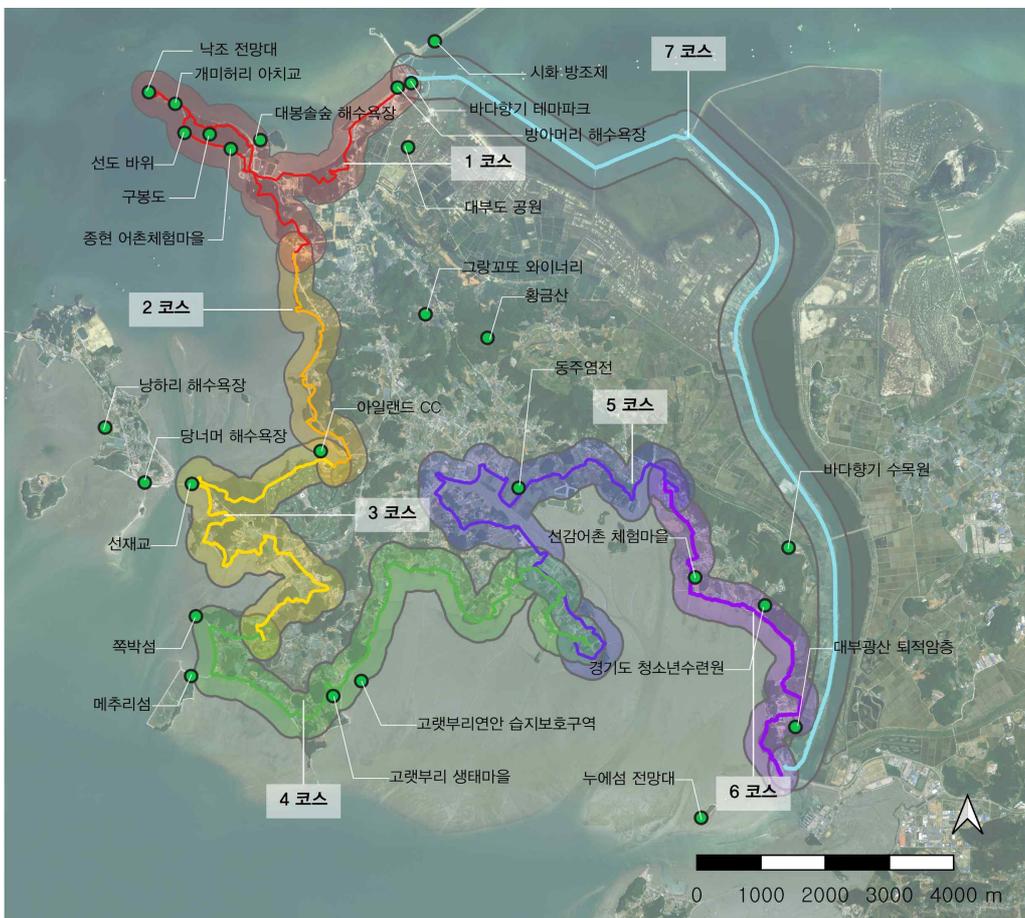


[그림 4-4] 보호지역 GI 맵

(2) 관광 및 편의시설

■ 자연·인문 관광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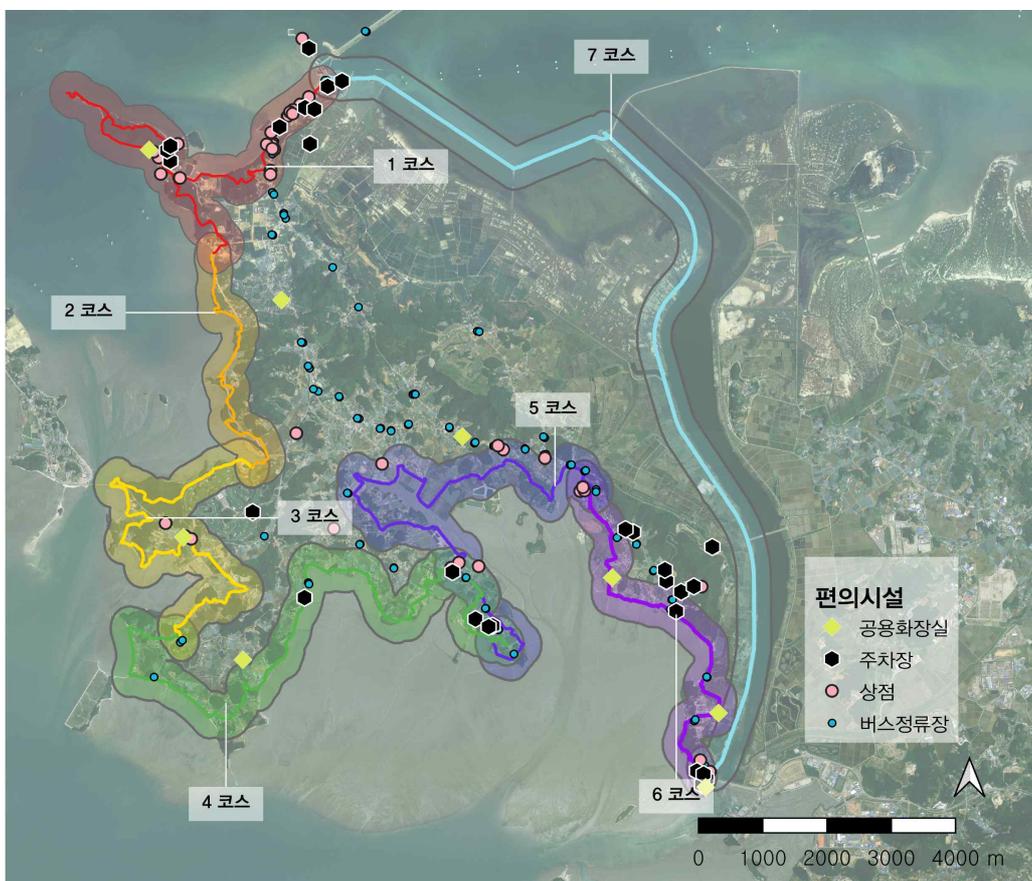
대부도는 고유문화 및 자연 자산을 활용한 관광자원이 다수 존재한다. 자연경관을 활용한 대표적 예로 구봉도 낙조 전망대, 탄도항 전망대, 방아머리 해수욕장, 황금산, 고랫부리 습지 보호구역, 대부광산 퇴적암층 등이 있다. 또한 자연 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요소로는 그랑꼬또 와이너리, 어촌 체험마을, 바다향기 수목원, 동주염전 등이 존재한다. 이중 상당수 관광자원이 대부해솔길 1코스가 지나는 북측에 집중되어 관광객 밀도가 높고 이로 인해 쓰레기 문제, 난개발,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산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관광객을 대부도 전역으로 분산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림 4-5] 자연·인문관광자원 분포도

■ 편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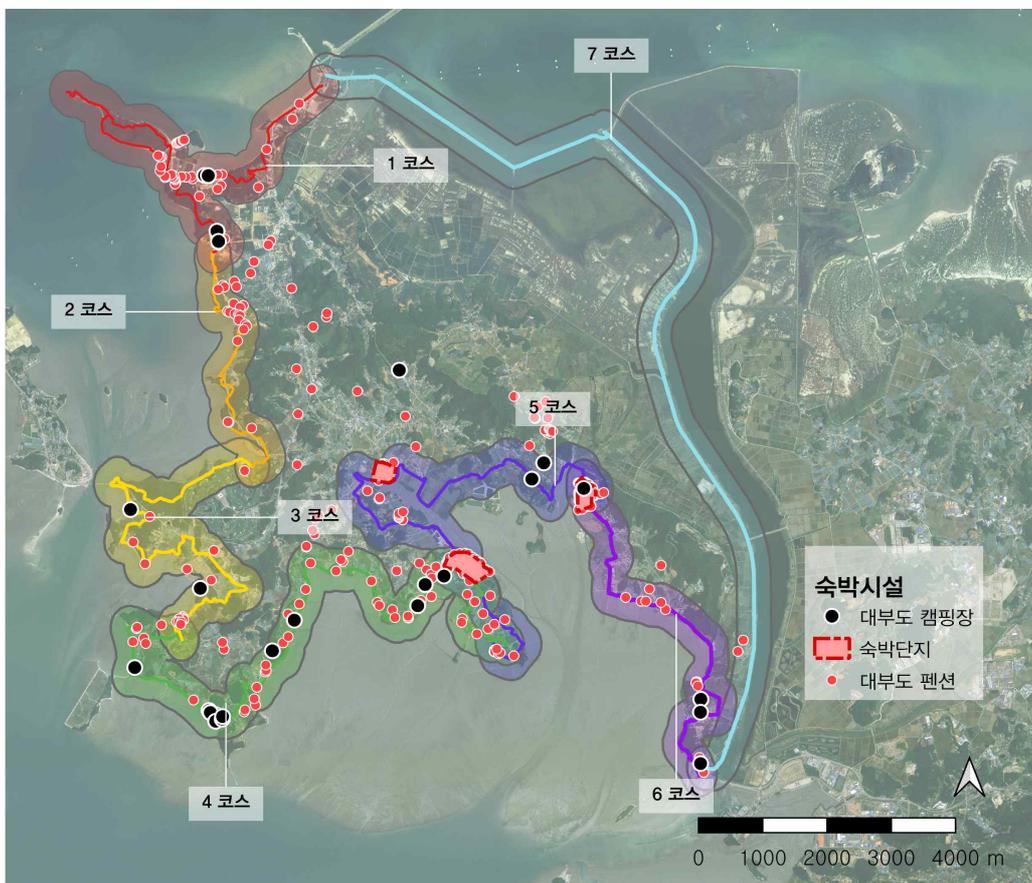
편의시설은 관광자원이 밀집한 1코스 주변으로 집중된 반면, 그 외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의시설이 존재한다. 펜션 등 숙박시설이 밀집한 5, 6 코스 주변으로 편의점과 같은 상점과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 대중교통의 경우 대부분 황금로를 따라 주요 버스 노선이 운행 중이고, 따라서 버스정류장도 해당 도로를 중심으로 분포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부해솔길 각 코스 기점에는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상황이다. 주차장 또한 대부해솔길 코스와 연계성이 떨어져 방문객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그림 4-6] 편의시설 분포도

■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편의시설과 달리 비교적 대부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다만, 숙박시설 대부분이 가족 및 친목 단체가 하루 이상을 머무는 펜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제주 올레길과 같이 도보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잠시 세면과 휴식을 취하기에 적합한 게스트하우스와 호스텔 등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 펜션들이 해안을 따라 밀집해 있어 보전 가치가 높은 갯벌에 훼손 위험이 존재하며, 높은 자연성을 선호하는 하이커들에게는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펜션이 경관을 해치는 인공적 요소로 작용한다. 끝으로 심층 인터뷰의 대상지였던 5, 6코스에는 펜션들이 밀집한 대규모 펜션단지가 존재, 이는 자연 자원을 테마로 조성한 대부해솔길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림 4-7] 숙박시설 분포도

2절 대부해솔길 5, 6코스 분석

ROS 모델을 활용한 대부해솔길 코스 분석은 현지 자연 특성을 반영하여 이용객들이 원하는 적절한 아웃도어 활동과 양질의 경험을 제공하며, 트레일 관리자로 하여금 효율적인 관리 및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ROS 개념을 이용하여 방문객 심층 인터뷰가 진행되었던 대부해솔길 5, 6코스의 자연성과 경관의 특징 등을 알아보려고 한다. 각 코스의 ROS별 특성을 토지이용 현황도를 활용한 GIS 분석을 통해 정리하였으며 그 기준은 [표 4-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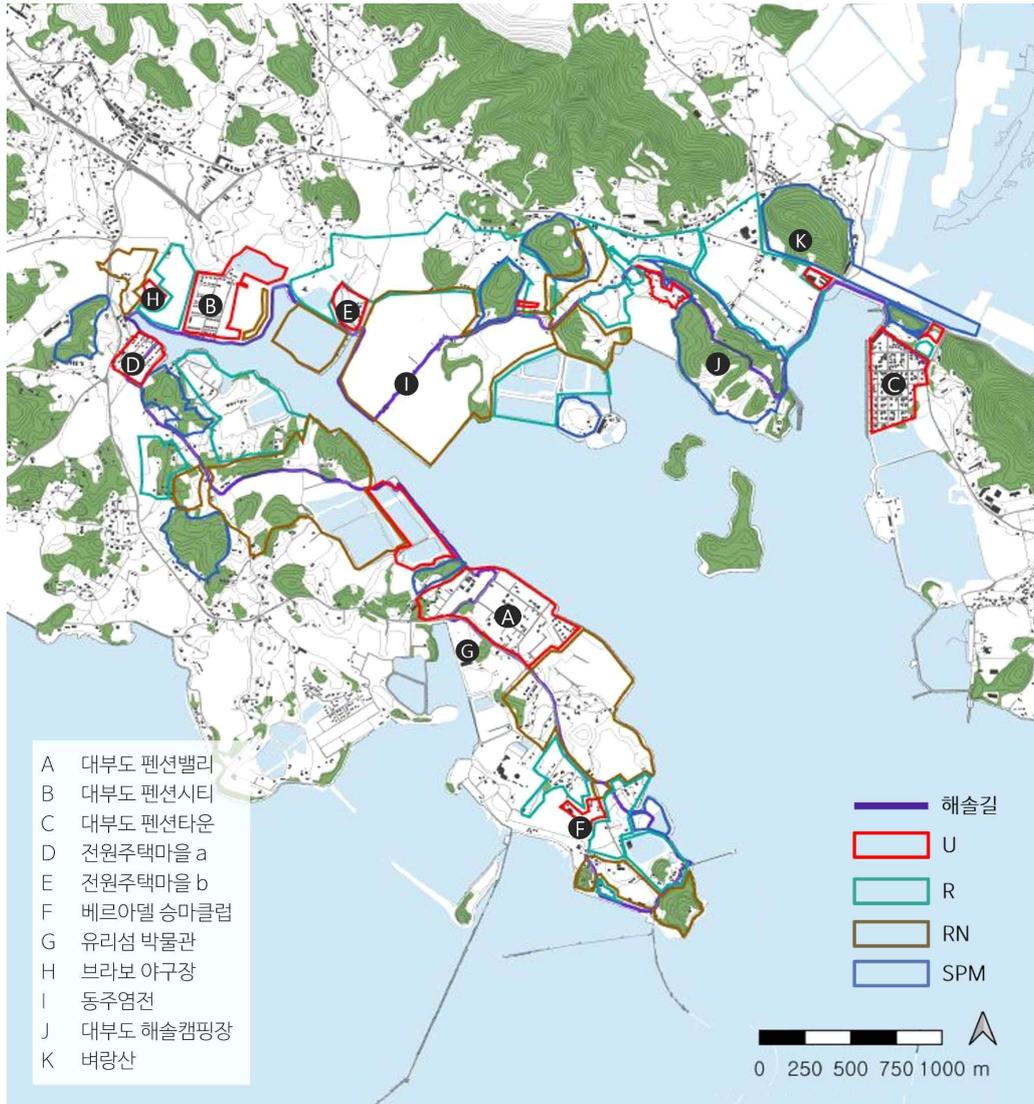
앞서 2장에서 미국산림청(USDA)은 [그림 4-8]과 같이 ROS 매뉴얼을 통해 6가지 분류 항목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부도의 경우 Primitive과 Semi primitive Non-motorized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Urban, Rural, Roaded Natural, Semi Primitive Motorized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표 4-2] ROS 위계별 분류 항목

항목	GIS 요소
U (Urban)	공동주거시설, 도로
R (Rural)	교육, 행정시설, 공업시설, 기타 공공시설, 기타재배지, 단독주거시설, 문화체육휴양시설, 상업업무시설, 운동장, 항만, 도로
RN (Roaded natural)	골프장, 과수원, 기타초지, 내륙습지, 목장, 묘지, 시설재배지, 염전, 하천, 해변, 호, 소, 도로
SPM (Semi primitive motorized)	강기슭, 경지정리 안된 논, 경지정리 안된 밭, 암벽, 바위, 하천, 해변, 침엽수림, 혼효림, 활엽수림

1. 5코스 분석

(1) 5코스 ROS 분석



[그림 4-8] 5코스 ROS 맵

출처 : 조경계획연구실(2020), 언택트 관광 대응 대부해솔길 이용자 인식 및 행태 분석 연구, 재구성

5코스 ROS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자면, 3개의 펜션 밀집구역과 전원주택단지의 Urban, 승마장과 박물관, 낚시터 등 문화체육관광시설 위주의 Rural, 갯벌과 염전 시설의 Roaded Natural, 산림형 길을 보유한 벼랑산 인근의 Semi Primitive Motorized 이렇게 네 가지지 특징적인 요소로 분류된다.

[표 4-3] 5코스 ROS 분석

코스	주요 공간	분석 내용
Urb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도 펜션벨리 대부도 펜션타운 대부도 펜션시티 전원주택 마을 해솔길 마을 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의 대규모 펜션단지가 밀집해 있어 해당 지역은 녹지가 부족하고 시가화 비율이 높음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 위를 걷게 되어 하이킹 질을 하락시킴 일부 노후화된 건축물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건축양식이 다소 혼란스러운 경관을 제공함 편의점, 카페 등이 존재하여 휴식의 기회 제공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전원주택 마을은 도시에서 흔하게 경험할 수 없는 이국적인 느낌을 제공함 일부 잘 가꾸어진 전원주택 정원은 긍정적인 경관적 요소로도 작용
Rur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르아텔 승마클럽 브라보 야구장 유리섬 박물관 대부도 해솔캠핑장 바다의별 관광농원 다수의 낚시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라보 야구장, 베르아텔 승마클럽, 유리섬 박물관 등 문화체육관광시설이 존재, 체험의 기회를 제공 휴식 및 숙박이 가능한 가족 단위 성격의 캠핑장. 하이커들이 선호하는 조용하고 작은 사이트의 스팟이 필요함 6개의 낚시터가 존재, 폐쇄적인 담벼락과 방문객들의 차량으로 붐비는 구간을 지나감 마을 주변으로 소규모 텃밭, 시설재배지 등이 존재하여 농촌 경관의 운치를 제공, 일부 관리를 하지 않아 버려진 듯한 인상을 주는 공간도 존재함 대부도 특산품인 포도를 재배하는 모습을 경험함
Roaded natur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주염전 동주염전체험장 폐염전 갯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주염전이 위치하여 생경한 경관을 제공 소금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가능 (기존 체험장을 정비하여 2023년 재개장을 계획 중) 갯벌 주위로 다양한 해양 생물을 경험 갈대숲과 염생식물 군락을 걸으며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경관을 제공함
Semi primitive motoriz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벼랑산 첫째골 가운데골 큰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 동산들 주위로 산림이 존재하여 오솔길과 그늘을 제공 고도차를 통해 해안 경관과 어촌마을 조망 가능

(2) 5코스 경관 분석



[그림 4-9] 5코스 경관분석 맵

5코스 특징적 경관 요소로는 갯벌 주위 제방길을 걸으며 마주하는 염생식물과 동주염전을 꼽을 수 있다. 전원주택단지와 펜션밀집지역 인근에 탁 트인 갯벌이 펼쳐지고 붉은색 염생식물이 어두운 갯벌의 색상과 매우 대조적인 색감을 전달한다. 동주염전은 흔하게 볼 수 없는 소금 생산지 모습을 경험하게 하며 알갱이 채워진 염수는 하늘과 구름의 형상을 비추어 감성적인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⁷⁹⁾. 또한 베르다텔 승마클럽은 제주도가 아닌 수도권 관광지에서 말들이 풀을 뜯는 여유로운 모습을 연출하며, 유리섬 박물관 정원을 통해 갯벌을 배경으로 설치된 조형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다. 부정적 경관으로는 동주염전의 소금창고의 낙후된 이미지, 곳곳에 투기 된 쓰레기와 폐기물, 전원주택단지 인근 위태로운 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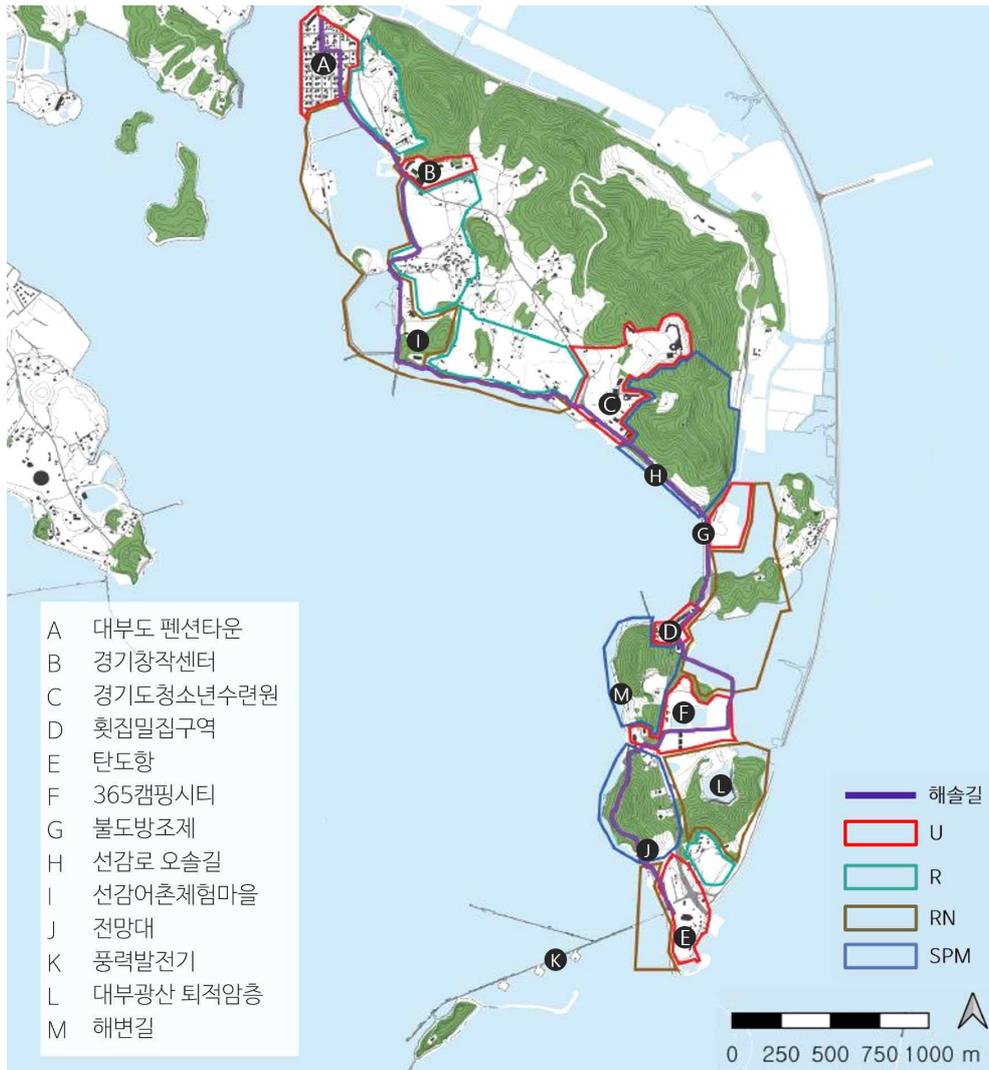
79) 이와 비슷한 경관을 관광지로 활용한 사례는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사막(Salar de Uyuni), 일본 카가와현 미토요시의 치치부가하마(父母ヶ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림 4-10] 5코스 주요 경관 사진

2. 6코스 분석

(1) 6코스 ROS 분석



[그림 4-11] 6코스 ROS 맵

출처 : 조경계획연구실(2020), 언택트 관광 대응 대부해솔길 이용자 인식 및 행태 분석 연구, 재구성

6코스의 Urban 지역은 펜션타운, 경기창작센터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365펜션타운, 탄도항 일대, 횃집 밀집구역 등으로 나타났다. Rural은 선감어촌체험마을과 경기청소년수련원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 Roaded Natural의 경우는 선감어촌체험마을과 그 주변 제방길 일대와 대부광산 퇴적암층 일대 등이다. Semi primitive motorized는 탄도항과 불도 방조제 인근 산림을 보유한 야산 등으로 나타났다.

[표 4-4] 6코스 ROS 분석

코스	주요 공간	분석 내용
Urb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도 펜션타운 경기창작지원센터 경기 청소년 수련원 횃집 밀집 구역 365 캠핑시티 탄도항 노을캠핑장 탄도항 민속어촌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펜션타운은 시가화 비율이 높아 녹지가 부족한 반면에 편의점, 카페 등 어메니티 시설이 존재 경기창작센터와 청소년 수련원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전시 및 행사의 장소 제공 횃집 밀집 지역은 원색적인 간판들과 낙후된 건축물, 주차장 등으로 혼란스러운 경관을 제공 차도와 함께 걷는 길이 존재하여 하이커가 위험에 노출되며 차량의 소음, 분진 등으로 하이킹 질을 급격히 떨어트림 탄도항 주변은 민속어촌박물관, 탄도항 노을캠핑장 등을 찾는 방문객들 차량으로 매우 혼잡함
Rur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감어촌체험마을 제방길 해솔길 주변 경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감어촌체험마을의 소박한 주택들이 어촌마을의 정취를 느끼게 함 선감어촌체험마을 주변 제방길은 갯벌을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으며 수산물을 채취하는 주민들의 생활상을 접할 수 있음 트레일과 취락지 주변으로 포도, 고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밭과 시설재배지는 농촌 경관을 제공함
Roaded natur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감어촌체험마을 인근 습지와 사구 대부광산 퇴적암층 탄도항 인근 갯벌과 풍력발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감어촌체험마을 인근 해안길은 염생식물, 게 등 다양한 갯벌 생물종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경험하게 하며, 작은 사구가 존재함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그 주변은 내륙습지, 절벽 등 특이적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쉽게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함 탄도항 주변 갯벌은 밀물과 썰물 각기 다른 경관을 연출하며, 해안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이질적이지만 독특한 이미지를 제공
Semi primitive motoriz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감로 숲길 해변길 탄도항 인근 숲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감로 주변 오솔길은 나무사이로 갯벌이 펼쳐지는 생경한 경관을 제공 횃집 밀집구역에서 탄도항사이에는 썰물시 이용할 수 있는 해변길은 파도로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기암괴석 지대를 지나감 수목들이 우거진 탄도항 인근 언덕 숲길은 산림이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고 고도차로 인한 전망대 등 조망 포인트가 존재함

(2) 6코스 경관 분석



[그림 4-12] 6코스 경관분석 맵

6코스⁸⁰⁾의 대표적인 긍정적 경관으로 갈대밭 사이로 설치된 자연 소재의 망루가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점, 습지 주변으로 초록의 갈대밭과 그 옆으로 정박한 작은 어선들이 주는 어촌의 정취, 썰물이면 드러나는 파도로부터 침식된 기암괴석들과 절벽, 탄도항과 풍력발전기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와 그 인근 야산의 숲길에서 나무 사이로 보이는 서해의 풍경, 채석장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부광산 퇴적암층 등을 꼽을 수 있다.

부정적 경관으로는 탄도항 주변 붐비는 노지 주차장, 캠핑장, 간이건축물 등이 혼란스러운 경관을 보여주며, 해변에 떠밀려온 쓰레기와 그 주변에 버려진 폐컨테이너, 일부 위험해 보이는 낭떠러지, 황금로 주위로 밀집한 복잡한 간판의 횃집들, 마지막으로 하이킹 트레일과는 거리가 먼 도시화 된 펜션 밀집 구역 등이 있었다.

80) 변경 전 6코스는 현재 6-1 코스로 활용 중



[그림 4-13] 6코스 주요 경관 사진

3절 심층 인터뷰

1. 심층 인터뷰 개요

(1) 인터뷰 방법

평소 하이킹을 취미로 동호회 활동을 하는 대부해솔길 방문객 8인과 대부도 내에서 시민단체 및 문화, 생산 활동 중인 지역 이해관계자 9인을 각자 약 1시간씩 대면으로 심층 인터뷰하였다. 기간은 2020년 8월 1차로 진행되었고, 추후 방문객의 표본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방문객 3인을 2021년 6월에 추가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방식은 방문객의 경우 대부해솔길 5, 6코스를 걸은 후 당일 대면 인터뷰하였으며, 지역 이해관계자는 해당 인터뷰 당사자가 머무는 대부도 내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녹취 후 문서화 했다.

[표 4-5] 심층 인터뷰 시간적 범위

기간	조사항목	내용
2020년 7월	사전 답사 및 예비조사	해솔길 전 코스 답사 및 현장 자료 수집
2020년 8월	심층 인터뷰 진행	해솔길 방문객 5명, 지역 이해관계자 9명
2020년 9월 ~ 12월	심층 인터뷰 분석	심층 인터뷰 녹취자료 문서화 및 분석
2021년 6월	보충 심층 인터뷰 진행	해솔길 방문객 3명 추가 인터뷰 진행
2022년 3월 ~ 6월	보충 심층 인터뷰 분석	추가 인터뷰를 반영한 심층 인터뷰 분석 보충

(2) 심층 인터뷰 대상

인터뷰 대상 선정은 방문객의 경우 지역 하이킹 트레일을 비정기적으로 걷는 소규모 하이킹 동호회 인들과 그 주변 지인들로 선정하였다. 지역 이해관계자의 경우 대부분 내에서 관광 및 문화 단체 소속 및 환경보호단체 활동, 지역 커뮤니티 운영 등 대부해솔길과 관련 있는 활동을 하는 단체 리스트를 안산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인터뷰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표 4-6] 심층 인터뷰 대상

대상	지역	성별	직업 및 역할	배경	
걷기 참여자	A	서울	남(46)	사업가	백두대간 종주, 올레길 종주 등 다수의 등산 및 하이킹 경험 보유
	B	시흥	여(32)	회사원	해외 트레일 경험 및 하이킹 동호회 활동 중
	C	서울	여(36)	회사원	다수의 국내 하이킹 경험 및 동호회 활동 중
	D	안동	남(33)	교사	사막 마라톤, 트레일 러닝 등 아마추어 대회 참가
	E	안동	여(34)	공무원	지역 하이킹 트레일 담당 공무원
	F	성남	여(29)	회사원	하이킹 입문자
	G	서울	여(31)	회사원	걷기, 씨티러닝 등 아웃도어 취미 활동
	H	서울	남(39)	회사원	국내외 트레일 경험 다수
이해관계자	I	안산	남(57)	활동가	안산시 환경단체 시민 활동가
	J	안산	남(47)	체험마을 운영	대부도 내 체험마을 운영 및 관리
	K	안산	남(60)	염전 운영	대부도 내 염전 운영 및 관리
	L	안산	남(56)	수목원 관리	대부도 내 수목원 운영 및 관리
	M	안산	여(49)	활동가	안산시 환경단체 시민 활동가
	N	안산	여(41)	체험마을 운영	대부도 내 체험마을 운영 및 관리
	O	안산	여(57)	협동조합 운영	대부도 생태마을 협동조합 운영
	P	안산	남(53)	박물관 운영	대부도 내 박물관 운영 및 관리
	Q	안산	남(60)	공무원(퇴임)	대부해솔길 계획 참여

(3) 인터뷰 질문 사항

심층 인터뷰의 질문은 개방형(open-ended question)으로 진행되었다. 대면 상황에서 인터뷰 대상자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며 대부도 및 해솔길 현안과 과제에 관한 개인적 견해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형화된 질문 내용과 패턴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제작한 것은 아니며, 인터뷰가 끝난 후 대략적인 질문의 흐름을 걷기 참여자는 [표 4-7], 이해관계자는 [표 4-8]과 같이 정리했다.

방문객의 경우 하이킹 문화로 유입된 배경, 하이킹 문화가 기존의 걷기 문화와 차별화되는 지점, 본 연구를 통해 대부해솔길을 경험하고 느낀 사안 등을 중심으로 질문했다. 하이킹 배경과 매력 등은 방문객이 하이킹 행위를 통해 무엇을 중점적으로 추구하는지 알기 위함이며, 해솔길 관련 사안 질문을 통해 이용자 입장의 해솔길 장, 단점과 개선점 등을 찾기 위해서이다.

지역 이해관계자의 경우 방문객과 달리 전반적인 대부도 현안에 대해 이해도가 높으며, 따라서 대부해솔길이 가진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바라보는 대부해솔길은 무엇이고, 개선되기 위해 어떠한 방법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찾고자 했다.

[표 4-7] 방문객 인터뷰 질문 예시

질문 항목	세부 내용
하이킹 배경 및 경험	하이킹 행위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기존 등산과 하이킹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경험했던 하이킹 트레일 중에 매력적인 곳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하이킹 트레일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해솔길 걷기 배경	해솔길 걷기 참여 동기 및 목적은 무엇인가?
	함께 참여한 일행은 어떻게 되는가?
	해솔길 걷기 총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대부도 진입시 이동수단은 무엇인가?
대부도 특징, 이미지, 자원	대부도의 특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평소 대부도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
	대부도 주요 자연, 경관 및 관광자원은 무엇인가?
관광자원 관리 수준	주요 자연, 경관, 관광자원이 잘 활용 및 관리되고 있다고 보는가?
해솔길 장점 및 단점	해솔길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해솔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운영 및 관리	길의 상태 및 관리는 적절해 보이는가?
	코스의 길이와 위치가 적절해 보이는가?
	코스 인근에 쓰레기 등 혐오시설 및 방해요인이 있었는가?
	이정표, 지도 앱 등 코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가?
	기타 해솔길 개선사항 등
시설물, 편의시설 등	이정표, 벤치, 화장실 등 시설물이 잘 배치되어 있다고 보는가?
	이정표, 벤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는가?
	숙박시설 및 야영장이 충분한가?
	해솔길 이용자에게 숙박시설 및 야영장이 적합한 형태인가?
	기타 시설물, 편의시설 개선사항 등
해솔길의 기능	대부도에 해솔길이 가지는 역할은 무엇인가?
	해솔길을 통한 대부도 관광 활성화에 대한 생각은?
	해솔길이 대부도 자연 및 관광자원과 잘 연계되고 있는가?
	해솔길이 대부도 지역 커뮤니티와 잘 연계되고 있는가?
	해솔길을 걸으며 지역민과 교류가 있었는가?
코로나 이슈	코로나 상황 이후 비대면관광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나?
	코로나 상황 이후 도보 여행에 대한 변화는 무엇인가?
	코로나 상황 이후 우려되는 대부도와 해솔길 현안은 무엇인가?

[표 4-8] 지역 이해관계자 인터뷰 질문 예시

질문 항목	세부 내용
해솔길 경험	해솔길에 대한 경험은?
	해솔길의 매력은 무엇인가?
해솔길 개선 과제	해솔길 개선 과제는 무엇인가?
대부도 주요 자원과 활용	대부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대부도 주요 관광자원은 무엇인가?
	대부도 주요 자연 및 경관자원은 무엇인가?
	이러한 자원들이 잘 관리되고 활용되고 있다고 보는가?
대부도 현안	현재 대부도의 개발, 관광, 인프라 등 현안은 무엇인가?
해솔길 기능 및 지역 연계	해솔길이 참여 중인 기관(혹은 프로그램 등)에 도움이 되는가?
	해솔길이 대부도 자연 및 관광자원과 잘 연계되고 있다고 보는가?
	해솔길이 대부도 지역 커뮤니티와 잘 연계되고 있다고 보는가?
	해솔길을 통한 대부도 관광 활성화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해솔길이 대부도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코로나 상황 이후 대부도 현안	코로나 상황 이후 비대면 관광에 대한 생각은?
	코로나 상황 이후 달라진 대부도 현안은 무엇인가?
	코로나 상황 이후 우려되고 개선되어야 할 대부도 현안은 무엇인가?

2. 주요 심층 인터뷰 내용

(1) 방문객

■ 하이킹 유입 배경 및 행태

걷기 문화가 기존 등산 문화에서 하이킹 문화로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부해솔길 방문객들이 느끼는 하이킹의 매력은 무엇이며 본인은 어떠한 이유로 유입이 되었는지, 하이킹 이용자들의 행태는 어떠한 기존 걷기와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표 4-9] 방문객의 하이킹 유입 배경 및 행태 주요 인터뷰 내용

대상	주요 인터뷰 내용
A	<p>하이킹을 시작한 지 6년가량 되었다. 서울에 살아서 그런지 도시를 벗어나 걸으며 자연을 즐기는 것이 하이킹의 가장 큰 매력으로 생각한다. 압도적이고 멋진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는 상당히 깊숙한 숲이나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과 더 먼 곳으로 가야만 한다. 만약 하이킹을 즐기는 인구가 더 많아진다면 도시 근교에 매력적인 자연을 보유한 트레일이 생겨날 것이고, 한국의 야생을 느끼게 해주는 와일드 트레일 같이 조금 더 다양한 길, 다양한 걷기 장르가 정착될 것 같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진 걷기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부족해 보인다. 그 이유는 현재도 걷기 문화를 즐기는 이들은 지리산과 설악산과 같이 특정 유명한 등산로에 집중되며, 걷기는 곧 ‘등산’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이들이 상당수라 생각하기 때문이다.</p>
B	<p>하이킹은 걷기 행위를 통해 생각을 비울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그리고 차로는 쉽게 지나치고 주요 관광지만 둘러보게 되는 것과는 다르게, 지역을 걸으며 국토 깊숙한 곳을 경험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다.</p> <p>하이킹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여행의 시간을 더 계획적으로 활용하게 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나 맛집 등을 사전에 체크하고 동선을 계획하게 된다.</p>
C	<p>하이킹을 취미를 가지고 신체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걸으며 마주하는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다. 특히 하이킹이라는 같은 취미를 가진 이들과 함께 걸으면 사회에서의 만남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느낀다. 또한 그전에는 매년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하이킹을 접하게 되면서 국내 여행에 대한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다.</p>

D	<p>현대인들이 도시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치곤 한다. 하이킹을 통해 자연과 마주하는 것은 정신적인 휴식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나를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 같다.</p>
E	<p>일상에서 산책 겸 도심 강변길을 걷는 수준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자연에서 장거리를 걷는 취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최근 제주 올레길 1~3코스를 걸었던 경험이었다. 올레길은 자연을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지역 마을을 방문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매우 다채로운 경관을 제공해 주는 길이어서 매우 좋았다.</p>
F	<p>4년 전 등산을 시작하면서 걷기 취미를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운동개념으로 등산을 시작했는데, 다른 운동들보다 등산이 더 흥미가 있어서 회사안과 밖에서 동호회를 가입하면서 등산이 본격적인 취미 활동이 되었다. 그 후 코로나 상황으로 등산과 함께 일상에서 걷기와 오늘같이 지역에서의 하이킹을 취미로 즐기고 있다.</p> <p>등산과 하이킹이 다른 점은 등산은 ‘격한 운동’의 느낌이다. 그리고 등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보고 느낀 점은 ‘어느 산을 올랐다’라는 것을 인증하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 같다. 그들은 등산이라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자기관리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남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보인다. 반면에 하이킹은 ‘걷기’라는 행위 자체에 진심인 느낌을 받았다. 하이킹은 등산처럼 ‘정상에 올랐다’라는 목표 달성을 남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기에 그런 것 같다.</p>
G	<p>평소에도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 도심에서의 걷기는 차도 많고 공기도 안 좋아서 아쉬움이 있다. 반면에 도심을 벗어난 자연에서의 하이킹은 사람도 붐비지 않고 도심과는 확연히 다른 자연의 풍경이 펼쳐져 있기에 먼 곳을 오는 수고를 고려해 보아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차가 없다고 하면 약간은 불편하겠지만 한두 시간 거리라면 충분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라도 근교 하이킹을 경험할 가치가 있다.</p>
H	<p>수직적인 요소가 많은 등산과는 달리 하이킹 트레일은 수평적이다 보니 체력적인 부담도 덜하고 들머리 날머리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중간에 합류하고 빠지는 것과 국간 각자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 반면에 등산의 경우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구간을 나누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레길이나 둘레길, 하이킹 트레일을 많이 걷기도 하는 것 같다.</p> <p>기존 등산 위주의 걷기 문화가 중장년층이 대부분이었다면, 하이킹 형태의 걷기 문화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소구하는 문화로 인식된다. 점차 걷기 레저를 즐기는 20대가 늘었고, 기존 남성만의 문화에서 벗어나 여성들의 유입 역시 늘어나는 것 같다.</p>

■ 대부해솔길 인식 및 개선사항

걷기 참여자들은 대체로 하이킹 트레일의 경험이 많은 이들로 구성되었다. 기존 트레일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통해 경험한 대부해솔길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그 내용은 대부도의 자연 및 경관 등 생태적 자산에 관한 내용부터 시설물과 트레일 컨디션 등 편의성 측면까지 다양했다. 핵심은 참여 기간 걸으며 느낀 대부해솔길이 매력적인 하이킹 트레일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다.

[표 4-10] 방문객의 대부해솔길 인식 및 개선사항 주요 인터뷰 내용

대상	주요 인터뷰 내용
A	서해안의 많은 트레일을 방문해 보았다. 서해가 가지고 있는 낮은 산과 지형, 다채롭지 못한 식생은 울창한 숲과 같은 높은 자연성을 보유한 트레일들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압도적인 경관 스케일, 농·어촌마을의 정취 역시 부족하다. 서해안 트레일의 이러한 단점은 결국 테마와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B	위치를 안내하는 이정표, 리본 등이 대체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느꼈다. 갈림길 바닥에 표시된 화살표가 인상적이었고, 코스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반면, 해변에 방치된 폐기물들이 시각적으로 불편했다. 특히 6코스 해변을 걷는 길은 방치된 쓰레기로 인해 해변 경관을 감상하기 보다 발밑에 쓰레기를 더 신경 쓰며 걸어야 했다.
C	평소 다양한 하이킹 트레일을 혼자 다니곤 하는데 안산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때문인지, 선뜻 여자 혼자 걷는 것에 대해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해솔길을 걸으며 오로지 자연을 걷는 트레일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불안한 느낌을 받았다. 특히 버려진 폐컨테이너 등 방치된 느낌이 드는 지역을 지날 때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D	하이커들을 위한 숙박시설과 야영장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비대면 이슈가 있는 요즘은 더욱 지역 숙박시설 이용을 꺼리게 돼서 야영을 주로 하게 된다. 대부도 야영장들은 도보 여행자가 이용하기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 형태로 보인다. 하이커들의 경우 작은 텐트를 가지고 다니기에 큰 텐트 사이트가 필요하지 않고, 조용하고 자연이 좋은 야영지를 선호한다. 현재 대부분 대부도 야영장은 가족, 친지와 방문하기에 적합한 것 같다. 제주도의 경우 올레길을 걷는 이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뿐만이 아니라, 잠시 잠만 자고 이동할 수 있는 깔끔한 1인 호텔도 생겨났을 정도로 숙박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숙소들은 여행자들의 커뮤니티 공간 제공은 물론, 요가와 명상 등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액티비티 프로그램 등 지역과 연계하는 기능도 가진다.

E	<p>전체적으로 고즈넉한 시골마을 길을 표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펜션이 과도할 정도로 많았다. 특히 일부 구간의 경우는 마치 펜션을 구경하러 이 길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일부 차도와 혼재된 구간은 개선이 시급해 보일 정도로 위험했다.</p> <p>염생식물이 서식하는 갯벌 경관이 인상 깊었다.</p>
F	<p>길을 걸으면서 보다 가깝게 자연을 느끼고 싶고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다. 하지만 해솔길은 자연과 밀접하게 닿아 있지 않아 아쉬웠다. 오늘도 걸으며 소금과 갯벌을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이 곳에서 일하시는 주민들의 생활상을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싶었다.</p> <p>벤치가 있어도 땀별에 있는 등 앉아서 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곳들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 벤치를 쉬라고 만들어 놓은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코스를 걸으며 잠시라도 경치를 즐기며 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 보인다. 더위로 여름에 걷는 것을 평소엔 하지 않는데, 해솔길 역시 더위를 막아주는 장치가 부족해 보였다.</p> <p>염전의 아쉬운 점은 일부는 물이 많이 말라 있었고 특정 구간은 냄새도 났다. 소금창고 역시 허름해 보여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았다.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염전’ 이란 장소에 기대가 있었지만, 낡은 모습 때문인지 폐염전을 경험한 것 같아 아쉬웠다. 이 구간을 조금 더 정갈하게 정비한다면 좋을 것 같다.</p>
G	<p>바다가 인접한, 수려한 자연을 품은 시골 어촌마을을 상상하고 와서 그런지, 대부도 경관이 조금 모호하게 느껴졌다. 과도한 포장되어 있는 길 등, 농촌경관을 원했지만 그렇지 않는 모습에 이질감이 들었다.</p> <p>차들이 빠르게 다니는 도로를 지나는 구간에서는 인도, 혹은 안전을 위한 시설물들이 더 보강되었으면 한다. 오늘도 코너에서 차가 오고있는지 몰라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다.</p>
H	<p>해솔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걸을 수 있는 하이킹 트레일 컨셉을 의도한 것 같은데 문득, ‘과연 여자 혼자도 걸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낮설고 으스스한 구간들이 있다. 트레일을 만들 때 주로 중장년층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 계획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 다른 연령, 다른 성별의 시각이 잘 반영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 여성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p> <p>경쟁력 측면에서는 ‘왜 꼭 해솔길을 걸어야 하지?’ 라는 것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지 ‘대부도에도 하이킹 트레일이 있다.’, ‘길을 만들어 냈으니 사람들이 오겠지’ 라는 접근을 하기에는 이미 서울과 수도권에 좋은 길들이 많다. 사람들이 대부도까지 와서 하이킹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충족시킬만한 매력적인 요소가 필요해 보인다. 단지 갯벌만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걷는 것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p>

(2) 이해관계자

■ 대부도 현안 및 과제

지역 이해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대부도의 난개발을 우려하며 대부도의 자연 자원을 보전하는 관광기조가 형성되길 원하고 있다. 나아가 특정 지역에 쏠리고 있는 관광자원을 분산 시켜 대부도 전역에 균형있는 발전과 인프라 확충을 기대한다. 그 과정에는 지역 현안을 다루는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외부에서 유입된 이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표 4-11] 이해관계자의 대부도 현안 및 과제 주요 인터뷰 내용

대상	주요 인터뷰 내용
I	<p>대부도에 다양한 개발사업이 계획 중인 것으로 아는데, 우선적으로 전반적인 인프라에 대한 정비가 더 시급해 보인다.</p> <p>시화호 사업 등 지금까지 대부도에 집약되었던 다양한 환경 이슈들을 반면교사 삼아, 매립지 일부를 국가공원급 울창한 숲으로 조성했으면 한다.</p>
J	<p>원주민의 고령화 및 이탈 현상과 펜션 등을 운영하기 위한 외지인 유입이 늘면서 마을 사안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주민이 점점 부족해진다. 펜션, 주택, 별장 등이 마을에 하나 둘 들어서며 어느새 이 마을에는 원주민보다 이주민들이 더 많아졌다. 이들은 원주민들과 달리 마을 사안에 대해 참여 빈도나 태도가 많이 다르다. 마을 정화활동과 같이 함께 해야 하는 활동을 마을회관에서 방송해도 대부분 참석하시는 분들은 고령의 원주민들이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대체로 펜션을 운영하거나, 별장 등으로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마을 현안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편인 것 같다.</p>
K	<p>어릴 적에는 황금산이 어디서든 보였을 만큼 높았다. 황금산은 이곳 대부도 사람들에게 풍부한 자원을 공급해주는 매우 가치가 높았다. 그러한 상징이 여러 이슈로 깎여나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쪽을 바라보면 늘 허전한 마음이 든다. 앞으로는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개발이 중요해 보인다.</p>
L	<p>대부도가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 일부 지역은 배차간격도 너무 길고 구석구석 버스 노선도 부족하다. 이것이 개선된다면 이동과 자동차로 정체로 인한 불편함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 같다. 또한 효율적인 분산을 위해서는 도로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한편으론 그렇게 되면 근처 선재도와 영흥도로 관광객들이 이탈되는 우려도 있다.</p>

M	<p>개발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지 우려스럽다. 기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 외에도 시화방조제 인근 습지와 대부광산처럼 보호종이 서식하는 등 자연성이 높은 곳들이 아직 많이 존재한다. 현재 대부도가 보유한 생태자원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들어 대부도 특정지역은 ‘개정향풀’ 처럼 보전 가치가 높은 군락지인데 생태자원에 대한 기초조사가 미흡하다 보니 개발로 인해 쉽게 사라진다. 생태조사를 바탕으로 보호종들의 실질적인 스텝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정책안을 수립하여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p>
N	<p>처음 이곳에 정착했을 때 보다 어획량이 많이 줄었다. 예전에는 소라, 바지락, 굴 작업 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 시화호 방조제 사업 이후 물 깊이가 바뀌었고 이는 어획량에 감소로 이어졌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는 주민 개개인이 채취하는 수준으로 어획량이 많이 줄고 있다. 주민분들의 연령대 역시 높아지면서 육체적으로도 조업 활동도 어렵다고 본다. 마을에 젊은 층은 매우 소수이고 대부분 60대 이상 분들로, 주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p> <p>펜션들을 보면 건축물 특성상 인스턴트식으로 십 년 정도면 금방 낡은 건물이 되어 버려서 미관적으로 좋지 않고 폐기물 부자재들 역시 많이 나온다. 그러한 것들이 대부도의 매력을 떨어트리고 있다.</p> <p>차박 인구가 급격히 늘었는데 마을 방조제처럼 주민 기반 시설에 물리면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p>
O	<p>대부도 마을간 정기적 모임과 소통이 더 활발했으면 한다. 마을간 연대는 각 마을이 개선되고 대부도가 골고루 성장하는 배경이 된다. 지역 거점에 사는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해솔길 등 지역 활성화에 대한 토의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을 가지고 마을 구성원과 안산시가 함께하는 협의의 장이 필요해 보인다.</p>
P	<p>버스 정류소 명칭이 마을이 아닌 관광지 이름으로, 일본 관광 소도시들처럼 디자인이 우수한 투어버스 등 대중교통 인프라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방아머리에 있는 대부도 관광안내소는 유럽의 광장같은 거점기능이 부족해 보인다. 광장을 활용하여 지역 먹거리를 판매하는 마켓 등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p> <p>대부도 고유의 테마 개발이 보다 필요해 보이는데, 김홍도와 포도, 염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축제와 기념품같이 다양한 경로로 발전이 가능하다.</p> <p>안산시는 박람회 등 국제규모의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나 호텔이 없는데 이를 대부도에 적용해도 좋을 것 같다.</p>
Q	<p>대부도 환경을 담은 생태관광마을들이 더 활성화되고 생겨났으면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크고 작은 개발들로 대부도가 보유한 자연의 매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과도한 관광개발 보다는 생태적 자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기초가 필요하다. 자연의 매력이 있는 곳들, 생태관광을 추구하는 곳들이 지속성을 가진다고 본다.</p>

■ 대부해솔길 인식 및 개선사항

지역 이해관계자들은 방문객 그룹과 달리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주민 혹은 관리자의 시각에서 대부해솔길 사업을 바라보고 있다.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개선, 지역과의 연계, 도로 등 인프라 확충과 같이 대부해솔길을 통해 지역이 얻는 혜택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방문객과는 차별화된다.

[표 4-12] 이해관계자의 대부해솔길 인식 및 개선사항 주요 인터뷰 내용

대상	주요 인터뷰 내용
I	개인적으로 해솔길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도의 부족이라 생각한다. 차도와 함께 쓰고 있는 길이 대부분이라 인도와의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해솔길 내 응급시설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본다.
J	차박으로 인해 해솔길 주변 해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졌다. 고맙게도 가끔 해솔길 걸으시는 분들이 자발적인 환경정화 활동으로 봉투를 들고 다니시며 쓰레기를 수거해 주신다. 하지만 그분들께서는 지정된 장소를 알 수 없기에 채워진 봉투를 해솔길 위에 그냥 두고 가시는 경우가 있다. 마을 주민들이 모아둔 쓰레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환경미화 차가 들어오는 큰 길가로 옮겨야 한다. 또한 쓰레기차는 매일 오는 것이 아니라서 그때까지 도로변에는 미관상 좋지 못한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있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마다 쓰레기를 모아두는 지정된 수거 공간이 필요하다.
K	7코스는 현재 막아 둔 상태로 알고 있다. 그곳에 기회가 되어 가보았는데 철새들, 습지의 상태 등 자연성이 현재 해솔길 그 어느 코스보다도 좋아 보였다. 그래서 현재 막혀 있는 7코스 시화호 길을 정비하고 다시 오픈하였으면 좋겠다. 대부도 자원인 염전을 지나는 코스에는 염전 직원들이 쓰는 간이 화장실을 개방해 두긴 했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보니 해솔길 방문객들이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염전처럼 대부도의 랜드마크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포토존이 필요하다.
L	해솔길 일부 코스가 수목원을 지나고 있어 해당 코스를 지나는 이들의 안전 및 수목원 시설물 훼손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렇듯 해솔길이 지나는 구간에 인접한 시설 및 기관 이해당사자들 간에 조율이 필요하다.

M	<p>특정 구간만이 아닌 대부도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1코스 같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구간이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비교적 쓰레기 관리가 잘 되는 편이다. 반면 그 외 지역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다. 특히 6코스 해변길 주위에 투기 된 냉장고, 컨테이너 등 대형 폐기물과 바다에서 밀려온 폐어구 등을 다수 볼 수 있다.</p>
N	<p>해솔길 인근 일부 체험마을 화장실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있다. 하지만 마을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함께 사용하는 곳이기도 하고 캠핑 이용객이 없어도 24시간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다.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인적 사항과 온도 등을 모두 체크해야 하기에 더욱 그렇다. 반면에 시의 지원은 두루마리 휴지 몇 개와 턱없이 낮은 지원금으로 매우 저조한 편이어서 개방형 화장실과 기타 시설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벅찬 현실이다. 추가적인 비용 역시 체험마을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p>
O	<p>현재 대부도의 많은 펜션과 캠핑시설은 해솔길과 연계성이 떨어진다. 주로 외지인들이 유입되어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현실에서 지역 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해솔길이 이용객이 민박, 마을회관 등을 이용하면 농어촌 주민들의 수입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펜션과의 이해관계 문제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p>
P	<p>해솔길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장기적인 일관성이 필요하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기존 매뉴얼을 따르기 보다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고 디테일을 바꾸는 것이 아쉽다.</p> <p>투입되는 비용 대비 인도, 공공 화장실, 대중교통 등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p> <p>현재 많은 숙박시설이 있지만, 대부분 펜션 형태라 이는 해솔길 이용자들에게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 공공기관 시설을 연계한 도미토리, 민박 등 활성화가 필요하다.</p>
Q	<p>개발로 인해 해솔길 역시 자꾸만 끊어진다. 개발 외에도 해솔길을 찾는 일부 이용객이 농작물이나 야생화에 손을 데거나 쓰레기를 투기하고 그로 인해 피해받는 주민들이 해솔길을 의도적으로 막아 놓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코스가 자꾸만 바뀌고, 지도도 계속 업데이트 해야한다.</p> <p>트레일을 걷는 이들은 시멘트, 아스팔트 도로를 걷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데 위 이슈들을 통해 어쩔 수 없이 해솔길 루트를 도로 위로 두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꾸만 해솔길의 매력력이 떨어진다. 그 대안으로 공유수면을 활용하려고 하면 법적인 허가 문제가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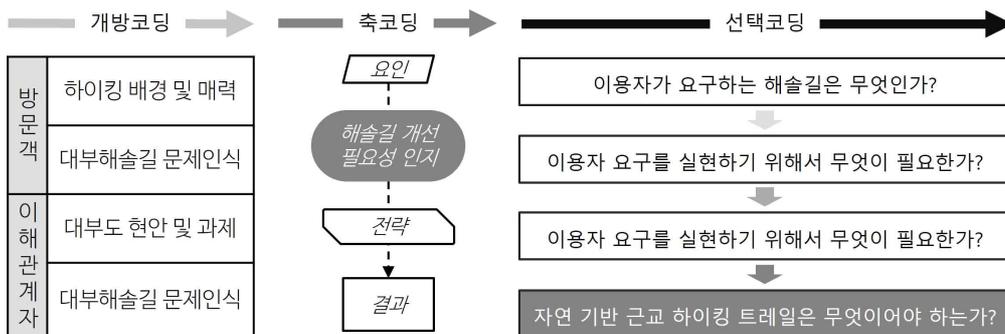
4절 심층 인터뷰 분석

1. 근거이론 분석과정

대부해솔길 방문객과 이해관계자의 심층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수행과정은 [그림 4-13]과 같으며 그 내용으로는 첫째, 개방코딩을 통해 방문객과 이해관계자의 인터뷰를 개념화 및 범주화한다. 방문객은 어떠한 이유로 하이킹에 입문하게 되었는지, 하이킹 트레일의 매력은 무엇이며 본 연구를 통해 경험한 대부해솔길의 장점과 단점, 개선사항 등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위범주를 도출한다. 이해관계자의 경우 지역민으로써 인식하는 대부도와 대부해솔길의 현안 및 과제를 범주화한다.

둘째, 앞서 개방코딩으로 도출한 상위범주를 이용하여 축코딩을 수행한다. 대부해솔길의 문제점은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등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나타낸다.

셋째, 개방코딩과 축코딩으로 파악한 대부해솔길 내용과 키워드로 선택코딩을 진행하여 본 논문이 궁극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의 개념과 방향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



[그림 4-14] 근거이론을 활용한 심층 인터뷰 분석과정

2. 개방코딩

(1) 방문객

■ 하이킹 입문 배경 및 확산요인

[표 4-13] 방문객의 하이킹 입문 배경 및 확산 요인 개방코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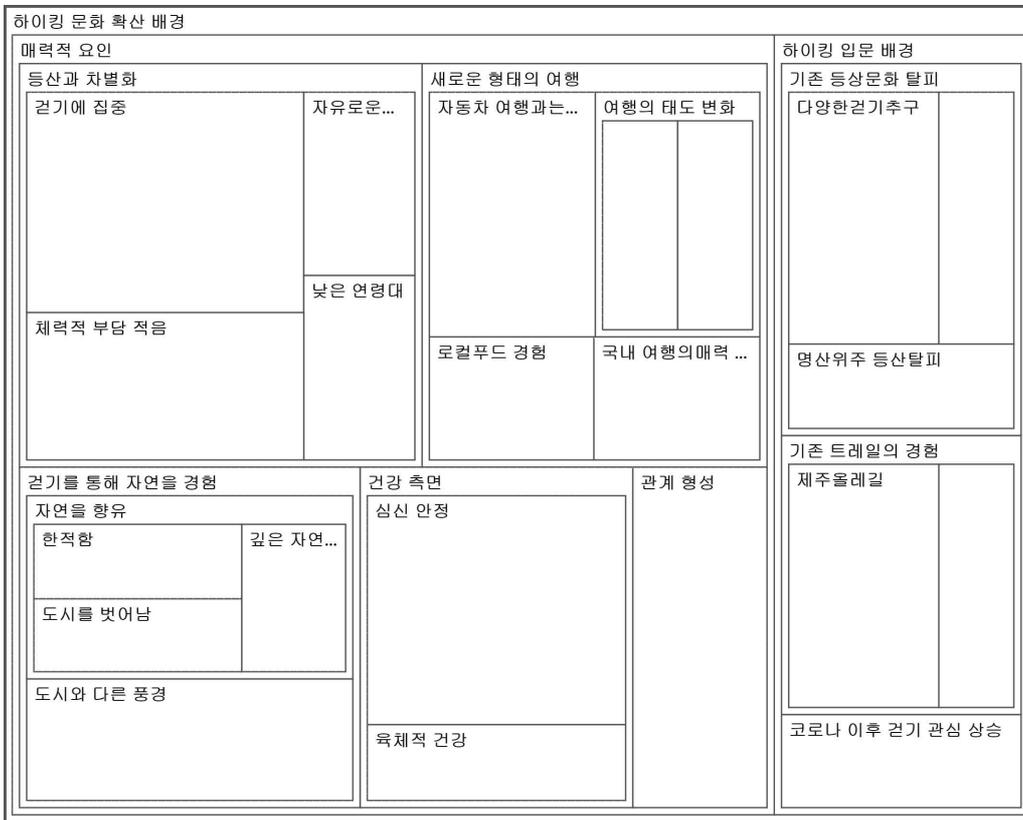
주제	상위범주	하위범주 (의견 수)	세부 내용 요약
하이킹 입문 배경	새로운 형태의 걷기 레저 추구	기존 등산 문화 탈피(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객의 상당수는 등산을 통해 걷기 레저에 입문하게 되었지만 등산 문화가 가진 정상을 오르고 인증을 하는 목표지향적 행태에 대한 반감,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의 취미, 단체 등산객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등 인식을 가짐
		기존 하이킹 트레일 경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라서 등산 문화를 탈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걷기 문화인 하이킹에 관심을 가지고 하이킹 이벤트 참석, 하이킹 동호회 가입 등을 통해 입문 여행을 통해 기존에 조성된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을 짧게 경험하고 하이킹 트레일에 관심이 증가
		코로나 이후 걷기 관심 증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이후에 집이나 회사 근처 산책길을 경험하며 본격적인 하이킹 레저에 대한 관심 증가 트레일 러닝, 사막 마라톤, 암벽등반 등 평소 다양한 아웃도어 레저를 취미로 두고 있으며, 비슷한 맥락의 레저인 하이킹에 입문
하이킹 문화 확산 요인	건강 욕구 충족	정신적 안정(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잡한 도시 일상에서 벗어난 걷기 행위를 통해 생각을 비우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심신 안정을 경험, 동시에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경험을 가짐
		육체적 건강(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이킹을 통해서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풍경과 자연을 경험하며 자연의 소중함, 지역의 매력, 국토의 가치를 깨닫게 됨
	자연의 경험 추구	자연을 경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평적 걷기는 등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력 소모가 적으며 따라서 함께 걷는 이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됨
		도시와 다른 풍경(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에서 마주하는 관계와는 달리 하이킹을 통해 알게 된 이들과 상대적으로 관계 형성이 빠르고 친근함

등산과 차별화 추구	걷기 자체에 집중(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많으며 새로운 문화라는 인식 • 등산로와 같이 시작점과 정상의 코스가 정해져 있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구간 선택이 자유로움
	젊은 레저활동 이미지(1)	
	체력적 부담이 적음(2)	
	자유로운 코스 설정(1)	
새로운 여행 경험의 욕구	국내 여행의 매력 발견(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에 오르고 SNS를 통해 인증을 남기는 행위보다는 걷기 자체에 더 집중하게 됨
	여행의 태도 변화(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기존 여행과는 다른 경험, 국내 여행에 대한 매력을 알게 됨
	기존 여행과 다른 경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지 아닌 접하기 쉽지 않은 마을 등의 먹거리를 경험
	지역 먹거리를 경험(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하이킹 행위를 통해 여행에 대한 사전 계획 등을 철저하게 하게 됨 •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행에 대한 태도가 능동적으로 변함
관계 형성의 욕구	하이킹 동호인들과 관계를 형성(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쉽지 않아 국내 여행에 관심을 가짐
코로나 이후 비대면 여행 관심 증가	국내 여행 관심 증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집된 관광지 위주의 여행이 아닌 한적하고 자연에 인접한 여행에 관심을 둠 • 따라서 자연에서 레저를 기반으로 한 소수 인원의 여행 형태인 하이킹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함
	밀집된 관광지 분산(2)	
	비대면 레저 활성화(4)	

방문객들의 하이킹 입문 배경 및 하이킹 문화가 확산하는 요인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는 총 40개 의견과 19개 하위범주, 최종적으로 7개의 상위범주로 범주화했다.

이들이 하이킹에 입문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는 기존 등산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잘 갖춰진 하이킹 트레일을 경험하면서 비롯되었다. 방문객이 인식하는 하이킹 문화 확산요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을 경험하는 것과 등산과 차별화된 하이킹만의 장점들, ‘도보여행’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 코로나 이후 비대면 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각 범주에 대한 위계를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하면 다음 [그림 4-15]와 같다.



[그림 4-15] 방문객의 하이킹 문화 확산 배경 위계 다이어그램

■ 대부해솔길 문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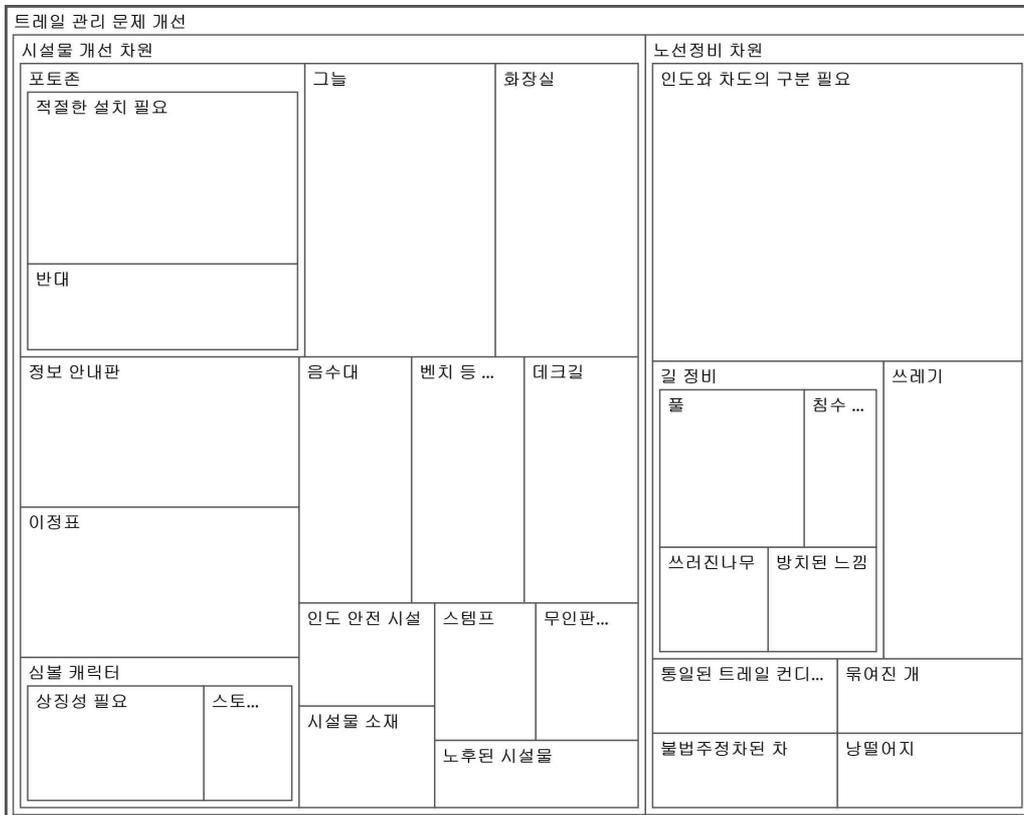
[표 4-14] 방문객의 대부해솔길 문제 인식 개방코딩

주제	상위범주	하위범주 (의견 수)	세부 내용 요약
해솔길 문제 인식	경관개선	낙후된 시설물 정비(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래된 펜션, 낡은 염전 시설, 안내판 등으로부터 낙후된 경관의 이미지 · 기대했던 어촌 마을 풍경이 아닌, 도심과의 경계가 모호한 정돈되지 않은 풍경 · 혼란스럽게 설치된 무분별한 간판 · 울창한 숲이 아닌, 단조로운 식생
		농촌경관 개선(3)	
		경관체계 정비(1)	
		생태계 질 개선(2)	
	인프라 개선	교통인프라 개선(8)	· 마을 구석구석 단지 않는 버스, 운전이 미숙한 이들에게 좁고 정비가 필요한 도로, 코스 기점마다 부족해 보이는 주차장
		하이커 숙소 확보(6)	· 게스트 하우스, 호스텔, 민박 등 하이커들이 선호하는 숙소가 아닌,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비싼 펜션 위주의 숙박시설
		치안에 대한 안전장치 확보(1)	· 하이커 방영록, 긴급 통신시설 등 혼자 걷는 이들을 위한 최 소한의 안전장치 부재
	코스 계획 수정	사유지 문제 해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 상당수가 사유지와 매우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침범하는 느낌, 일부 구간은 주민과의 갈등으로 길을 막아둠 · 자연지역이 아닌, 펜션 단지 등 개발된 공간을 지나는 구간 이 다수 존재함 · 포장되지 않은 자연형 길을 선호하는 하이커들에게 과도할 정도의 포장된 도로를 걷게 됨 · 염전, 갯벌, 포도밭 등 지역 고유의 요소들을 보다 가까운 거 리에서 접할 수 있는 코스 계획이 필요
		인공적 요소 회피(12)	
		지역 자연자원 고려(7)	
	트레일 관리 문제 개선	노선 정비(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구간이 다수 존재하여 안전상의 문제와 동시에 소음, 분진 등 건기에 쾌적하지 못함 · 트레일 내 무성한 풀, 묶인 개, 불법주정차된 차, 쓰레기와 버려 진 컨테이너 등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인상을 심어줌 ·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특정 관광 스팟과 그렇지 않은 구간과의 관리 정도의 차이가 큼 · 해변 길 주위로 그늘이 부족하여 여름에는 오기 힘들 것 같음
		시설물 개선(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찬가지로 이미 설치된 벤치 등 휴게시설에도 대체로 그늘이 부족하여 햇볕이 뜨거운 낮에는 앉아서 쉬기가 꺼려짐 · 일정 구간마다 벤치, 정자 등 휴식 시설이 필요함 · 공공 화장실이 부족하고 개방형 화장실은 시설 및 관리가 빈약 함 · 기타 음수대, 스텝프함, 무인판매대, 포토존 등 부실한 시설물 다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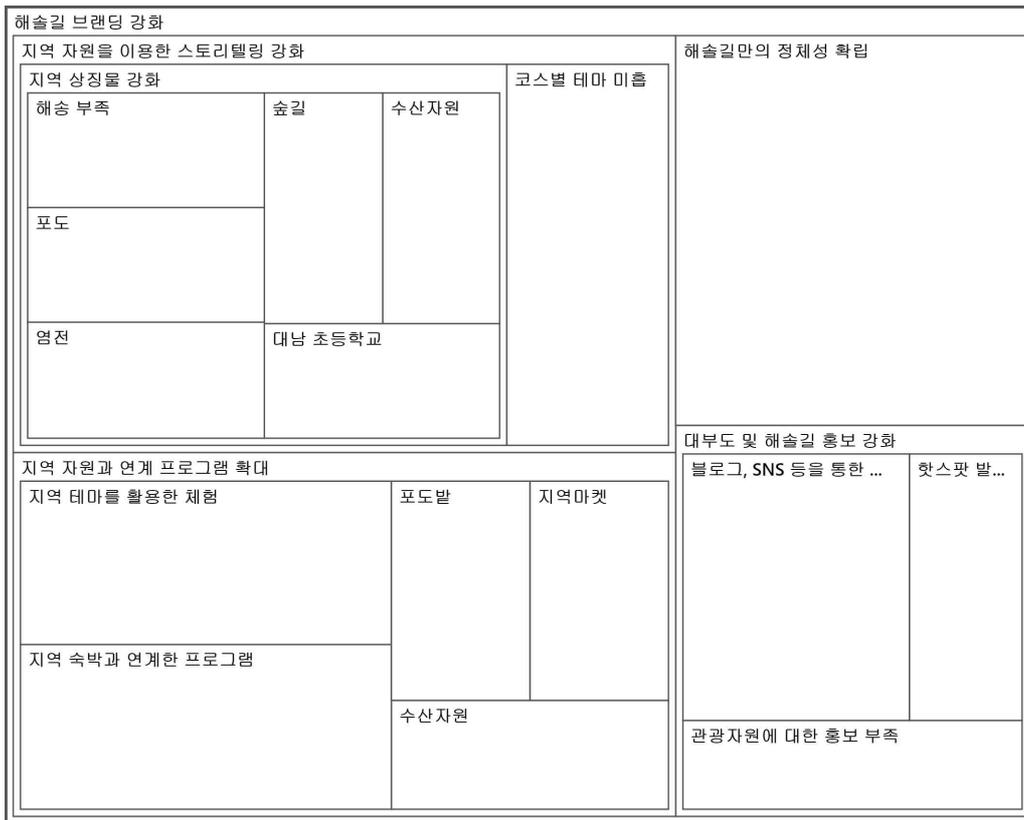
대부도 이미지 개선	안 좋은 치안(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와 관련한 부정적 이미지로 혼자 오기가 꺼리지며 치안을 계속 신경 쓰며 걷게 됨 · 대부도는 ‘교외 드라이브’, ‘펜션’, ‘칼국수’ 등, 자연을 향유 하며 걷는 장소보다는 소비 위주의 근교 관광지 이미지가 강함
	근교 관광지 이미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대부도에 올레길 같은 둘레길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함
	펜션 이미지 고착(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의 이미지로 수도권과 멀리 있을 것 같다는 선입견
	접근성 우려(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의 쓸쓸한 느낌, 울창한 숲이 아닌 해변의 단조로운 식생 등, 동해와 남해와는 달리 서해에 대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함
	부정적 서해 풍경(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갯벌 경관으로는 가장 먼저 ‘태안’ 이 연상되기 때문에 서해의 운치를 경험하기 위해 대부도를 우선해서 찾지 않음
해솔길 브랜딩 강화	해솔길 정체성 확립(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력적인 자원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함 · 방문객들은 기대했던 어촌마을의 정취에 대해 실망했지만,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소박한 포도밭 경관, 일부 전원주택단지의 잘 정돈된 정원, 염생식물 군락의 생경한 풍경 등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지역 자원 연계 프로그램 확대(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도가 보유한 매력적인 자원을 더 발굴하여 이것을 활용한 축제,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해솔길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해솔길, 나아가 각 코스의 테마와 스토리텔링이 부족함
	지역 자원 스토리텔링 강화(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대부도 숙박시설의 대다수인 펜션은 사적 모임 성격이 강하여 여행자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거나 지역 프로그램으로 연계되는 기능이 떨어짐 · 제주도의 경우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등 숙박시설들이 여행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역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도 가짐
	지역홍보 강화(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솔길 방문 전 블로그 등 SNS 통해 대부도 내 매력적인 장소를 검색하였지만, 선제도와 영흥도처럼 매력적인 핫스팟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그 외	낮은 이용자(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레일에서 만난 하이커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것이 하이킹의 매력 중 하나인데, 해솔길에서는 도보 여행자들을 거의 마주치지 못했고, 그나마 걷는 이들은 근처 펜션을 방문하여 짧은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대다수
	계절에 따라 다른 만족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이 주는 황량한 이미지는 겨울에 더 심할 것 같고, 여름은 그들이 부족하여 시즌별로 해솔길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다를 것 같음

방문객들이 하루 동안 5, 6코스를 경험하며 인식한 대부해솔길의 문제 및 개선 방안 의견은 총 134개이며 이를 22개 하위범주와 7개 상위범주로 범주화했다.

방문객들은 수려한 자연 및 생태계와 소박한 어촌 풍경을 기대했지만 과도하게 도시화되고 정리되지 않은 경관, 자연성이 떨어지는 포장된 길, 하이커의 행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편의시설 등에 실망감을 보였다. 나아가 이들은 하이킹 대상으로 안산시와 대부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사전에 가지고 있었다. 안산이 가진 범죄 관련 인식으로 치안에 대한 우려, 잠시 와서 소비하고 떠나는 대부도 이미지 등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트레일 관리 문제 개선사항은 [그림 4-16], 해솔길 브랜딩 강화 차원의 위계 다이어그램은 [그림 4-17]과 같다.



[그림 4-16] 방문객_트레일 관리 문제 개선 위계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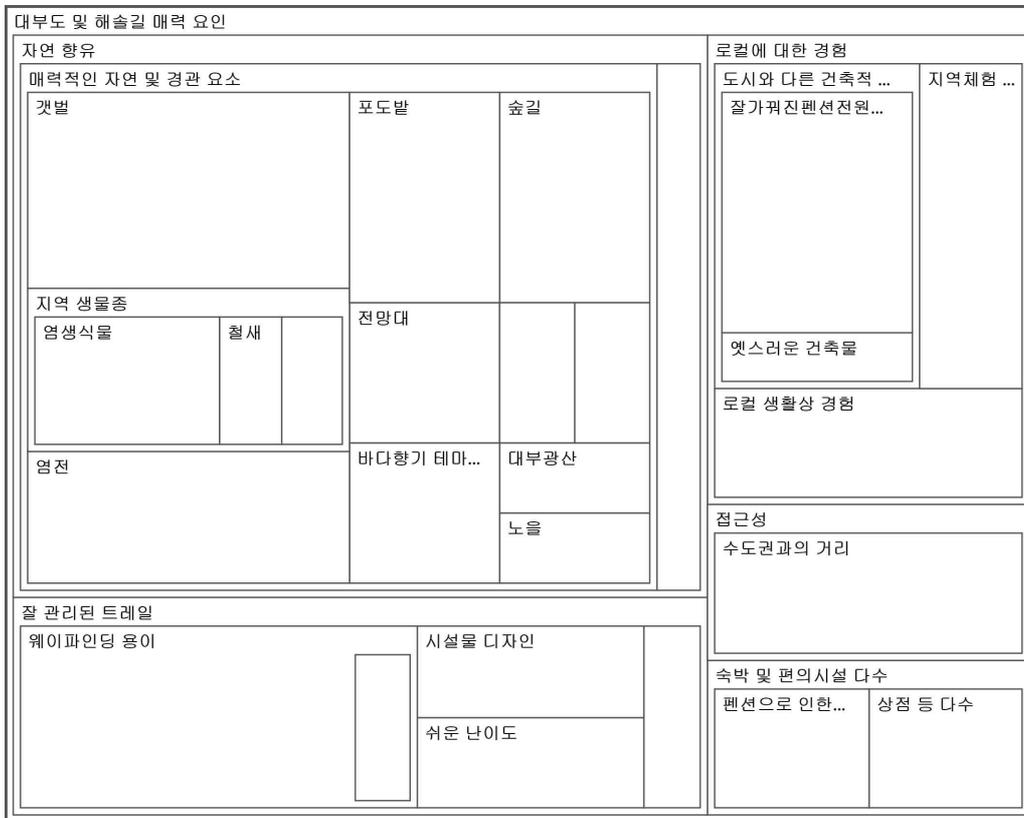
[그림 4-17] 방문객_대부해솔길 브랜딩 강화 위계 다이어그램

■ 대부해슬길 매력 요인

[표 4-15] 방문객의 대부해슬길 매력 요인 개방코딩

주제	상위범주	하위범주(의견 수)	세부 내용 요약
해슬길 매력 요인	자연 향유	다채로운 자연을 경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도의 다채로운 자연을 해슬길을 통해 경험함 · 갯벌(6), 갯벌 생태계의 생물종(5), 염전(4), 포도밭(3), 숲길(3), 바다향기 테마파크(2), 전망대(2), 노을(1), 대부광산(1), 어촌마을의 정취(1), 정돈된 자연(1)
		매력적인 자연 및 경관 요소 존재(29)	
	로컬 경험	로컬 생활상을 경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닷가와 마을 구석구석을 거닐며 갯벌에서 수산물 채취하는 모습, 포도밭을 가꾸는 모습 등 로컬의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체험 · 일부 잘 가꾸진 전원주택단지, 펜션단지의 경우는 도시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이국적인 건축 요소이며, 이들이 가꾸놓은 정원 역시 경관 요소로 작용함 · 갯벌 체험을 통해 로컬의 자연자원과 생활상을 경험
		도시 풍경과는 다른 건축 및 조경 요소(6)	
		지역 체험 프로그램(3)	
	접근성	수도권과의 접근성(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의 대표적인 해안 트레일에 비해 경관적으로 더 우수하진 않지만, 압도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거리에 있음 · 일부 방문객들은 평소 인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도권과 가까워 놀라워함
	숙박 및 편의시설	트레일 내 펜션 다수 존재함(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레일 근처로 펜션들이 다수 존재하여 가족 단위, 혹은 무리를 지어 걷기에 용이
		트레일 내 편의점 존재함(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 등 자연 깊숙이 조성된 트레일들과 달리 트레일 주위로 편의점, 식당, 카페 등이 존재
	관리된 트레일	길 찾기 쉬움(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들이 주로 찾는 깊은 자연형 트레일 보다 상대적으로 길 찾기가 편함 · 리본, 이정표, 갈림길 바닥의 표식 등 웨이파인딩을 위한 장치들이 촘촘하고 명확하며 관리상태도 양호함 · 대체로 길의 난이도가 쉬워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들도 일부 구간은 이용 가능함 · 일부 숲길 구간의 경우 제초작업 및 흙길 관리가 잘 되어있어 편안한 오솔길을 걷는 경험을 줌
		정돈된 시설물 디자인(2)	
쉬운 난이도(2)			
잘 정비된 노선(1)			

방문객들이 경험한 대부해솔길의 매력으로는 갯벌 등 해양 생태계의 경관과 이를 경험하는 ‘자연 향유’의 매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수도권과 압도적으로 가까운 접근성, 이들이 평소 즐기는 깊은 자연의 트레일과는 달리 이정표, 리본 등이 잘 관리되고 있어 웨이파인딩이 쉽다는 것과 편의점 등 편의시설 다수 존재, 전원주택 마을을 구경하는 요소, 포도 농장과 갯벌에서 일하시는 지역민들의 모습 등 로컬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주요 매력 요소로 보았다.



[그림 4-18] 방문객_대부해솔길 매력 요인 위계 다이어그램

(2) 이해관계자

■ 대부도 현안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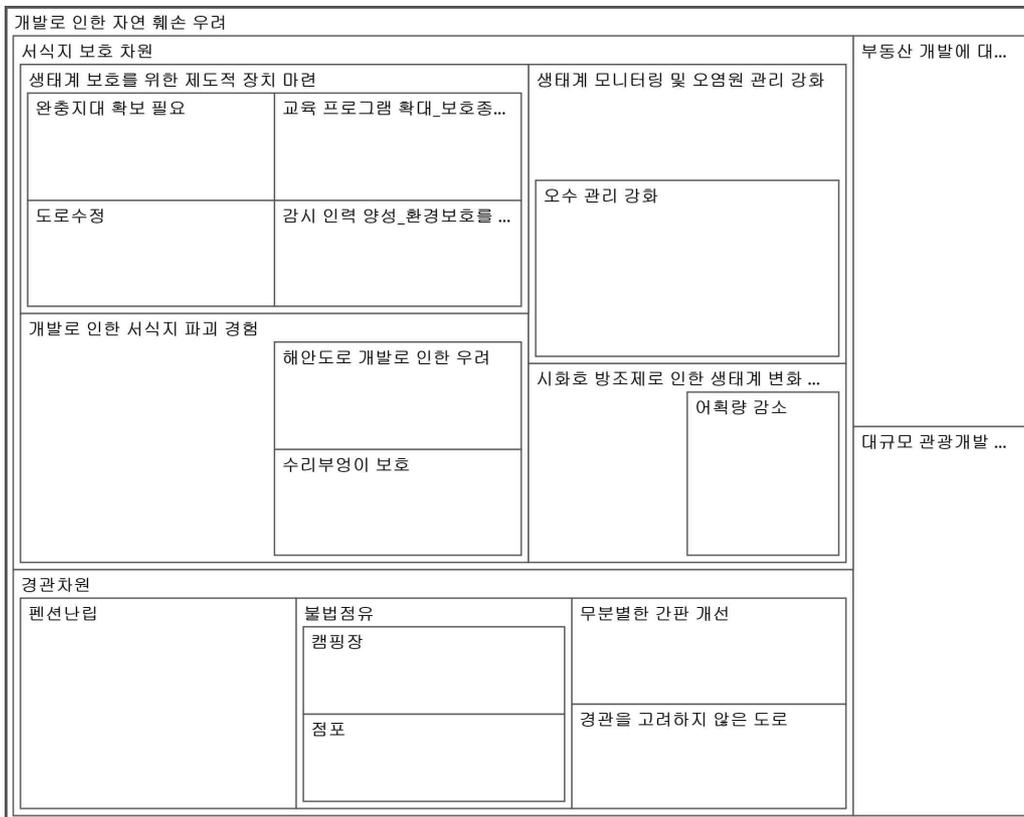
[표 4-16] 이해관계자의 대부도 현안 및 과제 개방코딩

주제	상위범주	하위범주 (의견 수)	세부 내용 요약
대부도 현안 및 과제	자연을 고려한 관광개발 필요	가치 관광의 확대(2)	· 현재 대부도는 짧은 시간에 관광객들의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었지만 이로 인해 쓰레기, 교통, 환경 등 대부도 내 다양한 문제가 양산되는 중임. 보다 생태적이고 가치지향적인 관광을 장려해야 함
		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 우려(26)	· 이해관계자들은 그동안 대부도 개발과정을 통해서 자연과 고유 자산이 훼손되는 과정을 경험했으며, 앞으로의 관광개발 기조가 경관과 생태계 서식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길 바람
		개발로 인한 대부도 고유 자산 훼손 우려(2)	
		상징적인 복원사업 시행(5)	· 이에 시화호 어족자원 복원, 매립지를 울창한 숲으로 조성, 황금산 복원 등 환경적으로 상징적인 사업을 희망
	인프라 개선	교통 인프라 개선(11)	· 대부도 전역으로 대중교통 편의를 확대
			· 도로간 연계를 개선하고 거점 주차장이 필요함
		숙박시설 다변화(5)	· 람사르 습지 등 생태계 민감 지역이 인접한 해안도로는 하이커, 자전거 이용자들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자동차 도로는 우회하도록 재설계 · 필요시에는 해안 셔틀, 투어버스, 공유 모빌리티 등을 운영 · 마을회관, 경기창작센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도미토리, 게스트하우스 등 하이커에게 적합한 숙소 및 마을 공터 등 유희부지를 활용한 공공야영장 증설
거점공간 확보(2)	· 대부도 내 ‘광장’ 역할을 하는 앵커시설 필요. 현재 1코스 관광안내센터에서 해솔길 안내를 겸하고 있지만, 여행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광장의 기능은 없음. · 또한 광장을 지역 농산품을 활용한 마켓,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 공간으로 사용		

지역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도 현안 및 과제에 대해 총 53개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것을 하위범주 7개와 상위범주 2개로 범주화하였다.

이들은 오래전 시화방조제 건설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직접 경험했고, 나아가 대부도가 ‘짧은 시간안에 소비하고 떠나는 근교 관광지’ 인식되면서 다양한 관광개발 과정을 목도했다. 따라서 과도한 개발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며 자연을 보전하는 형태의 관광지로 변모하길 원한다.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던 개발에 대한 자연 훼손 우려 및 그 대책의 위계를 [그림 4-19]로 나타내었다.

또한 인프라 개선에는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포화상태가 되는 교통 문제를 시급하게 지적했고, 현재 펜션으로 가득한 대부도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며 지역주민에게도 실질적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림 4-19] 이해관계자_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 우려 위계 다이어그램

■ 대부해솔길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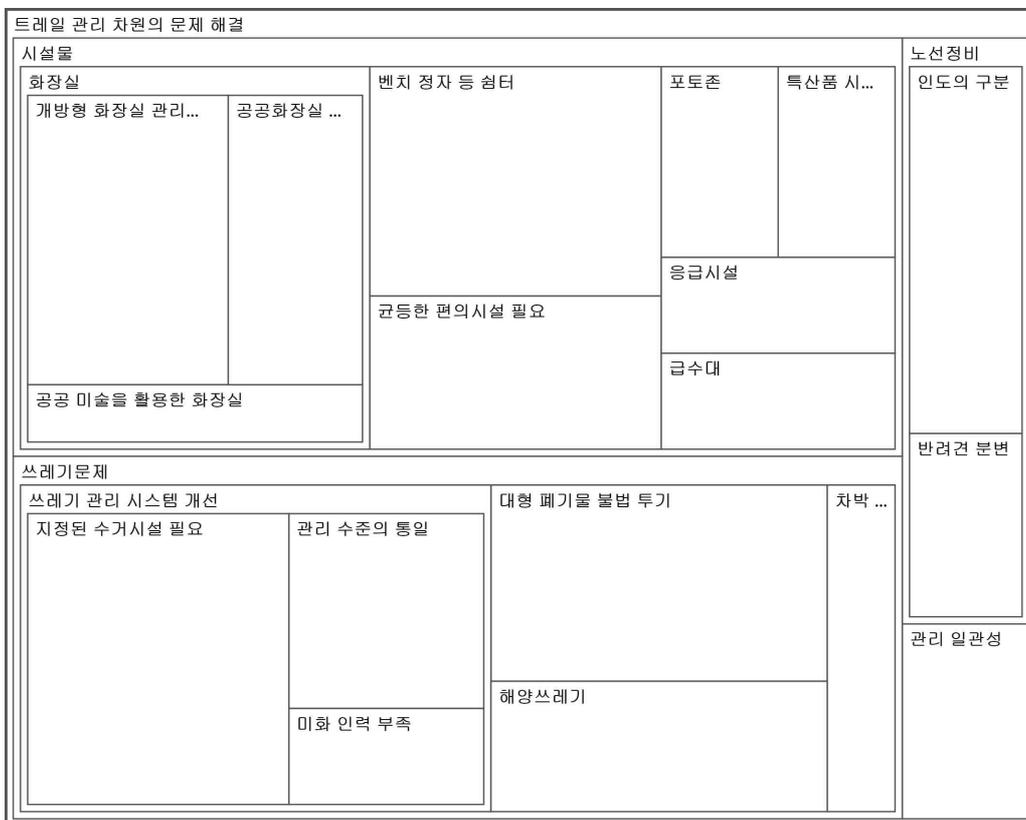
[표 4-17] 이해관계자의 대부해솔길 개선 방안 개방코딩

주제	상위범주	하위범주 (의견 수)	세부 내용 요약
해솔길 개선 방안	코스 방향성 수정	자연의 가치를 깨닫기(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솔길을 통해 대부도가 가진 자연을 소개하고 이 길을 걸으며 생태적 감수성과 자연의 가치를 깨닫는 기회 제공 · 대부도의 대표 자연자원인 갯벌을보다 가깝게 경험하는 코스 필요 · 방문객들로부터 갯벌 생태계 피해를 저감하는 방안으로 해안 데크를 유리로 제작하는 아이디어
		해변을 활용한 코스 개선(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미개방 상태인 7코스는 실제로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어 안전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곳을 정비하고 재개방하는 안 제시
		미개방 구간에 대한 우려 및 재개방(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등 사안을 통해 1코스와 탄도항 인근에만 해솔길 방문객이 물리는 현상을 최소화
		다양한 코스로 방문객 분산(3)	
	트레일 관리문제 개선	트레일 노선 정비(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구간이 다수 존재하여 안전상의 문제와 동시에 소음, 분진 등 걷기에 쾌적하지 못함 · 일부 펜션 및 타운하우스 주변으로 반려동물 산책 이용객들이 반려견의 분변을 치우고 가지 않음. 해당 지역은 먹거리 생산지 주변이라 문제가 됨 · 화장실의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됨. 특히 해솔길 주변 공공 화장실 부족으로 개방형 화장실을 두었지만, 관리 지원 및 인력의 이슈로 관리가 힘든 상황
			시설물 개선(19)
		쓰레기 문제 개선(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문제의 경우 방문객 의견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관리 시스템적 사안을 언급함. 쓰레기 미화 수거가 빈번하지 않은 지역 특성상 주민들은 쓰레기를 큰 대로변에 방치하게 되고, 이는 마을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마을 혹은 거점 지역마다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간이 집하장 혹은 대대적인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해솔길 정비 정책의 일관성 유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낚시이용객 뿐 아니라 최근 차박 인구가 급증하며 해안 인근 주변으로 불법 투기 문제가 급증함 · 또한 해안 마을 공터에 폐건축자재, 폐컨테이너 등 대형 폐기물을 몰래 투기하는 사건들도 빈번함 ·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솔길의 관리 정도나 디테일한 디자인 등의 사안에 대한 기초가 바뀌는데, 보다 일관성 있는 장기적관리 플랜이 필요함

이해관계자들은 대부해솔길 개선 방안으로 44개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8개 하위범주와 2개의 상위범주로 범주화했다.

이들은 코스 계획의 방향성 수정을 통해 대부도의 자연을 더욱 만끽할 수 있는 코스로 해솔길이 수정되길 원했으며 현재 일부 코스에 집중되는 현상이 개선되길 원했다.

트레일 관리문제 개선 차원으로는 차도와 구분되지 않는 구간이 개선되길 원했고, 특히 관리자의 입장에서 관리가 힘든 개방형 화장실과 공공 화장실 문제와 대부도 전역에서 몹살을 앓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림 4-20] 이해관계자_대부해솔길 관리 차원의 문제 위계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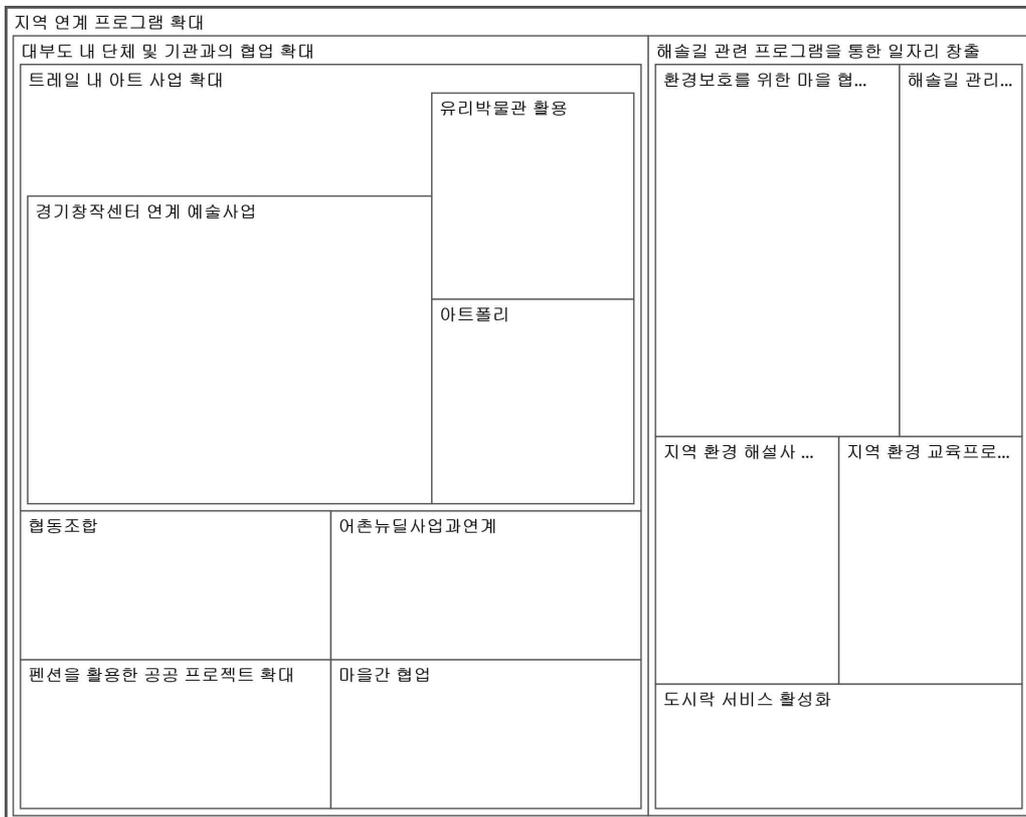
■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대부해솔길 활성화

[표 4-18] 이해관계자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대부해솔길 활성화 개방코딩

주제	상위범주	하위범주 (의견 수)	세부 내용 요약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대부해솔길 활성화	지역 커뮤니티 개선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해결(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과 협의의 문제로 최초 계획했던 코스는 물론이고 현재의 길들도 계속해서 변경되는 중 · 해솔길 방문객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주민 혹은 단체의 민원, 개발로 인한 해솔길 단절, 일부 상인들이 해솔길을 가판대 등 상업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잦은 코스 변경, 이로 인해 매력 떨어짐 · 위 사안을 개선하기 위해 해변 데크 로드를 설치하려 해도 공유수면 허가 이슈가 존재함 · 해솔길 관리 및 마을 사안에 대해 원주민과 이주민의 이해도 차이와 갈등이 큼. 일부 마을은 원주민보다 이주민이 더 많은 상황이라 미화 작업 등 마을 문제를 위한 모임을 가져도 고령인 원주민만 참석하는 상황 ·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해당 코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필요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문제 해결(1)		
		주민 소통 및 커뮤니티 강화(3)		
	대부도 및 해솔길 브랜딩 강화	대부도 고유 자원을 활용한 마케팅 강화(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 생태계의 다양한 생물, 염전의 소금, 대부도 모래를 활용한 유리공예 굿즈 등 지역 자원의 콘텐츠 개발 · 유리섬 박물관, 경기창작센터 등 로컬 아티스트와 협업을 기반으로 로컬 마켓, 지역 예술 축제, 전시 등 이벤트로 활용 · 이러한 활동으로 이해관계자들은 젊은 세대가 가지는 갯벌, 염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함
		대부도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1)		
	지역 연계 프로그램 확대	해솔길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 일자리 창출(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해솔길 관리 인력의 대부분은 해당 코스 인근 주민이 아닌 외부 인력이 동원되는 상황임 · 따라서 해솔길 관리 뿐 아니라 해솔길 방문객을 위한 도시락 제작 판매, 지역 해설사 양성, 지역 환경 교육 프로그램 등 해솔길 인근 주민들의 인력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창출 · 마을협동조합, 박물관, 예술단체, 펜션조합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해솔길 내 아트폴리 설치, 펜션을 숙소로 연계 등 다양한 사업 확장 모색 ·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으로 일부 체험 마을에 해양 생태공원, 귀어 학교 등이 추진 중. 해당 사업의 경험을 대부도 전체 체험 마을로 확장
대부도 내 단체 및 기관과의 협업 확대(11)				

이해관계자들은 해솔길 개선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단체 및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대부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의 주요 해법으로 보았다.

현재 펜션, 식당 등 관광 상업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또는 전원주택 등으로 이주한 외지인들의 수가 일부 마을은 원주민의 수를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두 집단은 지역에 대한 애착 정도에 차이가 있어 마을 사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이에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커뮤니티 개선을 통한 대부해솔길과의 연계 프로그램 확대는 궁극적으로 대부해솔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세부적은 연계 프로그램은 [그림 4-21]과 같다.



[그림 4-21] 이해관계자_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 우려 위계 다이어그램

■ 코로나 이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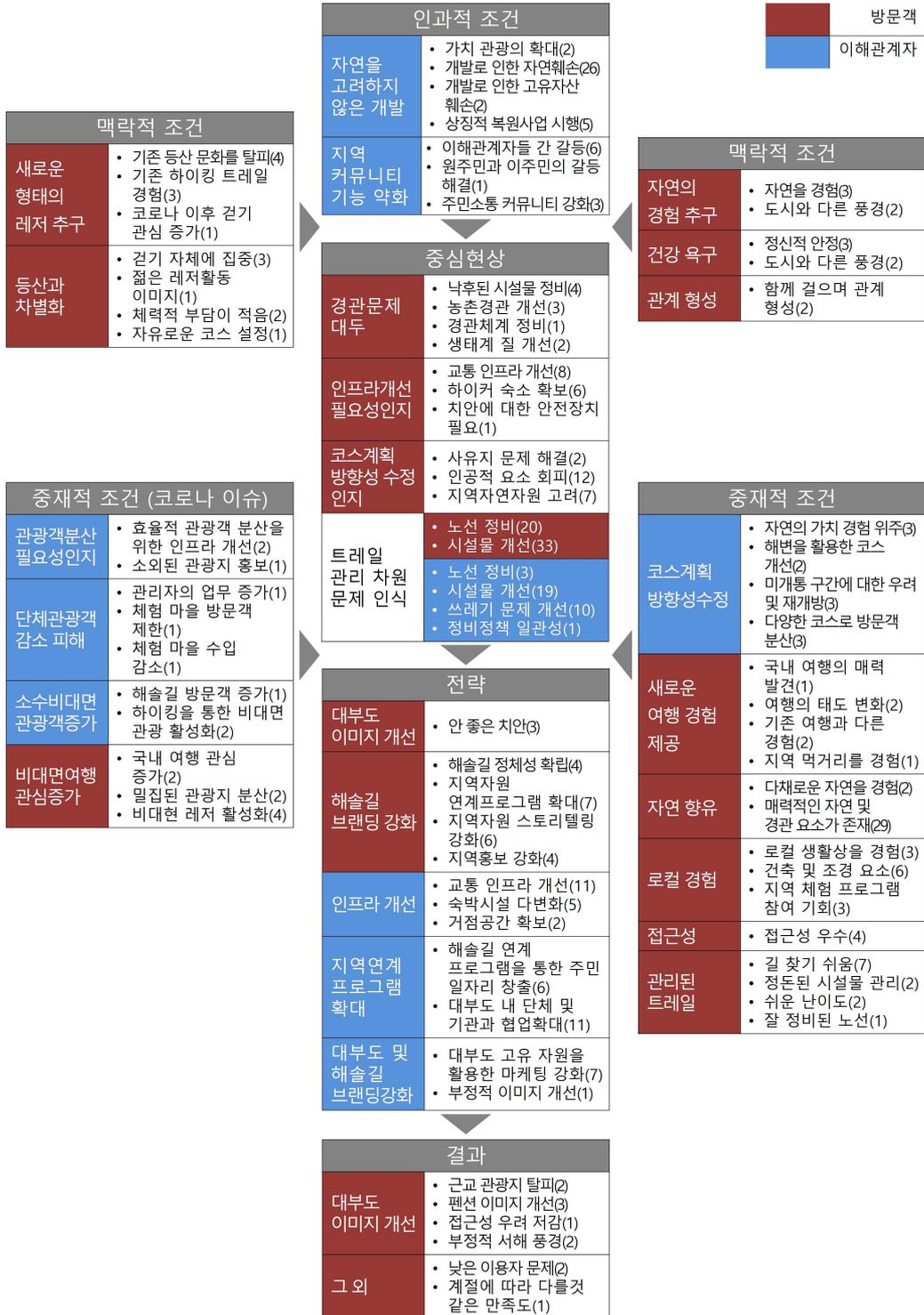
[표 4-19] 이해관계자의 코로나 이후 대부도 관광 변화 개방코딩

주제	상위범주	하위범주 (의견 수)	세부 내용 요약
코로나 이후 변화	관광객 분산 필요성 인지	효율적 관광객 분산을 위한 인프라 개선(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이후 관광객 밀도가 높은 구간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진행 중 · 이를 위해서 기존 소외된 지역의 도로 및 대중교통 연계 강화, 시설물 보수 등 인프라 개선을 확충하고자 함 · 나아가 기존에 관심받지 못한 관광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역할 또한 강조됨
		소외된 관광지 홍보(1)	
	단체 관광객 감소의 피해	관리자의 업무 증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로 인해 방문객의 열 체크 등 부수적인 업무가 많아짐 · 하지만 어촌체험 마을의 경우 1일 체험객 및 마을 캠핑장 이용 수를 제한, 이는 곧 수입 감소와 관리 인원의 이탈 등의 문제로 이어짐
		체험 마을 방문객 제한(1)	
		체험 마을 수입 감소(1)	
	소수 비대면 관광객 증가	해솔길 방문객 증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이후 비대면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수의 인원으로도 해솔길 걷기 등 아웃도어 레저인원 증가를 체감 ·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대부도 관광산업에 해솔길 활성화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
하이킹을 통한 비대면 관광 활성화(2)			

이해관계자들은 코로나 이후 대부도 내 관광 변화를 체감했다. 집중된 관광지를 분산할 필요성을 느꼈다. 하지만 일부 체험 마을과 문화관광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의 경우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한편으론 코로나 상황으로 단체 관광객이 줄고 소수의 비대면 관광객 증가는 대부해솔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존 봄비는 관광지 보다 사람의 밀도가 낮고 자연에 가까운 곳을 찾는 소수의 관광객들로 인해 대부해솔길이 활성화될 것이며, 침체된 대부도 생태관광산업에 해솔길이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예상했다.

3. 축코딩과 패러다임 모형



[그림 4-22] 패러다임 모형

(1) 인과적 조건

이해관계자들은 그동안 자연을 소모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던 대부분의 개발 방향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시화방조제 건설, 간척사업, 자원채취 등의 개발 행위로 자연 훼손을 경험했고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었다. 또한 기존 주민들의 고령화 및 이탈 등으로 지역 커뮤니티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개발사업으로 생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마찰과 유입된 외지인들과의 갈등을 더욱 고착화한다고 보았다.

(2) 매력적 조건

매력적 조건은 하이커들이 어떠한 과정에서 하이킹에 입문하게 되었고, 그들이 하이킹 행위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는지 보여준다.

방문객들은 기존 등산 형태의 걷기 문화의 부정적 인식, 올레길 등 잘 갖춰진 트레일 경험 등으로 하이킹에 입문하게 되었다. 등산에 비해 짧은 문화로 인식되고, 체력적으로 부담이 적어 걸으며 일행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코스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들은 도시를 떠나 자연과 지역을 향유하며 걷는 것을 하이킹의 가장 큰 매력으로 보고 있었고 또한 마음과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는 기능도 그중 하나로 꼽았다.

(3)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현재 대부해솔길이 안고 있는 주요 문제점에 관한 내용이다.

대부해솔길을 찾은 방문객들은 농·어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모호한 경관에 실망했다. 자연을 만끽하러 온 이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하게 포장된 길, 지속적으로 도시지역을 안내하는 트레일 코스, 인스턴트식으로 지어진 낡아 보이는 펜션, 일부 보호구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 생태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인프라의 경우 관광지 위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과 주말이면 각 거점에 몰리는 관광객들로 극심한 정체를 겪는 도로, 하이커들에게 선호되는 형태가 아닌 펜션과 캠핑장은 사실상 대부도에는 하이커를 위한 숙소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 역시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토로했다. 이러한 사안들로 인해 대부해솔길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앞서 작용하는 변수를 말한다.

대부도의 경우 코로나 상황으로 급격하게 변화한 관광행태가 나타났는데, 조사를 진행했던 당시에는 회사 야유회나 대학생 MT와 같은 4인 이상 집단이 단체로 펜션에 머무는 행위가 불가능해졌고, 또한 인파가 밀집하는 기존 유명 관광지 역시 방문을 주저하던 시기였다.

안산시 역시 이러한 관광객 움집 현상을 최대한 대부도 전역으로 분산시키고자 기존 대부도의 관광 기조에 변화를 주고 있었다. 소수 그룹의 비대면 관광을 권장하고 잘 알려진 관광지가 아닌 대부도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여유롭고 자연성이 높은 곳들로 관광객을 유도하고자 했다. 방문객과 이해관계자들 역시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해관계자들은 그 실행안으로 소외된 지역에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곳들을 홍보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대부해솔길과 같은 도보길 활성화가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았다.

또 다른 중재적 조건으로는 방문객이 생각하는 하이킹의 매력 요소와 대부도만이 가진 장점을 들 수 있다. 방문객은 하이킹을 통해 지역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국토의 가치와 국내 여행의 매력을 발견하길 원했다. 또한 대부도의 장점으로 수도권과 압도적으로 가까운 거리, 쉬운 난이도로 누구나 걸을 수 있고, 평소 자신들이 즐겨 찾는 깊은 자연 속 트레일과는 다르게 이정표, 게시판 등이 매우 촘촘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꼽았다.

(5) 전략

방문객들은 대부도와 해솔길의 정체성 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들은 대부해솔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고착된 대부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결하기 위해 치안에 대한 안전장치 강화, 지역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홍보와 브랜딩을 강조한다.

이해관계자들 역시 지역 고유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대부도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꼽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6) 결과

예상 결과로는 ‘수도권과 가까이에 있는, 우수한 자연을 보유한 섬 둘레길’이란 홍보를 통해 기존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짧은 기간 체류하고 소비하고 떠나는 근교 관광지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다. 앞서 현황분석을 통해 대부도는 두 개의 람사르 습지, 보호종 조류 서식지 등 우수한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질학적 기념물, 전통적 방식의 염전, 박물관 등 문화자원 역시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걷기 참여자 일부는 대부해솔길을 경험한 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은 자연성이 낮고 매력이 떨어진다’는 편견이 실제로 달랐다고 언급했다. 단, 현재 도시지역을 주요 거점으로 연결하고 있는 코스와 포장도로 등 자연성이 낮은 구간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여 이해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초기에 계획했던 대부도 곳곳에 존재하는 우수한 자연을 연결하는 구상이 실현되지 못하고 점점 도로와 도시지역으로 후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지역 구성원들의 조율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일부 방문객들이 가지고 있는 ‘서해 갯벌은 어둡고 황량하며 겨울에는 더 심할 것 같아 찾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편견은 대부도 고유 자산에 대한 스토리텔링 및 브랜딩 강화, 지역 체험 등의 프로그램 다각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사안들이 실현되어 해솔길을 걷는 이들이 보다 많아진다면 현재와 같은 적은 이용객으로 인해 인적이 드물어 생기는 치안 우려와, 하이커 커뮤니케이션 부재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4. 선택코딩

선택코딩은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통해 얻고자 하는, 다음 네 가지 질문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했다.

첫째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대부해솔길은 무엇인가?’ 이다. 방문객들이 걷기 참여를 경험한 뒤 느꼈던 대부해솔길 매력에 관한 내용으로 축코딩의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에서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둘째로 ‘이용자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이다. 방문객이 바라는 대부해솔길 구현을 위한 방법론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심층 인터뷰 분석 내용과 앞서 3장 국내 하이킹 트레일 유형화 분석을 그 근거로 한다.

셋째는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은 무엇인가?’ 이다. 현재 그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조성되고 있는 근교 트레일의 개념을 확립하는 과정으로, 2장 이론적 고찰, 3장 국내 트레일 유형화와 방문객 심층 인터뷰 분석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다. 이는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근교 하이킹 트레일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관한 내용으로, 앞서 수행한 모든 과정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표 4-20] 선택코딩을 위한 질문과 근거

질문	자료의 근거
Q1. 이용자가 요구하는 대부해솔길은 무엇인가?	· 방문객 심층 인터뷰 분석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Q2. 이용자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 3장 국내 하이킹 트레일 유형화 ·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분석 (인과적 조건, 전략)
Q3.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은 무엇인가?	· 2장 이론적 고찰 및 국내외 사례 · 3장 국내 하이킹 트레일 유형화 · 방문객 심층 인터뷰 분석 (Q1)
Q4.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2장 이론적 고찰 및 국내외 사례 · 3장 국내 하이킹 트레일 유형화 · 방문객/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분석 (Q1, Q2)

(1) 이용자가 요구하는 대부해솔길

방문객이 대부해솔길에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대부도 고유의 자연’ 과 ‘지역의 삶 체험’ 으로, 자연과 농·어촌 마을의 정취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가까운 곳을 걸으며 전원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길 원했다. 이들이 대부해솔길에서 원하는 요소는 유명 관광지나 대규모 상업시설이 아닌, 대부도가 가진 고유의 경관과 자연 생태계, 마을 운치를 제공하는 생산공간과 가옥 구조, 그리고 이것들을 관통하며 주민들과 직접 마주하게 하는 마을 골목길과 제방길 등 지역의 소박한 일상적 요소들이었다.

[표 4-21] 이용자가 요구하는 대부해솔길 가치와 요소

핵심 가치	요소		내용
대부도 고유의 자연 경험	자연 경관	갯벌과 사주	서해 도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경관 요소 추구
		노을	
		밀물과 썰물	
		숲길	
	자연 생태계	염생식물	지역의 생태계를 경험
		철새 및 보호 조류	
야생화			
대부도 로컬의 생활상 경험	생산공간	포도밭	지역 고유 생산 공간에서 주민 삶의 모습을 통해 로컬 생활상을 간접 경험
		염전	
		갯벌	
	건축 요소	가옥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농·어촌의 가옥과 다양한 주택의 형태
		전원주택	
	조경 요소	텃밭	주민들이 가꾼 소박한 정원과 텃밭, 길가에 핀 야생화
		정원 조경	
		야생화	
	마을 골목길, 제방길		마을 길을 통해 주민들과 마주치며 소통

(2) 이용자 요구 대부해솔길의 구현

대부도 주요 자연 자산의 예시로 습지보호구역의 경우, 그 인근으로 펜션과 개발 행위가 이미 상당수 진행되었다. 해당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은 충분한 완충지대 확보와 오염원 관리, 생태계 모니터링과 조사, 해당 자연을 주제로 주민과 방문객 생태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대부해솔길의 주요 자원으로 여겼던 농어촌 마을의 정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을 경관개선을 주요 전략 중 하나로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된 관광개발을 억제하고 경관체계를 확립하는 것과 동주염전과 같은 주요 자산이지만 노후화한 시설의 보수, 어지러운 상업시설의 간판과 지역 고유의 경관을 해치는 펜션 등 디자인 억제, 해솔길 구간들을 침범한 불법점유 시설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략을 시행하기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지만, 현재 대부도는 원주민 고령화 및 이탈 문제와 이주민 그룹의 증가로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 될 것을 요구한다. 마을 커뮤니티 강화는 주민들의 의견 합치와 지역 애착 상승, 마을 자체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주민 스스로가 대부해솔길 관리자가 되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솔길 관련 마을 일자리 창출을 권장하는 지자체의 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대부해솔길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시민단체, 사단법인 등 양성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안들을 고려하여 현재 대부도 둘레를 도는 코스에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꼭 대부도 전역의 모든 둘레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가에 관한 비판적 시각이 실제로 존재하며, 해당 분석을 통해서도 현재 상업화되고 도시화된 일부 구간들을 보다 자연과 마을을 소개하는 코스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끝으로 앞서 3장 근교 하이킹 유형화를 통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트레일의 경우처럼, 해당 지자체 조례에 대부해솔길 운영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전문가 집단과 지역 애착이 높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는 조례를 둘 것을 제안한다.

[표 4-22] 이용자가 요구하는 대부해솔길의 전략

개념	주요 전략		내용
지역 고유의 가치를 유지	핵심 자연을 보호	완충지대 확보	서해 도서 고유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자연자원을 보호
		오염원 관리 강화	
		생태계 모니터링 강화	
		생태 교육프로그램 확대	
	마을 경관개선	경관체계 확립	지역 고유의 자연 및 농·어촌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경관개선 활동
		주요 자산 건축 및 시설물 보수	
		무분별한 간판 개선	
		쓰레기 문제 개선	
		불법점유 등 단속 강화	
	마을 커뮤니티 강화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 해결	해솔길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커뮤니티를 강화하여 대부도 자산 및 해솔길 관리 주체로 참여 /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문제 해결	
		주민 소통 및 커뮤니티의 장 수립	
해솔길 운영 관리 시민단체 양성	해솔길 관련 마을 일자리 창출	마을 프로그램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해솔길 운영의 지역 시민단체 양성	
	지역 프로그램 및 콘텐츠 장려		
코스 계획 방향성 재설정	자연의 가치 경험 위주 코스 계획	주요 관광지 분산	주요 관광지가 아닌, 지역 고유의 자연과 경관을 소개하는 코스로 계획 수정
		자연형 트레일 유도	
		숲길과 해변길 활용	
	지역 생활상을 경험하는 코스 계획	마을 길 개발	농·어촌 마을의 생활상을 소개하는 코스 계획 수정/ 지역
대부도 고유 자산 발굴			
대부해솔길 안산시 조례 보강	운영협의회 및 관리위원회 신설과 내용 삽입	제도적 근거 마련	현재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련 조례에 지역 애착이 강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운영·관리에 반영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전문가, 시민단체 등 전문가 그룹의 의견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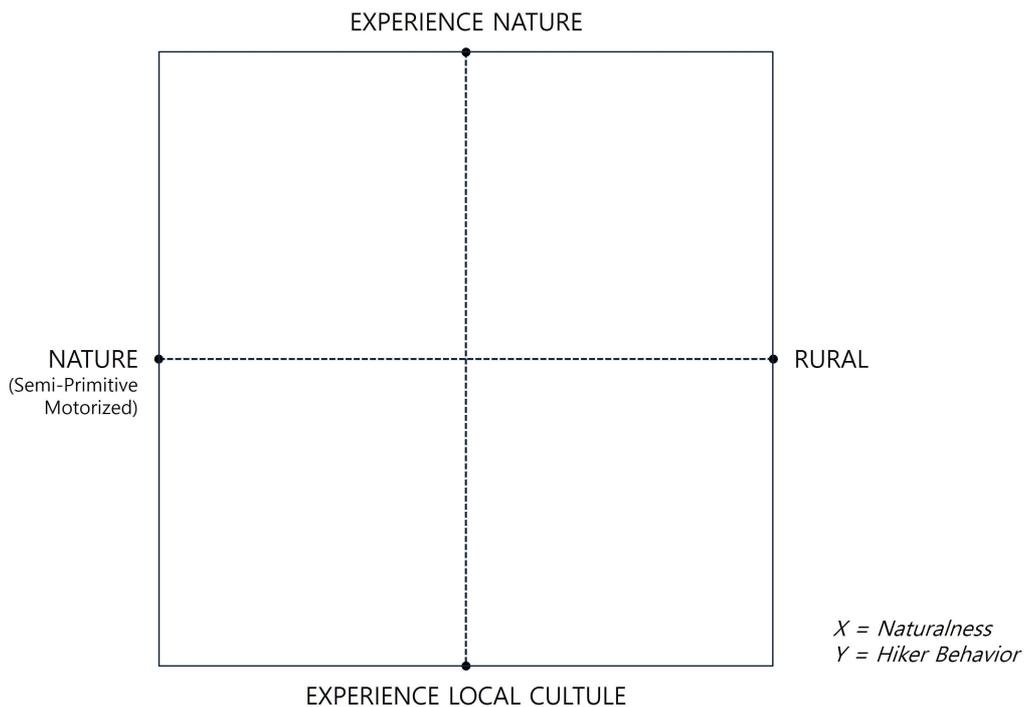
(3) 근교 하이킹 트레일의 개념과 모델

앞서 2장에서 하이킹과 트레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국·내외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고찰하였다. 하이킹은 ‘자연에서 여행을 겸한 걷기 행위’로 정의하였으며 여기에는 ‘도보 여행’과 ‘수평적 걷기’의 의미를 내포한다. 트레일의 경우 아웃도어 레크레이션 행위가 가능한 모든 도보 형태의 길을 의미하는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레저 형태의 모든 길’로 정의하였다.

심층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하이킹 이용자들은 기존 걷기 문화가 추구했던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얻는 식의 ‘목표지향적’ 걷기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수평적 도보 여행’을 추구하고 있었다. 또한 단체보다는 비교적 소수의 인원으로 ‘자연’과 ‘지역’의 운치를 경험하길 원한다.

추가적으로 ‘근교’의 개념을 적용하자면, 방문객들은 비록 대부분해솔길이 ‘수도권 근교에 위치한 관광지’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높은 자연성을 추구하고 이것을 향유하는 것을 하이킹 행위에 우선적 가치로 두었다.

따라서 선택코딩 핵심주제를 ‘자연과 지역 고유의 가치를 담은 도보 여행길 구현’으로 설정하였고 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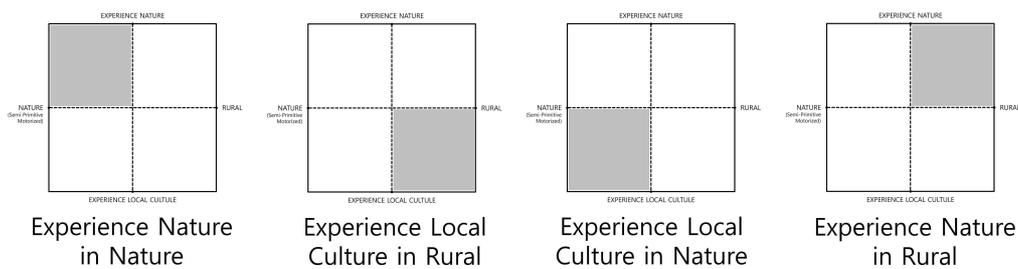


[그림 4-23]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 모델

X축은 자연성의 단계이며, 우리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은 ‘어느 수준의 자연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미이다. 대부해솔길은 3장 근교 트레일 유형분류에서 보호 구역이 가장 많은 트레일로 분류되었을 만큼 보전 가치가 우수한 자연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5, 6코스 ROS 분석결과, 가장 자연성이 높은 구간이 ROS 6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Semi-Primitive Motorized, 그 반대에는 ROS 6번째 구간인 Urban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심층 인터뷰 결과 방문객들은 트레일 내 도시지역을 가장 선호하지 않으며 해당 구간이 하이킹의 질을 떨어트린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교 하이킹 트레일 추구해야 하는 자연성의 범위는 ROS의 Semi-Primitive Motorized와 Rural까지로 설정했다.

Y축은 하이킹 이용자 행태의 범위이자, 트레일 내에서 얻고자 하는 주요 가치이다. 이는 ‘도보 여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행자의 태도로서, 때로는 자연을 향유하고 때로는 지역의 운치를 경험하는 스펙트럼이다. 그 근거로는 4장 심층 인터뷰를 종합한 핵심주제로 ‘자연’과 ‘지역’의 개념이 포함되며, 이용자는 하이킹 트레일 행위에서 이 두 개의 핵심 가치 추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해당 모델은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근교 하이킹 트레일을 유형화할 수 있고, 각 코스의 유형화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림 4-24]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 모델의 영역

위 내용을 수렴하여 우리의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 개념을 ‘자연(SPM)과 지역(R)의 범위 내에서 그 가치를 경험하는 도보 여행길’로 수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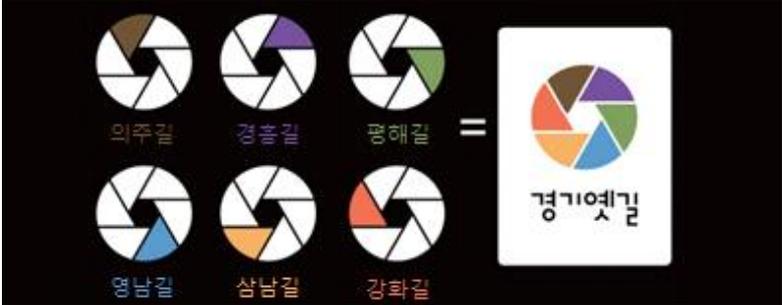
(4)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의 방향

■ 운영·관리 및 제도적 차원

3장 트레일 유형분류에서는 본 연구가 설정의 틀로 제시한 자연성을 보유한 근교 트레일을 전수조사하여 그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 중 비교적 운영·관리가 우수했던 트레일⁸¹⁾의 경향성을 살펴보자면 첫째, 운영·관리의 주요 주체가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인 경우. 둘째, 해당 지자체 조례에 트레일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며 운영협의회 및 관리위원회의가 존재함. 셋째, 트레일이 만들어진 주요 계기가 존재하고 그 중심에 시민의 참여가 존재. 넷째, 트레일의 스토리텔링 및 테마가 명확하며 디자인이 우수함. 마지막으로 정기·비정기적 프로그램이 풍성하고 이를 전용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81) 강화나들길, 경기옛길평해길, 내포문화숲길, 양평물소리길, 여주여강길

[표 4-23] 도출된 근교 트레일 운영·관리 및 제도적 사례

항목	예시		
<p>시민단체 (내포문화숲길)</p>	<p>내포문화숲길은 2007년 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가 출범하였고 2009년 수덕사, 중부지방산림청,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의 조성협약을 개최하였다. 이듬해인 2010년 현재의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이 창립되었다. 현재 4개의 시·군의 실무적 지원과 개인 및 기업의 후원금으로 운영된다.</p>		
<p>관련 트레일 조례 (경기옛길)</p>	<p>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경기도 옛길의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 계획 수립 2. 옛길 안내시설,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 설치 3. 옛길 노선의 확정과 변경 4. 옛길에 관한 대외적 협력관계 구축 5. 그 밖에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p>사건 및 발단 (여강길)</p>	<p>여주 여강길은 2000년 초, 남한강 골재채취 등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여주환경연합, 여주한살림, 여주지역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남한강변을 걷는 행사가 설립 계기이다.</p>		
<p>스토리텔링 (경기옛길)</p>	<p>경기옛길은 『도로고(道路考)』,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 등 조선시대 한반도를 종횡으로 가로지르던 옛길을 복원한 역사문화탐방로</p>		
<p>디자인 (경기옛길)</p>			
<p>프로그램 (내포문화숲길)</p>	<p>단기 프로그램</p>	<p>백패킹 울트라 걷기</p>	<p>야영을 겸한 내포문화숲길 걷기 1일 50km가 넘는 울트라 하이킹</p>
<p>시즌 프로그램</p>	<p>별빛·달빛 걷기 노랑상사화걷기</p>		<p>달빛과 별빛을 따라 걷는 프로그램 노랑상사화 군락지를 걷는 프로그램</p>
<p>완주 원정대</p>	<p>주말로 나누어 모든 코스를 원정대와 함께 완주</p>		
<p>교육 프로그램</p>	<p>해설사와 숲 체험, 역사 문화 교육 등</p>		
<p>기타 프로그램</p>	<p>숲속 요가, 명상, 봄 소풍, 영화상영 등</p>		

■ 코스 계획 차원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하이킹 트레일 코스 계획으로 자연의 경험 추구, 등산과 차별화된 걷기, 여행자 경험 제공을 주요 범주로 꼽았다. 각 범주 별로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구분하였다.

우수한 자연을 고려한 트레일 코스 계획에는 ROS 분석을 통한 해당 지역 자연 구성요소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포장된 도로 회피, 도시화 지역 우회, 다양한 경관 패치를 연결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앞서 2장 미국과 영국의 National Trail 사례처럼 트레일을 위계화하여 관리하는 체계적인 도보 시스템 수립과, 일본의 경우처럼 간선과 지선으로 나누어 편의시설이 존재하는 도시지역 상업시설이 주 동선에 포함되지 않는 계획도 필요해 보인다.

등산과 차별화된 걷기에는 등산과 같이 정상을 오르는 수직적 걷기보다는 평탄하지만 다양한 경사도를 선호한다는 이용자 행태를 반영하여 가파른 경사를 우회하고 체력 부담이 적은 코스로 유도한다. 또한 등산로에 비해 자유로운 코스 합류와 이탈이 가능한 샛길을 고려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여행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으로 접근성, 커뮤니티 시설, 편의시설, 로컬 경험 요소를 반영하였다. 3장 근교 트레일 유형화를 통해 본 논문이 제시한 근교 트레일들이 차량으로 2시간 이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는 도로 사정이 정확하게 반영된 것은 아니다. 또한 각 트레일의 대중교통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는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트레일도 일부 존재했기에 코스 계획으로 접근성 고려가 필요하다. 이 외에 하이커들은 길 위에서 마주치는 도보 여행자들과 소통하여 정보를 얻거나 그 존재 자체로 심리적 안정을 느끼며, 하이커 들과 쉽게 교류가 가능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선호했다, 따라서 도보 여행자들의 커뮤니티 앵커시설이 필요해 보인다. 로컬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마을과 지역 고유 자산들을 발굴하여 코스 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마을 경관개선, 스토리텔링 고도화, 시설물 등 디자인 작업 등이 수반된다.

[표 4-24]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 코스 계획

주요 범주	내용	과제
자연의 경험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형 트레일 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도로 회피 - 차도와 트레일 분리 및 차폐 · 도시화 지역 우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S를 고려, Urban 지역 우회 - 지선과 간선을 구분하여 주 트레일 동선에는 도시화 지역을 회피 · 다양한 자연경관 패치 고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 요소를 고려한 코스 계획 - 해당 지역 보호구역 리스트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지 문제 해결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트레일 ROS 분석 필요 · 도보 시스템 체계 수립 · 단계별 코스 관리 · 경관 요소 분석 필요 · 보호구역 훼손 문제
등산과 차별화된 걷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이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력 부담이 적은 수평형 길 유도 - 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 우회 · 코스 선택 자유도 부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과 이탈이 가능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의 경사를 고려 · 코스 내 이탈로 판단
여행의 경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고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IC, 도로와의 거리 고려 -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고려 · 앵커시설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포메이션센터, 게스트하우스, 유스호스텔 등 도보 여행자 커뮤니티 시설 · 편의시설 고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벤치, 그늘 등 어메니티 고려 · 로컬 경험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력적인 마을 발굴 - 골목길, 장터, 재배지, 갯벌, 포구 등 지역 생활상을 소개하는 요소 고려 - 지역 고유의 자산을 고려한 코스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커 숙박시설 확보 · 마을 컨설팅 필요 · 주민의 의견 수렴 · 거점 마을 확보 · 스토리텔링 고도화 ·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 · 시설물 디자인 · 지역 스토리텔링 개발 · 마을 커뮤니티 강화 · 마을 경관개선 ·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 제공

5절 소결

1. 대부도 현황 파악 및 5, 6코스 분석 요약

3장 트레일 유형화의 결과로 대부해솔길을 심층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대부도는 수도권과 인접하고 람사르 습지, 동주염전 등 우수한 자연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을 가진 대표적인 근교 관광지이다. 대부도는 일시적 체류형 관광객들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관광객 밀집 지역을 분산시키고 보다 생태친화적인 섬을 만들고자 많은 개선 사업을 진행 혹은 계획 중이다.

대부도 주요 자연자원으로는 농업지역의 논과 특산품 포도를 생산하는 과수원, 산림지역은 황금산 일대를 중심으로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이 주요 식생 자원을 형성한다. 수역은 대부도 전체 면적의 29.98% 차지할 만큼 넓게 분포하고 있고 해안 습지의 갯벌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요 보호지역은 두 개의 습지보호구역과 경기도 문화재로 등록된 대부광산 퇴적암층이 있었다.

관광자원은 구봉도 낙조전망대, 방아머리해수욕장 등 대부해솔길 1코스 구봉도 주변으로 관광 인프라가 밀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외 지역으로는 황금산 인근 그랑꼬또 와이너리, 선감어촌체험마을, 탄도항, 바다향기 수목원 등이 있었다. 공용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역시 관광자원이 밀집한 1코스에 집중 분포 하고 있으며 그 외 5, 6 코스 펜션단지과 탄도항 주변으로 일부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숙박시설은 해안선을 따라 펜션들이 확산되어 있으며 5, 6코스에는 펜션들이 집중적으로 밀집한 단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ROS와 경관 분석, 방문객 심층 인터뷰를 위해서 코스 중 자연이 우수하고 관광객 밀집 현상이 적은 5, 6코스를 선정하였다.

ROS 분석을 통해 해솔길 5, 6코스 주변 자연성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크게 자연성이 높은 순으로 SPM(Semi primitive motorized), RN(Roaded Natural), R(Rural), U(Urban)의 요소로 분류되었다. 5코스에는 3개의 펜션 밀집구역이 U, 승마장과 박물관, 낚시터 등 문화체육관광시설들 위주의 R, 갯벌과 염전의 RN, 벼랑산 일대의 SPM이 주요 ROS를 이루고 있었다. 6코스는 5코스 처럼 펜션 밀집구역 외에 경기창작센터, 탄도항 일대, 횃집 밀집구역 등 U를 형성하고 있었다. R의 요소로는 선감어촌체험 마을과 그 일대, RN으로는 대부광산 일대, SPM은 탄도항

과 불도 방조제 인근 산림을 보유한 야산이 주요 ROS를 형성했다.

경관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5, 6코스를 심층 인터뷰 방문객과 함께 걸으며 경관을 분석했다. 5코스의 긍정적 경관 요소로는 제방길을 걸으며 갯벌에 자란 염생식물의 풍경, 동주염전, 잘 정비된 전원 주택단지, 논 경작기 등이다. 부정적 요소로는 쓰레기 수거를 위해 도로변에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 염전의 낡은 건물들, 도시화된 펜션 밀집구역 단지로 나타났다. 6코스의 긍정적 경관은 갈대밭과 갯벌이 함께 경관을 이루는 장소와 해변길의 기암괴석, 탄도한 정망대, 마을 주민들의 텃밭, 갯벌 주위 작은 오솔길, 대부광산 퇴적암층 등이다. 부정적 경관으로는 탄도항 인근 캠핑장과 주차장 등으로 정리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는 요소들과 원색적인 간판과 낡고 간이건물을 연상시키는 횃집들, 해변길 주위로 버려진 컨테이너와 밀려온 해안 쓰레기 등이다.

2. 심층 인터뷰 분석 요약

대부해솔길 방문객 8인과 대부도 일대에서 활동하는 이해관계자 9인의 심층인터뷰를 진행,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이론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적용하여 심층인터뷰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방문객이 요구하는 이용자 중심 대부해솔길과 근교 하이킹 트레일은 무엇인가를 찾고자 했으며 이해관계자의 경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보고자 했다. 끝으로 앞 장의 모든 조사와 해당 분석을 종합하여 우리의 자연 기반 근교 트레일의 개념과 방향에 대해 도출하고자 했다.

방문객은 기존 등산 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력 부담이 적고, 자유로운 코스 선택이 가능하며, 짧은 문화라는 인식, 자연과 지역을 도보로 여행하는 매력 등으로 하이킹 문화에 진입하였다. 하이킹을 통해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주요 가치는 ‘자연과 지역을 경험’ 하는 도보 여행의 성격이 컸으며, 이는 기존 걷기 문화가 정상을 오르고 국토 순례를 하는 등 ‘목표지향적 가치’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방문객이 원하는 대부해솔길 역시 ‘대부도의 자연’, ‘지역의 생활상’, ‘농·어촌 마을의 정취’를 경험하는 것이었다. 해당 가치는 이들이 선호하는 경관으로도 반영되었다. 갯벌과 노을, 오솔길, 야생화, 염생식물 등 인공적

요소가 적은 자연경관과 포토밭, 염전, 가옥의 건축 및 조경, 마을 골목과 제방길 등 마을의 정취와 주민의 삶을 경험하게 해주는 요소들이다. 대부해솔길 약점으로 편의시설 및 트레일 인프라는 차도와 구분되지 않아 위험한 구간, 부족한 벤치와 그늘 부족, 하이커 선호의 숙박시설 부재 등이 있었다. 경관 차원으로는 곳곳에 쌓인 쓰레기와 대형 폐기물, 정리되지 않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경관, 불법주정차, 묶인 개 등이었다. 강점으로는 매력적인 자연경관 요소들과 포토밭과 갯벌 등 농·어촌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경관, 수도권과의 접근성, 잘 관리된 길 찾기 관련 시설물, 대부도 특징을 잘 살린 로고 디자인, 누구나 경험이 가능한 쉬운 난이도 등이다. 방문객은 사전에 대부도, 안산, 서해 갯벌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부해솔길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여 스토리텔링에 반영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해관계자들은 그동안 대부도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개발사업으로 자연이 훼손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시화방조제 건설, 관광개발로 난립한 건축물들,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을 호소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앞으로의 대부도 관광 방향성 역시 지역 자연과 문화자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오수 관리, 생물 종 모니터링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길 원했으며 무분별한 간판, 불법점유 시설물, 각종 폐기물 등 전반적인 경관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들이 원하는 대부해솔길 개선 방향 역시 이용자들이 대부도 자연의 가치를 깨닫는 방향으로 계획되길 원하고 있다. 일부 도로와 구분되지 않은 해솔길을 차폐, 데크길로 공유수면으로 유도하는 계획 등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선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 해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지역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3. 근교 하이킹 트레일의 개념 및 방향 요약

심층 인터뷰를 종합하여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의 핵심주제를 ‘자연과 지역 고유의 가치를 담은 도보 여행길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핵심주제의 자연의 범위는 ROS 기준 ‘Semi-primitive motorized’이며, 그 반대의 영역은 ‘Rural’이다. 근교 하이킹 트레일 이용자들은 해당 범위 지역을 도보 여행하며 ‘자연’

과 ‘지역문화’를 체험한다. 따라서 우리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이란 ‘자연(SPM)과 지역(R) 범위 내에서 그 가치를 경험하는 도보 여행길’로 개념화했다.

운영·관리가 우수한 근교 트레일은 다음과 같은 경향성이 있었다. 시민단체가 운영·관리의 주체거나 참여, 자치법규에 관련 조례가 존재, 지역주민이 참여한 특정 사건이 트레일의 발단이 되며 이는 자치법규 조례가 만들어지는 계기로도 발전, 트레일의 스토리텔링과 테마가 명확함, 트레일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지속적임. 이러한 경향성은 트레일이 속한 지역의 주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근교 하이킹 트레일의 개념을 반영한 코스 계획으로는 ROS를 기반으로 설정된 자연과 마을을 조화롭게 연결하고 도시지역과 인공적 요소를 회피하는 것과 해외 사례처럼 자연성 위계에 따른 코스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 그리고 접근성, 경사도와 숙소 형태 등 하이커 행태를 반영한 계획 등이다.

제5장 결론

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도보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2010년을 전후로 지역별로 수많은 걷기 길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그 개념과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아 이용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매력을 잃고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하이킹 트레일에 관한 개념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과 같이 잘 알려진 트레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 관심도가 떨어지지만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도권 근교 하이킹 트레일의 질적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다.

연구는 하이킹, 트레일과 같이 걷기 레저의 용어 및 개념 정의, 국내외 하이킹 트레일 배경 및 현황 파악, 근교 하이킹 트레일 조사 및 유형분류, 심층 연구 대상지 대부해솔길 방문객과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분석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각 장에서 도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의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의 개념과 실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우리의 트레일 개념과 제도는 등산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발현하는 하이킹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용어 및 개념 확립과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선적으로 걷기 레저 관련 용어의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여 각 용어들을 국내외 문헌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우리의 경우 ‘트레일’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통해 숲길의 종류에서 트레킹길의 하위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이는 아웃도어 레저 전반의 모든 길을 의미하는 해외 사례와는 다른 지점이었다. 하이킹 역시 트레킹 등과 개념적 혼선이 존재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하이킹을 ‘자연에서 여행을 겸한 걷기 행위’로, 트레일은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레저 형태의 모든 길’로 정의하였다.

둘째, 해외 사례 경우 트레일의 주요 원칙으로 ‘자연 기반’, ‘자연 보호’, ‘자연과 지역의 경험’, ‘국토의 이해’ 등을 두고 있었고, 이를 계획과 운영·

관리 및 설계에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트레일 주체가 각 지자체와 기관에 분산되어있는 우리와는 달리 통합적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여 그 현황 파악이 가능하였다. 반면 우리는 현재 전국에 존재하는 트레일 현황 파악이 미흡한 상태이며 기존 데이터 역시 신뢰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나아가 미국, 영국, 일본은 하이킹 트레일과 관련한 법적 체계, 주요 원칙, 디자인, 위계별 관리 등의 운영 지침이 확립되어 있었다.

종합하자면 우리의 하이킹 트레일은 ‘주요 원칙 수립’ 과 함께 ‘법적 제도적 개선’, ‘관리 및 운영지침 확립’, ‘전국 걷기 길 통합적 운영 시스템 구축’, ‘전국 하이킹 트레일 전수조사 및 재정비’ 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현황 파악으로 우리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은 어떤 유형과 특징을 가졌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산림형, 하천형, 해안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상응하는 자연 및 경관 특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트레일의 질적 측면을 높이는 근원적인 방법으로는 해당 자치 법규에 트레일 전용 조례 수립이 필요하며,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성격의 사단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이 트레일 운영·관리의 주체가 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3장의 도출된 근교 하이킹 트레일 중 대부해솔길을 심층 연구 대상으로 채택하여 대부도 현황분석, 해솔길 5, 6코스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부도의 현안 파악으로는, 현재 대부도는 일시적 체류형 관광객들로부터 대부해솔길 1코스, 방아머리 해수욕장 인근 지역이 매우 붐비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따라서 관련 인프라 개선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상태로 파악되었다. 대부도의 농업지역은 경작지 논과 포도 재배지인 과수원 순이었으며, 산림지역은 침엽수림이 우세하고 해변과 황금산 일대를 중심으로 분포하였다. 수역은 갯벌이 가장 넓게 분포해 있으며, 2개의 습지 보호구역이 존재한다. 인문 관광 및 편의시설은 1코스 주변과 5, 6코스 펜션 밀집 구역에 주로 분포해 있었다. 숙박시설은 대다수가 펜션의 형태로 존재하며, 해안선 전역에 분포하였다. 특히 5, 6코스 주변으로 대단지의 펜션이 밀집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요 습지 보호구역 주변으로 펜션이 밀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실제로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이 사안을 우려하는 내용을 다

수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도 해안선 주위로 여러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대부해솔길의 자연환경 및 경관적 약점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대부해솔길 5, 6코스 ROS 분석을 통해 5코스는 3개의 펜션단지가 가장 인공적인 Urban 영역으로 나타났고, 가장 자연성을 보유한 곳으로는 낮은 야산 위주의 Semi Primitive Motorized가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박물관, 승마장 등 문화 체육시설 일대가 Rural, 동주염전과 갯벌은 Roded Natural로 나타났다. 6코스의 경우는 경기창작센터, 탄도항과 그 주변, 횃집 등이 Urban, 선감어촌체험마을 등이 Rural, 선감어촌체험마을 인근 습지와 사구, 대부광산 퇴적암층 등이 Roded Natural, 선감로 숲길과 해변길, 탄도항 전망대 인근 야산이 가장 자연성이 높은 Semi-Primitive Motorized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대부해솔길 5, 6코스의 가장 자연성이 높은 곳은 숲을 보유하고 있는 낮은 언덕과 야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5, 6코스의 가장 특징적인 경관 경험을 제공하는 요소인 동주염전, 대부광산 퇴적암층, 갯벌과 사구 등은 Roded Natural 영역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관 분석은 5, 6코스를 방문객과 함께 걸으며 긍정적 경관과 부정적 경관의 경향성을 보고자 했다. 긍정적 경관으로는 동주염전, 탄도항 전망대,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같이 대부도의 대표적인 경관자원뿐 아니라, 붉게 핀 갯벌의 염생식물, 오솔길과 갯벌이 함께 공존하는 구간, 마을 제방길, 정돈된 전원주택단지, 포도 경작지 등 지역의 운치를 담은 소박한 경관 역시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 경관으로는 도로 및 해안 쓰레기, 컨테이너 등 버려진 대형 폐기물, 혼란스러운 간판과 인스턴트식 건축물이 밀집한 횃집들, 펜션단지와 같은 도시지역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인공적 요소로써 지역의 풍치와 자연경관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해당 내용을 보아, 대부해솔길은 기존에 대표 경관자산으로 여겼던 요소뿐 아니라 지역의 소박한 생활상을 보여주는 구간들을 특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적 경관으로 인식되는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섯째, 방문객과 이해관계자의 심층 인터뷰 고찰을 통해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이 가지는 함의를 찾고자 했다.

방문객은 기존 등산과 차별화된 걷기 문화의 매력을 통해 하이킹에 입문하게 되었다, 이것에는 젊은 문화라는 인식, 체력적 부담이 적어 동행인과의 소통이 용

이, 집단적 성향보다는 소수의 일행과 함께하는 도보 여행의 매력 등이 있었다. 이들은 하이킹의 주요 가치를 ‘자연과 지역의 운치를 경험’ 하는 것에 두었고 대부해솔길의 매력 역시 이러한 요소를 꼽았다. 그 외로 압도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접근성, 오지 트레일과는 달리 편의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언급했다. 반면 약점으로는 안산과 대부도, 서해 갯벌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도시화 된 모습, 낙후된 시설물, 과도하게 포장된 트레일 등 인공적 요소와 차도와 혼재되어 위험한 구간들, 벤치와 그늘의 부족, 마지막으로 하이커가 선호하는 숙박시설의 부재 등 하이킹 어메니티를 꼽았다.

이해관계자의 경우는 대부도 관광개발이 자연을 보호하는 형태로 진행되길 원했다. 또한 대부해솔길을 통해 기존 소외되었던 지역이 도보 여행자들로부터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었으며, 대부해솔길 기능 역시 대부도의 자연과 지역 자산의 가치를 소개하는 방향이길 기대하고 있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관개선, 쓰레기 문제 해결, 개방형 화장실 관리 문제 해결, 펜션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 필요, 열악한 대중교통 및 도로 정체 문제 해결 등 시설인프라 차원의 문제 해결과 전반적인 대부해솔길 노선 계획 방향성을 지적했다. 그 중심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상충하는 의견 갈등이 있었으며, 대안으로 주민 커뮤니티 및 소통의 장이 활성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심층 인터뷰 내용을 종합, 근거이론 선택코딩의 핵심주제를 ‘자연과 지역 고유의 가치를 담은 도보 여행길 구현’으로 설정하고 그 모델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은 ‘자연’과 ‘지역’의 영역 안에서 행위자의 ‘자연 체험’과 ‘지역 체험’의 여정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의 자연 기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의 개념을 ‘자연(SPM)과 지역(R)의 범위 내에서 그 가치를 경험하는 도보 여행길’로 수립하였다. 해당 개념을 기반으로 우리의 근교 하이킹 트레일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지역 고유의 자연 및 생활상을 도보 여행길로 구현하고, 이용자로부터 그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걷기 레저의 모호한 개념과 용어 정의로 제도적 보완 및 관련 연구 발전에 혼란을 주었던 부분을 해결하는 것. 둘째, 해외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의 근교 하이킹 트레일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점을 찾는 것. 셋째, 근교 하이킹 트레일을 전수조사하여 그 유형을 파악. 넷째, ROS와 경관분석 방법론을 코스 분석에 도입하여 트레일의 질을 평가하는 것, 마지막으로 질적연구 방법론을 트레일 관련 연구에 적용시킨 것에 그 의의를 둔다.

연구의 한계로는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는 발현하는 하이킹 용어가 아직은 학술적 혹은 이용자 측면에서 확립되는 단계이며, 이는 해외 사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각 용어의 개념적 정의가 필요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용자의 관점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소 존재할 것으로 본다. 또한 근교 하이킹 트레일 전수조사에 있어 전국 현황 데이터와 GPX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전국길관광표준데이터에는 오래전 만들어져 실제로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 트레일들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았고, 두루누비 데이터 역시 각 트레일의 수정사항을 즉각적으로 업데이트 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실제 대부분해솔길 코스 정보 역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11개 코스가 아닌, 해솔길 조성 초기의 7개 코스를 두루누비는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3장 본 연구의 틀로 제시한 14개 트레일 역시 현재 상황과는 디테일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ROS의 경우 광활한 미국 국토를 기준으로 발전한 수단으로, USDA가 제시한 매뉴얼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심층 인터뷰의 내용이 방대하였으며, 근거이론은 그 이론적 측면에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근거이론을 적용한 심층 인터뷰 분석은 방문객과 이해관계자의 대략적인 인식을 탐구하고 그 경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을 연구의 한계로 본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1) 법률 및 관련 시행지침

- 『강화군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2020)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2021)
-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2013)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020)
- 『수도권정비기본법』(2020).
-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2017)
-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2020)
-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5)
-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9)

(2) 단행본

- 국립공원관리공단(2013). 국립공원 탐방로 관리 매뉴얼.
- 산림청(2007). 등산지원기본계획(2007~2017).
- 산림청(2013).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
- 산림청(2015). 숲길등산정책 사업계획.
- 이현상(2019). 인사이드 아웃도어, 리리 퍼블리셔.
- 정승혜(2015). 광고 연구의 질적 방법론. 김복스닷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0). 걷기여행 실태조사.
- 국립생태원(20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bS)의 국제논의 동향과 시사점. NIE Issue Report, 21-01(통권9호)
- 국립산림과학원(202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부문의 자연기반해법 활용,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 제936호
- 박경이(2021), “등산”, 산림문화전집, 『숲과문화연구회』 16: pp.264-294

(3) 연구논문

- 권향원(2016). “근거이론의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 실천적 가이드라인과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 181-216.
- 김기원(2009). “숲길 계획의 개념적 기법에 관한 연구” ,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3.2 : 11-24
- 김도훈, 조혜령, and B. D. M. C. S. Wijethunga(2013).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불문투어리즘 발전방안-우프코리아 참여활동의 근거 이론적 해석.“ 『농촌계획』 19.2: 149-62.
- 김선희(2015). “도보여행길에 대한 주민의 관광영향지각, 환경태도, 참여 관계 분석” , 『대한지리학회』 50.3: 339-54.
- 김세건의 3인(2012). “국내 숲길의 유형 분류 및 적정 규격에 관한 고찰.“,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16.1: 77-86.
- 김정민(2011). “도시형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에 대한 시민 인식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5(1): 102-110.
- 남성진, 최정호, and 이재모(2011). “근거이론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주민 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9.39: 101-28.
- 박경만(2021). “DMZ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탐색적 연구: 파주·연천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관광산업학회』 46.4: 125-51.
- 박금미, 정태열(2014). “소백산 자락길 생태탐방로 개발계획에 대한 각 집단 태도분석” , 『한국조경학회』 42(2): 41-51.
- 이미경, 박한우(2020). “빅데이터를 이용한 국내 걷기여행길 연결망 분석과 경쟁력 평가” , 『한국관광학회』 44(1): 41-57.
- 이영영, 김준순(2018). “제한적 탐방제에 대한 보호지역주민의 만족도 분석: 곰배령과 금강소나무숲길 사례” , 『한국환경정책학회』 26.3: 203-31.
- 이차희, 탁영란, 김민서, 손용훈(2014). “농촌체험관광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양평군,이천시 농촌나드리 비교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20.3: 75-88
- 이태숙외 2인(2020). “국내 주요 걷기여행길의 이용행태에 대한 시멘틱 네트워크(Semantic Network) 분석” , 『한국관광학회』 44.4: 147-67.

- 장윤선, 손용훈(2017). “치유의 숲 내 치유숲길 이용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21.3: 35-45.
- 정윤정, 김성일(2018). “생태관광지 방문객의 동기 및 태도에 따른 시장세분화 - 경기도 대부 해솔길 방문객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 46.3: 46-57.
- 정태열외 2인(2018). “백두대간 운영관리전략을 위한 방문객의 이용행태와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22(2): 17-28.
- 정휘, 강미희(2011). “도보여행자의 특성 규명:지리산둘레길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산림과학회지(구 한국임학회지)』 100(3): 382-391.
- 정휘, 양병이(2008). “광역 탐방로 노선설정을 위한 계획요소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6.5: 35-41
- 조우현, 임승빈(2013). “북한산 둘레길 경관선호도와 이용만족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 41.1: 1-11.
- 황국웅, 장병관(2011). “산악지역에서의 장거리 트레일 조성 계획방법 및 적용”, 『농촌계획』 17(3): 55-65

(4) 학위논문

- 이규철. On-site Landscape Perception Analysis with Visitor Generated Contents in Bukhansan National Park / Kyu-chul Lee (2017).
- 정휘(2008). 광역 생태탐방로 노선선정 계획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5) 연구보고서

- 김통일, 김재준(2014). 국가등산로 노선지정기준 및 관리방안 연구, 국립산림과학원.
- 문화체육관광부(2014). 걷기여행길 통합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개발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9), 걷기여행 실태조사
- 이수광, 서정원(2021). 해외 국가트레일 제도 및 운영사례, 국립산림과학원.
- 한국관광공사(2017), 걷기여행길 실태조사 및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연구, 한국관광공사.

(6) 홈페이지 및 기타

- 강화나들길, <http://www.nadeulgil.org/>
- 경기둘레길, <https://www.gg.go.kr/>
- 경기옛길, <https://ggcr.kr/>
- 그레이웨일디자인. <https://www.gwd.kr>
- 내포문화숲길, <http://www.naepotrail.org/>
- 두루누비, www.durunubi.kr
- 문화관광 - 안산시청, <https://www.ansan.go.kr/tourinfo/main/main.do>
- 물소리길, <https://www.yp21.go.kr/mulsorigil/index.do>
- 안산시청, <https://www.ansan.go.kr/>
- 여강길, <http://rivertrail.net/>
- 전국길관광정보표준데이터, <https://www.data.go.kr/data/15017321/standard.do>
- 춘천봄내길걷기여행, <http://www.bomne.co.kr/>
- 치악산 둘레길, <http://www.chiaktrail.kr/>
- 한탄강지질공원, <https://www.hantangeopark.kr/>

■ 국외문헌

(1) 법률 및 관련 시행지침

- Countryside and Rights of Way Act 2000
- National Parks and Access to the Countryside Act 1949
- National Trails System Act, SEC. 3. [16USC1242]

(2) 단행본

- Corbin, Strauss, and Strauss, Anselm L. (2015).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 Juliet Corbin, Anselm Strauss.

(3) 연구논문

- Antoušková, Michaela, Jana Mikulec, and Alena Kolářová. (2014), “Hikers’ Motives for Choosing a Hiking Trail - Evidence from the Czech Landscape Protected Areas.” SHS Web of Conferences 12: 1075
- Bratton, Susan Power. (2020), “Spiritual Encounters with Nature: Day Hiker Perceptions of Trail Experiences in Three Settings-urban, Suburban Natural Area, and Wildland; Representing Three Modes of Hiking-goal-directed, Nature Observation, and Meditative.” Worldviews : Environment, Culture, Religion 24.1: 35-57.
- Charmaz, Kathy, and Robert Thornberg. (2021). “The Pursuit of Quality in Grounded Theor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18.3: 305-27.
- Dorwart, Catherine E., Roger L. Moore, and Yu-Fai Leung. (2009), “Visitors’ Perceptions of a Trail Environment and Effects on Experiences: A Model for Nature-Based Recreation Experiences.” Leisure Sciences 32.1 (2009): 33-54.
- Dunne, Ciarán. (2011). “The Place of the Literature Review in Grounded Theory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14.2: 111-24

- Dwyer, Larry, and Deborah Edwards. (2000), "Nature-Based Tourism on the Edge of Urban Development."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8.4: 267-87.
- Hugo, M. L. (1999), "A Comprehensive Approach Towards the Planning, Grading and Auditing of Hiking Trails as Ecotourism Products." *Current Issues in Tourism* 2.2-3 (1999): 138-73. Web.
- Lee, Carole K., and Patti Ensel Bailie. (2019), "Nature-based Education: Using Nature Trails as a Tool to Promote Inquiry-based Science and Math Learning in Young Children." *Science Activities* 56.4: 147-58.
- McNamara, Karen Elizabeth, and Bruce Prideaux. (2011), "Planning Nature-based Hiking Trails in a Tropical Rainforest Setting."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6.3: 289-305.
- Olafsdottir, Rannveig, and Micael C Runnstrom. (2013), "Assessing Hiking Trails Condition in Two Popular Tourist Destinations in the Icelandic Highlands." *Journal of Outdoor Recreation and Tourism* 3-4: 57-67.
- Vías, Jesús, José Rolland, María Luisa Gómez, Carmen Ocaña, and Ana Luque. (2018) "Recommendation System to Determine Suitable and Viable Hiking Routes: A Prototype Application in Sierra De Las Nieves Nature Reserve (southern Spain)." *Journal of Geographical Systems* 20.3: 275-94.
- Wynveen, Christopher J, Ingrid E Schneider, Arne Arnberger, Stuart Cottrell, and Eick Von Ruschkowski. (2020). "Integrating Place Attachment into Management Frameworks: Exploring Place Attachment Across the 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 *Environmental Management (New York)* 66.2: 248-62

(4) 보고서 및 매뉴얼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INTERIOR NATIONAL PARK SERVICE. (2019), Reference Manual 45, National Trails System Chapters 1 through 10 & Appendices.
- City of Toronto. (2013), Natural Environment Trail Strategy.
- Ministry of Forests Forest Practices Branch for the Resources Inventory Committee. (1998). 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 Inventory Procedures and

Standards Manual.

- National Technical Standard. (2015) – Public rights of way.
- National Trails. (2015), National Trails: management standards.
- National Trails. (2021), Events on National Trails Guidance for Organisers.
- USDA Forest Service San Bernardino National Forest. (2020), Lytle Creek Canyon Recreation Management Plan.
- Washington Office USDA Forest Service. (2017), National Winter 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 (ROS) Inventory Mapping Protocol.
- 환경성 자연환경국(環境省 自然環境局). (2012), 도호쿠 태평양 연안 자연보도 기본계획(東北太平洋岸自然歩道 基本計画).

(5) 홈페이지 및 기타

- American Hiking Society, <https://americanhiking.org/>
- Americantrail, <https://www.americantrails.org>
- Appalachian Trail Conservancy, <https://appalachiantrail.org>
- Cambridge Dictionary, <https://dictionary.cambridge.org/>
- Cambridgeshire Walks, <https://cambswalks.blogspot.com>
- Ecosystems Knowledge Network, <https://ecosystemsknowledge.net/>
- Forest Servic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https://www.fs.usda.gov/>
- GOV.UK, <https://www.gov.uk/>
- Lake District National Park, <https://www.lakedistrict.gov.uk>
- MICHINOKU TRAIL CLUB, <https://m-tc.org/en/mtc/>
- Ministry of the Environment, Government of Japan, <https://www.env.go.jp/>
- National Park Service, <https://www.nps.gov>
- National Trails, <https://www.nationaltrail.co.uk/>
- Natural England, <https://www.natural-england.org.uk/>
- NBS GUIDE LINES, <https://nbsguidelines.info>
- NRT Database by American Trails, <https://www.nrtdatabase.org/>
- Online Etymology Dictionary, <https://www.etymonline.com>
- Partnership for the National Trails System. <https://pnts.org/>
- Places Journal, <https://placesjournal.org/>
- UNWTO, <https://www.unwto.org/sustainable-development>